

국립국어원 2013-03-10

독서와 국어 능력 향상

2013년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교재



국립국어원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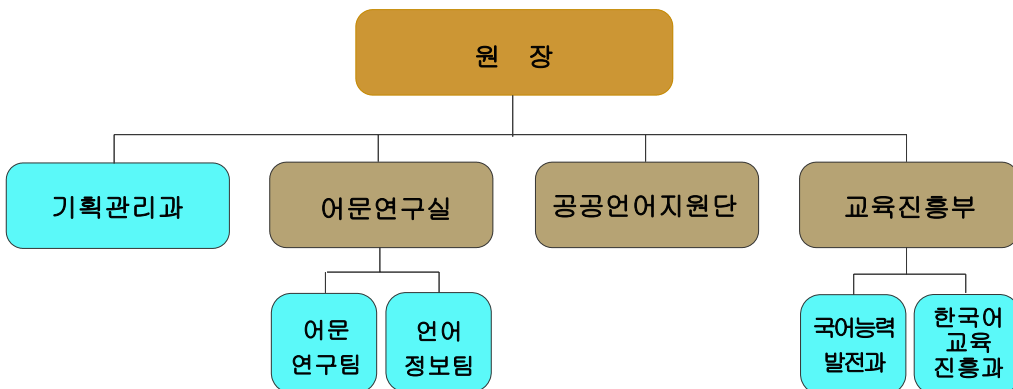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소개	001
국어문화학교 소개	004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소개	009
● 21세기 독서의 의미 노명완	013
●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방안 옥현진	047
● 미래 세대를 위한 독서 교육 이순영	059
● 독서와 표현 능력 김성수	079
● 국어 정보 활용법 권미영	109
● 문학으로 여는 세상 - 정보 사회와 문학 - 문흥술	129
● 나를 찾는 독서 - 당신은 삶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 (3회)이철환	137
● 나를 찾는 독서 - 나의 삶, 나의 독서, 그리고 나의 문학 - (4회)고정욱	155
● 의미를 찾는 읽기와 쓰기 -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이가령	171
● 독서 토론의 방법 김주환	187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언어	기획관리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 등
	어문연구실	◆어문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언어정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 조사·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 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칙, 표준화에 대한 연구·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언어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 용어 정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장	교원진흥부	◆국어능력발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육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한국어 보급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가나다 전화(1599-9979, 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 news@korean.go.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국어문화학교 소개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운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 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300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3,800명에 이르러, 12년간 약 2만 7천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 (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5. 10.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 (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2009. 10.	언론·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1.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2.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운영 시작
2010. 6.	새터민 대상 특별 교육 과정(표준어 교육) 운영 시작
2011.	새터민 대상 표준어 교육 실시 경기도 교육청, 강서 교육청과 업무 협정으로 지역 내 학생 대상 우리말 교실 운영
2012.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과 업무 협정으로 특별 과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운영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운영 시작

국어문화학교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연 도	과 정	국어전문교육과정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19	1,292	123	15,412
2002년		19	1,452	185	16,970
2003년		16	1,486	157	17,890
2004년		17	1,458	176	16,332
2005년		17	1,765	195	15,655
2006년		18	1,921	190	12,926
2007년		22	2,354	253	19,305
2008년		24	2,443	148	10,275
2009년		27	2,733	297	19,062
2010년		35	3,174	316	27,804
2011년		29	2,701	334	28,689
2012년		36	3,841	486	34,347
합 계		279	26,620	2,860	234,667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연습,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 글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훈민정음의 이해,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읽고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학교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협력적 의사소통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 *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함.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훈민정음의 이해’ 등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 신청하고 학습할 수 있음.

●.....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소개

추진 배경

국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소통의 시대를 열 필요

국어운동 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한국어 정화 요구 증대



사업의 비전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한국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국어**



사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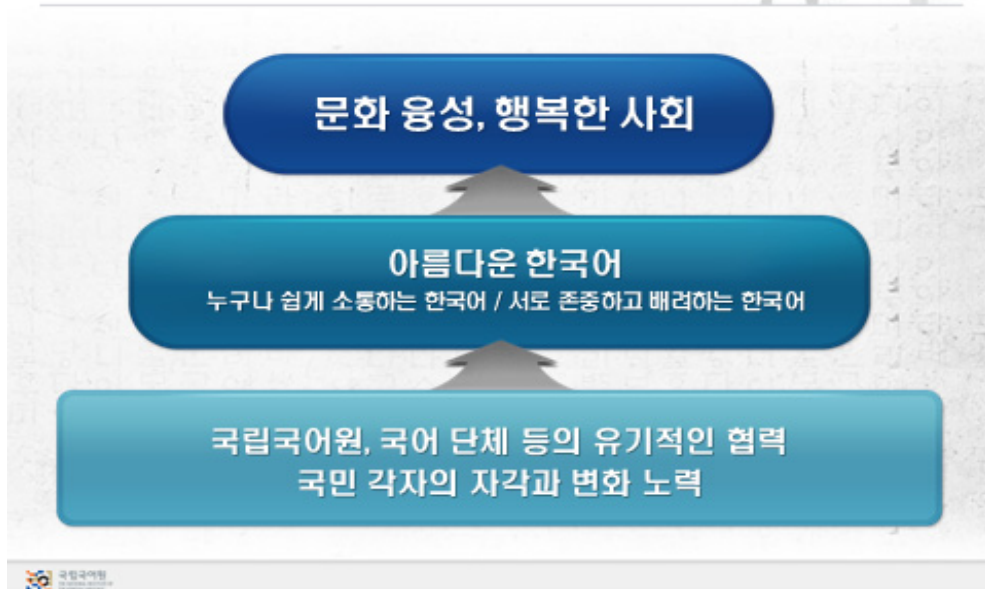
추진 체계

쉬운 공공언어, 품격 있는 방송언어,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



추진 단위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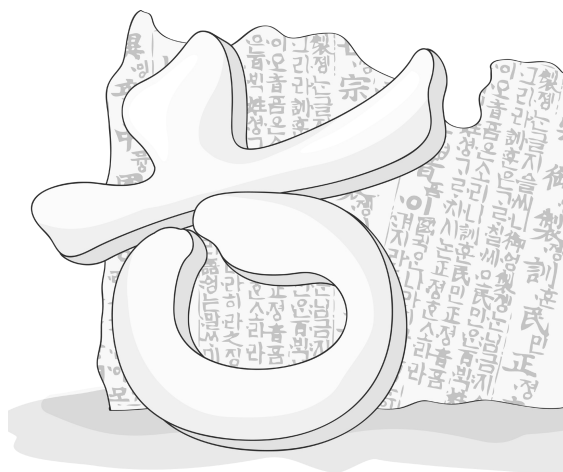
문체부 (국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부처 협조 체계 구축 • '우리말 가꿈이' 및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국립국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사업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 • 바른 언어 사용 기준 마련, 지침서 발간, 참여자 교육, 시민 대상 강좌 개설 및 운영 등 민간 활동 지원
참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가 모집 및 양성 •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우리말 사랑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의 언어 환경 조사 및 개선 활동 • 우리말 가꾸기 시민 운동 전개 및 분위기 확산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행동 자가 점검 및 실천 항목 작성, 이행 • 가정, 직장 등에 전파하여 우리말 가꾸기 참여 유도





21세기 독서의 의미

노 명 완 | 고려대 국어교육과



21세기 독서의 의미

노 명 완 | 고려대 국어교육과

I. 서론

‘21세기 독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독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물론 독서가 이 시간의 논의의 초점이 되지만, 그래도 독서의 개념을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관심을 ‘인간’, ‘언어’, 그리고 ‘교육’에까지 넓혔으면 합니다. 또한 서로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몇 가지 작은 주제나 관심사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발표해 보고 비교도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I. 몇 가지 중요 주제들

1. 인간의 진화

모든 생물은, 그것이 동물이건 또는 식물이건, 진화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화의 결과가 오늘의 그 생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화의 모습을 몇 가지 동물들을 예로 살펴봅시다. 말의 몸에서 가장 현저하게 진화한 부분은 발굽입니다. 말은 넓은 들에서 사자와 같은 맹수에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진화 발달된 부분이 바로 발굽입니다. 말 발굽은 빨리 달리기에 매우 안성맞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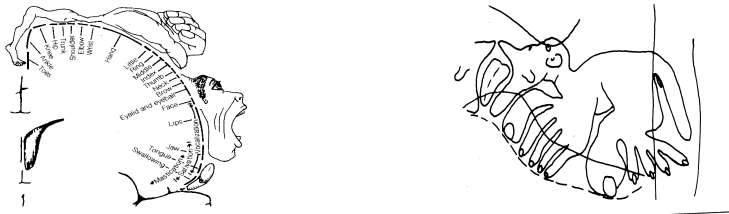
넓은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기린은 목이 매우 길니다. 목뼈의 수는 다른 동물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뼈마디 하나하나가 길어져 지금의 모습과 같은 긴 목을 갖게 된 것이지요. 흐르는 물에 사는 물고기는 유선형으로 그 몸을 진화시켰습니다. 진흙 속에

사는 뱀장어는 몸이 둥글고 길다. 기린, 물고기, 뱀장어 모두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형태로 몸이 진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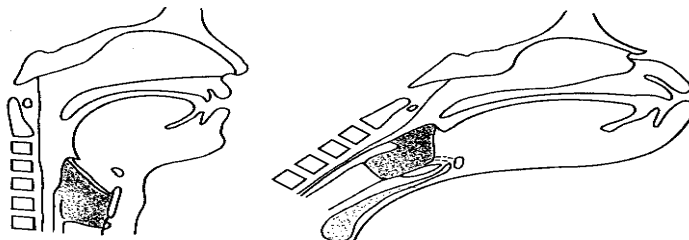
그렇다면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잘 진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한 번 자신의 몸 전체를 살펴보고, 또 옆 사람의 몸도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진화한 부분이 어디일지 생각해 보고 아래의 네모 속에 생각한 것을 적어 봅시다.

□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잘 진화한 부분은?

아래의 그림은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지구 동물 중에서 최고의 영장류가 바로 인간이고, 침팬지는 바로 인간 다음으로 똑똑한 영장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서 인간 진화와 침팬지의 진화를 찾아봅시다.



(비교1 : 인간 두뇌와 침팬지의 두뇌 기능 비교 : 근육 관장을 중심으로)



(비교2 : 인간의 발성 기관 구조와 침팬지의 발성 기관 구조)

2. 아동의 언어 발달과 지능 발달

아동발달, 그 중에서 특히 아동의 지능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아동의 나이가 4세 정도 되면 지능 발달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동의 언어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거의 4세 경이 되면 아동의 언어 발달도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동의 지능 발달과 언어 발달이 시기상으로 거의 비슷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우연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 아동의 발달(키, 몸무게, 두뇌 무게, 그리고 언어 사용)과 침팬지의 발달(몸무게, 언어 사용여부)에 관한 몇 가지 가설

1. 가설1 :

2. 가설2 :

이제 아래의 자료를 살펴봅시다. 이 자료 속에는 아동의 몸무게, 두뇌무게, 그리고 언어기능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침팬지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정보가 있지요. 이 네모 속 자료를 보면서 인간과 침팬지의 발달에 대해 가설을 만들어 봅시다. 아울러 의문 형태로 진술된 아래의 몇 가지 추가 자료들도 생각해 봅시다.

인간과 침팬지의 언어, 두뇌 비교

	나이	언어기능	몸무게(kg)	두뇌무게(kg)
인간 (남자)	2½	시작	13.5	1.10
인간 (남자)	13½	있음	45.0	1.35
인간 (남자)	18.0	있음	64.0	1.35
침팬지 (암컷)	성체	없음	47.0	0.45

- 예부터 어른들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 아동은 만 1살이 되면 일어문(한 단어로 된 말)을 하고, 두 살 반이 되면 3어문도 말합니다. 위의 네모 속 자료에도 아동의 나이가 2½이 되면 언어기능(말을 하는 것)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늑대인간’은 산속 굴 속에서 늑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인간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배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조건은 무엇일까요?
- 유치원에서는 흔히 아동의 지능 발달을 위한 교육으로 놀이를 강조합니다. 아동학자 피아제도 놀이를 매우 강조하였지요. 아동 교육에서 지능 발달을 위한 놀이 강조는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나요?

3.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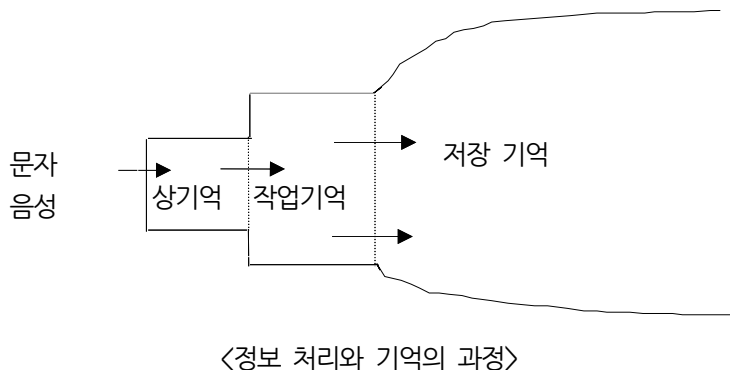
인간의 언어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음성언어 사용은 아마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약 200만 년 전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언어 사용은 약 5천년 전부터입니다.

학자들은 인간이 문자언어 사용하기 시작한 5천년 전부터의 역사를 역사시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문자언어 없이 오직 음성언어만 사용하였던 그 이전의 시기를 선사시대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인류의 문명 발달은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인류는 음성언어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원시생활을 하다가 문자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문명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문명이란 무엇이고, 문자언어 사용과 문명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아래의 네모 속에 생각을 적어 봅시다.

□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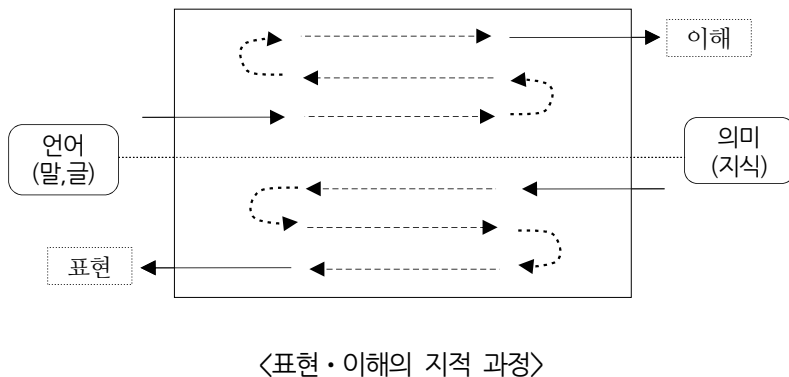
□ 문자언어의 사용은 문명 발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래의 그림을 살펴봅시다. 이 그림은 시청각 자료의 입수에서부터 지식 및 정보의 저장까지의 경로를 간단히 표시한 것입니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상기억(‘과연 상기억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작업기억(‘작업기억에서는 무슨 작업을 할까요?’), 저장기억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4. 표현과 이해, 언어와 의미의 처리 과정

말하기와 쓰기는 언어적 표현 활동입니다. 듣기와 읽기는 언어의 이해 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 즉 표현과 이해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언어(또는 의미) 처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그림을 먼저 봅시다.



이제 다음의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 표현 과정은 능동적 과정이고, 이해 과정은 수동적 과정인가요?
- ‘언어’는 표현된 말이나 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의미(지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지식)은 언어일까요 아니면 언어가 아닐까요?
- 언어를 의미로 바꾸거나 의미를 언어로 바꾸는 지적 과정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해 말해 봅시다. 또, 태극기의 모양을 보고 무엇을
알았는지, 이때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서 언어와 의미 사이의 변형이 얼마나 어려운
지적 과정인지 생각해 보고 또 이야기해 봅시다.

5. 국어 교과와 수업 시수

학교의 수업은 그 90% 정도가 교과 수업입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수업이 바로 이런 교과 수업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체험활동, 재량활동 등으로 사용됩니다.

각 교과와 수업 시수는 교과마다 다 다릅니다. 아래의 자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교과별 주별 수업 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 등 학 교						중 학 교		
	1	2	3	4	5	6	7	8	9
도덕	1	1	1	1	1	1	2	2	1
사회	3	3	3	3	3	3	3	3	4
과학	3	3	3	3	3	3	3	4	4
수학	4	4	4	4	4	4	4	4	3
국어	7	7	6	6	6	6	5	4	4

이제 아래의 질문에 답을 해 봅시다.

- 위의 여러 교과 중에서 주별 수업 시수가 가장 많은 교과는 무엇인가요?

- 수업 시수는 곧 그 수업의 중요도의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국어 수업 시수는 도덕의 6-7배, 과학이나 사회의 3배 이상, 그리고 수학보다 더 많습니다. 국어 수업이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그리도 많은 수업 시수를 여기에 배정해 주었을까요?

6. 국어 교과서

모든 교과는 그 교과 나름의 교과서를 갖고 있습니다. 과학 교과는 과학 교과서를, 그리고 수학 교과는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어 교과도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보입니다. 과학 교과서에는 과학에 관한 내용의 글만 들어 있습니다. 과학 내용 이외의 내용을 가진 글은 과학 교과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학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수학에 관한 글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어 교과서에는 언어나 문학 작품 이외에 과학에 관한 글도, 사회에 관한 글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술에 관한 글도 들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국어 교과서에는 범교과적 내용의 글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는 많은 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문들이 내용상으로 보면 범교과적입니다. 사회과 내용도, 과학과 내용도, 도덕과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 봅시다. 왜 국어 교과서나 국어 시험에는 범교과적인 내용의 글이 다 나오니까? 이런 범교과적 내용의 글을 가지고 국어 수업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과학 교과서의 글은 그 내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수학 교과서의 내용은 더욱 그러합니다. 선생님의 지도 없이는 결코 혼자서는 공부할 수 없을 정도로 수학 교과서의 글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국어 교과서에 들어 있는 과학적인 글, 수학적인 글들은 거의 대부분 매우 쉽습니다. 학생들이 읽기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 봅시다. 왜 국어 교과서의 글들은 대체로 읽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울까요? 교과서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7. 국어 시험 문항, 주관식과 객관식

학교에서는 일정 기간 수업을 한 후에 꼭 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등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때에도 입학시험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시험이 객관식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학, 과학, 국어 이렇게 세 교과와 문제들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어 직접 풀어봅시다.

주관식 문제

<수학>

- * 20,000원을 예금하여 1년만에 찾은 돈이 22,400원이다. 연이율은 몇 %인가?

답 ()

<과학>

- * 성냥개비의 깡부기불을 만들어 산소가 들어 있는 집기병 속에 넣으면 깡부기 불은 어떻게 되나?

답 ()

<국어>

- * 다음 시조에 알맞은 제목을 붙이시오.

마을 사람들과,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 나서 옳지못 못하면,
마소를 갓 고갈 씌워 밥먹이나 다르랴.

답 ()

객관식 문제

<수학>

- * 40만원을 예금하여 1년 만에 찾은 돈이 45,200원이다. 연이율은 몇 %인가?

① 10% ② 11% ③ 12% ④ 13%

<과학>

- * 촛불을 비커로 덮으면 어떻게 되나?

① 차츰 꺼진다 ② 더 잘 탄다
③ 즉시 꺼진다 ④ 변화가 없다

<국어>

- * 다음 시조에 알맞은 제목을 붙이시오.

들마다 늦은 가을 찬바람이 일어나네.
벼 이삭, 수수 이삭, 오솔오솔 속삭이고,
밭머리 해 그림자도 바쁜 듯이 가누나.

답 () ① 수확 ② 가을 ③ 바람 ④ 한가함

이제 다음 질문에 답을 해 봅시다.

- 전체적으로 주관식 문항이 쉬운가요, 아니면 객관식 문항이 쉬운가요?
- 수학의 경우는 객관식 문항의 답지가 문제 풀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과학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 국어의 경우는 객관식 답지가 문제 풀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왜 수학이나

과학의 문항과는 달리, 국어 문항에서는 답지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 수학이나 과학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나요?
- 주관식 문항의 경우, 위의 세 교과 즉 수학, 과학, 국어 중에서 어느 교과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가요?
- 이제 객관식 문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위의 세 교과의 객관식 문항 중에서 풀기에 가장 쉬운 교과는 무엇인가요?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이 객관식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Ⅲ. 현대사회의 특성과 독서

현대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가 지식·정보중심의 사회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현대사회가 인간중심의 사회라는 점이다.

1. 지식중심의 현대사회와 독서

현대사회를 흔히 지식기반사회라 부르고 있다. 지식이나 정보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고 방향타가 된다는 점이다. 인류의 역사는,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 천 년 동안의 신앙시대, 약 300여 년 동안의 문예부흥시대, 그리고 약 200여 년 동안의 산업시대를 거쳐 드디어 우리는 지금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지식의 양과 생산 측면에서 그 이전 사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학자들은 200여 년 동안의 산업사회에서 만들어 낸 지식의 양이 그 이전 수 천 년 동안에 만들어 낸 지식의 양보다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근 몇 십 년 동안에 만들어 낸 지식의 양이 200여 년 동안의 산업사회에서 만들어 낸 지식의 양보다 더 많다고 한다. 지식의 양은 이제 거의 10년 단위로 배가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지식의 고급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이행을 학자들은 ‘노동집약적 → 자본집약적 → 두뇌집약적’ 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지식의 고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요즘 기업이나 국가에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더 중요시하는 정책과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식중심, 그것도 고급화된 지식중심의 현대사회에서는 그 구성원들에게 고도화된 지력(知力)을 요구한다.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지식의 수용과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지식의 수용이나 기억만으로는 결코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보다는 지식에 접근하고, 그 지식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종합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식까지 창의해 내는 능력, 즉 지식을 다루고 만들어 나가는 능력인 지력(知力)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지력의 핵심이며 원동력이 바로 독서인 것이다.

2. 인간중심의 현대사회와 독서

현대사회의 두 번째 특징은 인간중심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중심의 개념은 두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일의 결정에서 일 그 자체보다는 인간의 문제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중심이 집단에서 점차 개인으로 이행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이 집단적 인간의 권리가 아닌 개인적 권리가듯, 인간중심도 집단적 인간이 아닌 개인적 인간이라는 점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말하는 인간존중 사상은 과학주의에 대한 회의와 행복의 개념에 대한 재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래 과학주의를 추구해 오다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렀다. 그러면서 과학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과학화의 상징이었던 표준화·전문화·동시화·집단화·대량화의 경향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다양화·종합화·비동시화·개별화·소량화가 들어서고, 심지어는 개별 맞춤화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의 모던사회가 이제 포스트모던 사회로 변한 것이다. 과거 광고에서 많이 보았던 ‘하이테크’가 지금은 ‘휴먼테크’로 바뀌었고, ‘고도기술’이 ‘고도감각’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독서는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인간중심 사회에서도 그 핵심적 위치에 있다. 독서는 필자와 독자 사이의 인간적 만남이다. 독서라는 이 인간적 만남을 통해서 독자는 다양한

시대·지역·계층·성격의 사람들을 만나 지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교감을 갖는다. 독서를 통한 이런 만남은 가식도 체면도 그리고 집단적 전체도 없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교감인 것이다. 이런 교감을 통해서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고 자신을 키워가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Ⅳ. 독서의 개념과 기능

독서는 인간의 개인적 삶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전체적인 운용에도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아래의 몇 가지 측면에서 독서가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여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독서는 문명발전의 원동력

앞에서도 잠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문명은 문자언어의 사용에서 비롯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캐나다의 심리학자 올슨(Olson)은 아래와 같이 간명하게 말하고 있다.

“언어는 인간 개념의 핵심이다. 음성언어의 사용으로 인간은 인간다워졌고, 문자언어의 사용으로 인간은 문명화되었다.” (The faculty of language stands at the center of the conception of mankind: speech makes us human, and literacy makes us civilized.)

시간과 공간 속으로 곧 소멸해버리는 음성언어와 달리, 문자언어는 오랜 동안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런 보존으로 인해, 인간의 문자언어 처리 과정은 음성언어 처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고 더 넓어진다. 바로 여기서 고등정신기능(higher mental functioning)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등정신기능이 바로 과학과 문명을 이루어 낸 원동력이 된 것이다. 달리 말해서, 바로 독서가 과학과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2. 독서는 의미 창조의 원동력

작문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의미 창조의 과정이다. 필자가 창의적으로 생각해 낸 의미(내용, 지식, 정보, 느낌, 생각 등)가 작문이라는 문자언어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문 못하지 않게 독서도 의미 창조의 과정이다. 음성이든 문자든 언어는 그 언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대상이 된다.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언어가 아무 의미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의미는 언어에 있지 않고 그 언어를 다루는 사람(필자나 독자)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글을 읽고 그 읽은 글을 읽은 그대로 회상하고 표현한다면 이는 분명 의미 창조는 아니다. 그러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적용하는 것, 분석하는 것, 비교하거나 통합 또는 종합하는 것, 평가하는 것 등은 모두 읽은 언어를 자극으로 하여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생각하여 의미를 만들어 내는 고등수준의 지적 작용인 것이다. 아래의 문장을 읽어보자.

- 철수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이 글을 읽고 독자는 먼저 그 문장의 문면적(文面的, literal) 뜻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것도 의미의 창조이다. 읽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읽고 나서 알게 되었으니 의미 창조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독자는 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철수가 무슨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철수가 헤어진 애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등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모두 의미 창조인 것이다.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였다면,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든 그것은 모두 의미 창조인 것이다. 그래서 독서가 의미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3. 독서는 지식 획득과 지혜 확장의 원동력

독자는 글을 읽으며 글로부터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의미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이나 정보는 거의 대부분 독서를 통해서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서는 글을 통한 문면적 이해에 그치지 않는다. 독자 자신의 사고 활동이 독서에서 얻는 지식 획득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그 지식이나 정보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해 나가는 매우 능동적인 사고를 한다. 앞의 철수에 관한 문장에서 보았듯이, 독자는 이 글을 읽으면서 ‘철수가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는 문면적 이해에 더하여 그가 왜 산을 바라보는지, 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많은 추가적인 생각을 더 하게 된다. 바로 이런 추가적인 생각, 능동적인 사고가 독자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 주는 영역 확장의 사고이다. 그리고 이런 영역 확장적 사고가 바로 지혜(知慧, wisdom)인 것이다.

지식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지식의 획득이 된다. 그러나 독서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지식에 독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하여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생각하여 그 지식의 관련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다. 글을 읽으며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사고 활동이 바로 받아들이는 지식에 자신의 사고를 추가하는 고등 수준의 사고요, 이것이 바로 지혜(知慧)인 것이다. 있는 것을 더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며, 그런 점에서 독서는 그 자체가 지식의 획득임과 동시에 지혜의 확장인 것이다.

4. 독서는 초인지적 사고의 원동력

인간에게는 동물적 수준의 저급한 사고도 하지만, 때로는 신과도 같이 매우 높은 수준의 사고도 한다. 그런 고등수준의 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사고가 바로 초인지적(超認知的, meta-cognitive) 사고이다. 자신의 사고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바른 방향인지 아닌지 등의 판단을 하고, 혹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경우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수정이나 조정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초인지적 사고이다. 달리 말해서, 자신의 앞의 과정을 알고 이를 조정해 내는 사고인 것이다.

Ann Brow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재미 있는 실험 하나를 했다. 그녀는 공부 잘 하는 집단의 학생들과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집단의 학생들에게 각각 글 한 편을 주고 읽으라고 하였다. 다음날 연구자는 같은 집단 학생들에게 같은 글을 주면서 이번엔 다시 한 번 읽으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에도 연구자는 역시 같은 글을 주고 또 읽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세 번 글을 읽히면서 연구자는 글을 읽는 학생들의 눈동자 움직임의 매우 성능이 좋은 레이저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그 눈동자 움직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처음 읽기에서는 그 글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눈동자가 그런 부분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첫 번째와는 달리 중간 정도의 중요한 정보에 눈동자를 오래 멈추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읽기에서는 숫자나 고유명사와 같은 매우 세세한 부분에까지 주의를 기울이며 읽었다. 즉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가며, 이해와 기억에 효율적인 방법과 전략으로 읽기를 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세 번의 읽기에 나타난 눈동자 움직임의 유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들은 처음 읽을 때나 세 번째 읽을 때 모두 글의 중요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달리 말해서, 이들은 자신의 이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따라서 읽기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다. 효율적인 독서는 자기통제력까지 갖는 초인지적 사고의 원동력이 된다.

5. 독서는 고급 수준의 교류, 교감, 설득의 원동력

독서는 가장 개인적인 필자와의 만남이다. 급히 소멸해버리는 음성언어와 달리, 책에 쓰여 있는 문자언어는 소멸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글을 읽는 독자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넉넉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독서 과정을 조절해 나간다. 천천히 읽기도 하고, 내용을 음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리나 상상도 하면서 여유 있게 글을 읽는 것이다.

독서에서 만나는 독자와 필자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이다. 마치 대화에서 하듯, 독자는 필자의 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물듯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읽은 글을 기초 자극과 자료로 활용하면서 더 깊고 더 넓게 추리, 추론을 하면서 비판도 하고 설득이 되기도 한다.

독서에서의 만남과 소통은 음성언어를 통한 대화에서의 소통보다 훨씬 고급스럽다. 일반 생활에서의 만남은 대체로 잘 아는 사람 사이의 만남이고, 그래서 그 대화는 상당히 많은 부분 서로 잘 아는 내용의 대화가 되기 쉽다. 그런데 비해, 독서에서의 만남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만남이고, 글의 내용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지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그 만남에서의 사고 수준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서에서의 만남은 고급 수준의 교류인 것이다. 읽는 글이 정보중심의 글이 아닌,

정서중심의 글이라면, 이런 글을 통한 만남은 그야말로 인간적 만남이 되는 것이다. 분석과 비판과 평가 중심의 설명문이나 정보문 읽기와는 달리, 이런 정서적인 글 읽기는 이해와 긍정과 공감의 심리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독서는 공감적 교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6. 독서는 창의적 직무 수행의 원동력

독서는 일하기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는 것은 학생의 본분인 공부하기이다. 직장의 사무원이나 공무원이 직장에서 하는 독서는 그 모두가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직무를 하는 것이다. 공문서를 읽은 일, 회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읽고 수집하는 일, 회의 결과를 읽으며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점검하는 일, 민원에 답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참조하거나 과거의 관례 기록을 찾아보는 일 등 직장에서 하는 읽기는 그 모두가 일하기인 것이다.

그런데 직장에서의 독서, 직장 일하기의 일환으로 하는 읽기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읽기가 아니다. 직장의 회의에서 다루는 주제나 문제는 항상 새로운 것이다. 새로 받아 읽는 공문서도 새로운 내용의 공문서이다. 민원도 과거의 민원과과는 다른 새로운 민원이다. 이렇듯 하는 일 자체가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의 처리를 위한 읽기도 매번 새로운 창의적 읽기이다. 그런 점에서 직장에서의 읽기나 독서가 항상 창의적인 직무 수행이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직무 수행적 독서는 그 담당 직위가 고급일수록 더 깊고 넓은 창의적 사고를 요구한다. 어느 직장에서든지 그 조직 중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사람의 일은 머리를 사용하기보다는 근육을 더 필요로 하는 일이기 쉽다. 또 이런 일은 과거에 했던 일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매우 반복적인 일이기 쉽다. 거기에는 깊은 생각도 그리고 높은 창의성도 그리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의 조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사뭇 다르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근육적 일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다. 즉 노동이 아니라 사고(思考)인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일수록 또한 창의성도 더 많이 요구된다. 한번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결과가 조직 전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깊게 그리고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독서가 바로 그런 고급 사고의 수단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7. 독서는 민주사회 확립의 원동력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한때는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능력은 그 사회의 엘리트만의 독점물로 생각되었다. 만일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글을 깨치게 되면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정치에 간섭만 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아예 이들에게 글 읽기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금속활자의 발명과 보급은 농민과 노동자들을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책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책의 보편적 보급으로 공교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지식과 정보가 전체 국민들에게 보편화되었고, 또한 글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의식과 판단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읽기와 쓰기는 결국에는 엘리트만의 봉건사회를 무너뜨리고 민주사회를 형성하는 정치사회적 변혁까지 낳은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는 국민교육의 최고의 목표를 읽기와 쓰기에 두고 있다. 민주사회의 제도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매우 중요한 천부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교육권도 매우 중요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의무교육 연한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올려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문식권(文識權, Right to Read and Write)인 것이다. 인권은 한 개인이 자아의 필요와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 가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보장되는데, 교육이 바로 그런 인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교육의 핵심에 바로 독서와 작문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읽기와 쓰기, 독서와 작문에 초점을 맞춘 하버드 대학의 아래의 교육목표는 여러 사회, 여러 국가의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하버드대학의 학생들은 인류 최대 문화 유산인 책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All of our students should know how to interpret a great humanistic text.)

“우리 하버드대학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글로 써 낼 수 있어야 한다.” (All of our students should know how to compose a literate and persuasive essay.)

V. 결론

독서는 중요하다. 독서는 한 개인의 지적 정의적 성장에 중요하고, 사회의 운용과 유지 발전에 중요하다. 독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전 국민은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지력도 높이고 지혜도 넓혀간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독서력 향상은 곧 국가의 지식과 지력과 지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독서는 그만큼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이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국민의 독서력 향상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교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기대되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대학입시에 억눌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입시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독서를 억제시키기도 한다. 교과서의 지식 암기를 학생의 사고력 신장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직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공공도서관은 태부족이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상이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장서도 부족하고, 일하는 사람도 부족한 편이다. 도서 구입과 도서관 운영의 재원도 부족하며, 도서관 나름의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독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정책 개발도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전국민의 독서 권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세부 규정에 대한 국가적 시행 노력과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때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으로 국가의 면모를 새롭게 바꾼 경험이 있다. 독서가 바로 그런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많이 치중되었던 점에 비하면, 독서는 그야말로 정신개선, 사고개혁, 의식혁명, 그리고 교육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될 수 있다. 독서운동은 그 비용도 예전의 새마을운동보다 훨씬 적은 재정적 투입으로 훨씬 더 큰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 '책 읽는 사회를 지향하고(Toward a Literate Society)'(Carroll & Chall, 1975), '독자의 나라(Becoming a Nation of Readers)'(Anderson et. al., 1985)를 만들며, 읽기와 쓰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문식성과 민주주의(Literacy and Democracy)'(Fleischer & Schaafsma, 1998)를 상정하면서 독서와 작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식성 교육의 진흥에

다 같이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교육이 ‘문식성 중심 교육(Literacy and Schooling)’(Bloom, 1987)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독서 그리고 에에 더하여 작문은 우리 개인에게,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에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별첨)

아래의 자료는 이번 국어문화학교 독서특별과정의 제1강인 노명완 교수의 강의 (제목: 「21세기 독서의 의미」)의 부록입니다. 독서 지도의 실례 두 가지와, 예전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유형의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 할 수 있는 ‘독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제안 아이디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일종의 교육 방법에 대한 제안이며 또한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독서 지도의 세 가지 사례

노명완 (고려대 국어교육과)

이 글은 ‘독서새물결운동’ 단체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1. 독서 지도 사례 세 가지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입니다. 가치관의 형성, 정서의 함양, 그리고 인격의 발달 등 정의적 측면은 글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상 즉 인지적 측면의 독해를 선행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독서 지도는 인성 지도에 앞서 먼저 독해 지도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아니, 독해 지도를 바르게 하면 저절로 가치관·정서·인격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 없이 후자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그 내용을 수용하여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여기서는 독해 지도에 강조를 둔 세 가지 독서 지도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독서 지도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1) 가정에서의 책 읽기: 초등학생의 독서 과제 사례

이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필자의 아이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인 필자의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책 읽기를 너무도 싫어하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저는 이 아이에게 ‘독서 과외’를 시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근무하던 서울교육대학교의 한 제자에게 제 아이 독서 지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는 제자에게, 학교 공부나 성적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갖지 말고,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와 만나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일러 주겠으니,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한 독서 과외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학생(이하 ‘선생님’이라 하겠음.)이 서점에 들러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읽을 만한 책 두 권을 구입하여 한 권은 학생에게 주고 다른 한 권은 본인이 갖습니다. 이 책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옛날이야기, 위인전, 자연에 대한 설명, 그림이나 사진첩, 만화, 역사나 지리 등 그 어느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하여 아이기 흥미를 보이고,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과 함께 서로 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책을 아이에게 주고 읽어오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읽어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특별한 과제(예를 들면, 글에 제목 달기, 줄거리 말해보기 등)를 주며 해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만나 그 책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선생님과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 함께 나눈 이야기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책이나 글을 읽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줄거리나 중심 내용 전하기
- 글의 내용을 ‘매우 짧게’ 또는 ‘조금 짧게’ 요약하기
- 글의 내용을 읽은 글의 길이보다 ‘조금 길게’ 또는 ‘좀 더 길게’ 등 여러 길이로 늘려 말하기
- 아이가 읽을 글의 제목 위에 종이를 덮어 붙여 제목을 볼 수 없게 한다. 그런 후 글을 읽고 그 글의 제목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후 글의 원래의 제목을 보고, 필자의 제목과 아이의 제목을 비교해 본다.
- 글 속의 삽화에 종이를 덮어씌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삽화를 그려 넣게 한다. 원래의 삽화와 아이가 만든 삽화를 비교 검토한다.
- 삽화가 없는 글에는 적당한 부분에 삽화를 그려 넣게 한다. 처음에는 한 장만을 그리게 하고 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 삽화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넣었는지 말해보게 한다. 다음에는 삽화 두 장을 그린다면 어떤 내용을 삽화로 할 지 직접 그려보게 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삽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게 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게 한다.
- 글이나 이야기의 뒷부분 2장을 테이프로 붙여 그 안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의 내용을 자유로이 꾸며 이야기를 완성해 보게 한다.

- 글 속 주인공의 출생, 성장, 성격, 행동 등에 대하여 말해보고, 출생이나 성장 배경과 현재의 여러 가지 성격 및 행동 등을 연결 지어 말해 보게 한다.
-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을 말해 보게 한다.
- 글을 쓴 필자에게 구두로 또는 편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한다. 때로는 질문 세가지를 만들어 물어보게 한다.

위의 활동들은 독서 과외 지도 선생님이 우리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지도 하였던 내용들입니다. 위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첫 번째 활동인 ‘글을 읽고 이를 읽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예로 들어 독서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에게 사 준 책이 옛날이야기 10편이 들어 있는 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책 앞부분에 있는 글 5편을 읽어오라고 과제를 내 줍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자신은 읽지 않을 테니, 그 내용과 줄거리를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면 아이는 자기가 읽은 글의 내용을 선생님에게 전해 줍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전하는 이야기를 조용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가령, “참 재미있다.”, “불쌍하게 되었구나.” 등의 반응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라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하여 궁금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듣습니다. 그러다가 혹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가령, “그 말에 왜 주인공이 화를 냈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선생님이 왜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시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 질문에 대해 설명합니다. 선생님은 그 설명을 듣고는, “그래, 이제 이해가 된다. 아까 얘기할 때에는 이런 내용을 빠뜨렸잖아.”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빠뜨린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전체 내용 또는 줄거리 이해에 빠져서는 안 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아동들은 자기가 한 말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들도 종종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학생 탓으로 돌린다.) 그런 아이에게 이와 같은 선생님의 질문은, 이야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고, 이런 요소가 빠지면 이야기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 줍니다. 가령, 이야기의 배경, 사건의 상황,

행동의 동기, 원인과 결과 등이 그런 요소들입니다. 위의 이야기 줄거리 말하기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이야기의 기본 구조, 이야기 속의 중요 내용들, 중요 내용들을 모아 전체 내용 요약하기, 줄거리 만들기, 그리고 듣는 이 고려하기 등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동이 배우는 이런 여러 요소들은 모두 고등 수준의 지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비록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어린 아이이지만, 우리 아이는 위의 활동을 통해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조작’해 보는 중요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재생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추리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은 학교 수업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중요한 창조의 경험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는 이야기 내용에 대하여 대학생 선생님과 함께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대학생의 사고를 엿보는 중요한 기회를 갖기도 하였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 수준의 사고를 모방하기도 합니다.

(2) 학교에서의 책 읽기 : 어느 비행 고등학생의 지도 사례

오래 전, 경기고등학교에서 국어를 지도하셨던 ‘김’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김 선생님은 당시 담임 학급의 한 학생에 대한 징계 문제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학생 하나가 금지된 영화를 구경하다가 교외 지도 선생님에게 들켰고, 그래서 시교육 위원회로부터 징계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학교 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여러 선생님들에게 학생을 잘 지도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겨우 징계 보류를 받아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학생을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꾸지람 대신에 그냥 책 한 권을 주시고, 그 책을 읽고 3일 후에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학생이 읽을 만한, 어렵지 않은, 그러면서 재미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 경기고등학교는 전국의 수재들이 모였던 학교였고, 그 학생도 물론 그런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징계 대상이 되었던 학생은 징계 대신에, 어렵지 않은 아니 오히려 유익한, 책 읽기 과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의 수재급에 해당하는 이 학생의 기분이 어떠하였을까요.

그 학생은 김 선생님의 말씀대로 책을 다 읽고 약속된 날에 교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학생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책 내용에 대하여 이런 저런 것을

묻기도 하였고, 선생님 생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 구체적인 사건의 발단과 전개와 결말,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여러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 삶에 대한 이들의 태도와 방식,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등에 대하여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아무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약 30여 분 이야기를 나눈 후 선생님은 “잘 읽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다른 책을 주시면서 이 책도 며칠까지 읽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선생님과 학생은 첫 번째 만남에서와 같이 책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 선생님은 또 다른 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은 꽤 오랜 기간 상당히 많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학생이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오히려 학생은 선생님에게 정까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 수업 태도도 상당히 성실하게 바뀐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독서를 통한 청소년 지도(biblio-therapy)’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바꾸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에 적극적 옹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이 ‘책을 통하여’ 여러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책은 가장 좋은 만남과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교사와 학생이 그렇게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는 아마 책읽기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마을에서의 책 읽기 : ‘책 읽는 마을’ 만들기를 꿈꾸며

이번에는 ‘책 읽는 마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마을’은 실체가 아니라, 제가 이루고 싶어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 전국의 마을이나 아파트가 한 단위가 되어, 어린이들은 책을 많이 읽고, 어른들은 이들 어린이들의 책읽기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고, 그래서 마을이나 아파트가 다시 예전 이름 그대로의 공동체적 ‘마을’ 모습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이나 각 가정이 단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가 단위가 되어, 동네 어른이 모두 우리의 어른이 되어 어른들이 이들을 알아보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책 읽는 마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각 마을이나

아파트의 반상회를 단위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약 50세대가 사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이 50세대 아파트가 ‘책 읽는 마을’의 한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 읽기 마을 만들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이 반상회에서 각출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적극 도와 필요한 경비의 일부도 지원하고,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전문가의 자문도 알선해 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책 읽는 마을’ 만들기의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단위가 되는 마을이나 아파트에 여러 개의 ‘책 읽기 동아리’를 조직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5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는 거의 예외 없이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년 등 여러 학년층(연령층)에 속하는 아이들이 각각 대여섯 명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반상회에서는 이들 여러 학년층의 아동들을 각각 하나의 ‘책 읽기 동아리’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동아리의 아동들을 지도할 어른들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아동 동아리에 여섯 명의 유치원 연령 아동이 있다고 하면, 이들을 지도할 여섯 명의 어른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을 지도할 어른들의 선정은 이들의 나이, 경험, 소질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동아리에 속하는 아동을 둔 어머니는 가능한 한 그 아이가 속한 동아리를 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책 읽기 마을’과 그 마을 속의 ‘책 읽기 동아리’를 조직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책 읽기 지도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연령층의 아이들을 맡게 된 어른 대여섯 명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회의 내용은, 아이들에게 읽힐 책은 무엇으로 하면 좋은지, 누가 어떤 순서로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지, 지도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반상회에서 지원한 경비로 아이들이 일을 책을 구입합니다. 물론 이 아이들을 지도할 담당 어머니의 책도 한 권 더 구입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으라고 과제를 내주고, 일주일 후에 지도를 맡게 될 어머니의 집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 내용이나 줄거리를 요약하여 말하게 하기도 하고, 주인공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하여 비판도 하게 하고, 지도하는 어머니를 책의 저자로 생각하고 질문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서로 토론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책 읽기 지도를 어떻게 하

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담당 어머니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제가 제 아이 독서 과외를 할 때에 사용하였던 방법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운동은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 효과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 전국의 마을이나 아파트가 단위가 되어 책을 읽게 되므로, 전국적인 책 읽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문식성(文識性, literacy), 다시 말해서 읽거나 쓰기에 글을 다루는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 글을 다루는 경험과 이를 통한 문식성의 발달로 아동들은 상당한 정도의 고등 사고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본다면, 민도(民度) 즉 국민들의 지적 수준의 향상이기도 합니다.
- 같은 마을이나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연령의 아동들이 함께 모이게 되므로, 동네 아이들 사이에 깊은 유대가 만들어지고 서로 돈독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 여러 가정에 모여 지도를 받게 되므로, 한 번 지도를 맡게 된 어른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동아리의 아이들을 모두 자기 아이와 같게 생각하게 됩니다.
- 아이들도 자기의 부모 이외에 동네 어른들을 모두 자기 집의 어른과 같이 어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 간간이 같은 마을이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아이들의 책읽기 지도를 부탁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유대층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 아이들을 지도하는 어른들, 그리고 간간이 지도를 맡게 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책읽기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동 지도의 귀중한 경험도 갖게 됩니다.
- 한 번 읽고 난 책은 모두 반사회에서 보존합니다. 그리고 2~3년 후에 새 어린이들로 구성하는 새 동아리에서 다시 사용합니다.
- 각 출판사에서는 전국적인 독서 수요에 맞추어 각 연령층에 적합한 좋은 책 만들기에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정부 주도의 ‘새마을 운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운동도 같은 성격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운동은 경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으며, 직접 자기의 자녀들을 지도한다는 점 때문에 각 마을마다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이 운동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화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2. 독서 지도는 이렇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서는 독서 지도에 대한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
는 내용은 일종의 ‘독서 지도 모형’으로서, 읽기와 이야기하기와 쓰기를 통합한 지
도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읽고-이야기하고-쓰기’ 모형이라 불러 봅니다.

아래는 이 ‘읽고-이야기하고-쓰기’ 모형에 따른 수업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
니다. 한 번 시도해 봄직한 모형이라 생각됩니다.

〈‘독서-토론-논술’(읽고-이야기하고-쓰기) 지도의 구체적 방법〉

수업,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노명완 (고려대 교수)

오래 전에 초중고 교사 상대로 “선생님의 지금 수업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 조사를 해 보았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받은 고등학교 시절의 수업’이라고 대답했다. 교사들의 수업이 얼마나 바뀌지 않는지, 교대나 사대에서의 직전 교육이 얼마나 무용, 무력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학생 중심’, ‘사고 활동 중심’의 수업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자율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초인지적 자기 조절’ 등이 좋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런 수업의 한 방법으로 ‘읽기-이야기하기-쓰기’ 수업을 제안해 본다. 이 수업은 결코 어렵지 않아 모든 교사가 모든 교과 수업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우선 방법과 절차부터 적어 본다.

□ 읽기 전 활동 : 내용 예측하기

- 전 단원의 마지막 수업 시간을 이등분하고, 그 앞 절반에서는 배운 단원의 총정리 활동을, 뒤의 절반에서는 새로 배울 단원에 대한 준비 활동을 한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로 배울 단원의 제목을 보고 그 단원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짐작하고 발표하게 한다.
- 이번에는 단원의 소제목과 좀더 자세히 단원 내용을 짐작하여 말하게 한다.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비교하고 종합하고 정리하는 활동도 한다.
- 이번에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런 제목의 단원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말해

보게 한다. 역시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 읽고 이야기하기 : 내용 공부하기

-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 세 가지 숙제를 내 준다. 하나는 새로 배울 단원을 읽고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고, 둘 번째는, 이 단원(글)을 읽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 배운 것을 적어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단원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숙제는 반드시 기록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단원 수업의 시작으로, 몇 학생들에게 정리해 온 요약을 발표시킨다. 물론 비교도 하고 종합 정리도 한다. 다음에는 단원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듣고, 학생들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하게 한다.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것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 학생의 요약 발표와 질문 점점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종전의 방식으로 교사가 단원 수업을 진행한다.

□ 읽은 후 활동 : 정리하고 쓰기

- 한 단원의 수업은 대체로 여러 차시에 걸쳐 이루어진다. 교사는 매 차시 수업을 마친 후 마지막 10분에 학생 중심의 수업 내용 정리를 한다. 정리에서는 학생 두 명이 한 조가 되고, 그 두 명 중 한 명이 그날 수업 내용을 상대 학생에게 ‘교사의 입장’에서 정리 요약하게 한다.
- 단원 학습의 마지막 시간에는 단원 전체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게 한다. 물론 조별 정리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학생 앞에서 총정리를 한다.
- 단원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숙제를 내 준다. 이번 숙제는 단원 제목 또는 그와 유사한 제목으로 글을 한 편 써 오게 하는 것이다. 이 글은 교과서 내용의 요약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쓰는 글이다. 교과서의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자신의 생각, 친구의 생각, 교사의 설명 내용 등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쓰는 자기의 글이다. 글의 형식은 수필이나 또는 초등학교생들이 많이 쓰는 ‘생활문’ 형식이 좋다. 그래야 글 속에 학생의 생각을 많이 넣게 된다.

위의 수업이 바로 ‘읽기-이야기하기-쓰기’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의 언어 활동 그리고 ‘예습’과 ‘복습’이 상당히 강조된다. 단원 내용과 관련한 학생들의 스키마(기존 지식) 활용도 강조된다. 학생(또는 독자)만의 입장이 아니라 교사(또는 필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교학상장(敎

學相長)’의 모습도 이 수업 속에 들어 있다.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런 변화야말로 가장 혁신적인 변화일 것이다. 위의 ‘읽기-이야기하기-쓰기’ 수업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의 궁극의 목표이며 난제인 ‘학생 중심’, ‘사고 중심’, ‘창의성 중심’의 수업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초중고 선생님, 우리 한 번 이런 수업 해 보면 어떨까요.

위의 모형은 최소한 세 가지의 독서 이론 또는 학습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스키마(schema)’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은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찾아 자신의 장단점을 밝히고, 자신의 학습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초인지적 조정(meta-cognitive monitoring)’ 이론입니다. 이 두 번째 이론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 방법의 학습(learning to learn)’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읽고 생각한 것을 글로 써 보는 쓰기 활동입니다. 이 세 번째 쓰기 활동은 특별히 어떤 한두 가지 이론으로 이름붙일 수 없는 매우 종합적인 정신 작용입니다. 쓰기 활동에 동원되는 정신 작용을 살펴보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앞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묵시적 상태의 앞을 언어라는 명시적 표현 수단으로 나타내 봄으로써 앞을 분석하고 체계화하게 됩니다. 이 정신 활동은 앞에서 언급한 읽기 과정에서의 초인지적 조정보다 더욱 분명하고 차원 높은 초인지적 조정이며, ‘자신의 앞에 대한 앞’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형에 결들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 더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공부는 학생 스스로 해야 한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말(설명)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그만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좋은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을 잘 부리는 수업이다.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 수업은 좋은 수업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학생에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아래의 ‘3W 1S’를 제안한다. 이 3W 1S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부과하는 과제이다.

- W : What are there in the text? (글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W : What did you learn from the text? (글을 읽고 무엇을 배웠나?)
 W : What do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content of the text?
 S : Summarize the content of the text. (읽은 글의 내용을 요약하라.)

독서는 글을 읽는 정신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 활동은 어떤 정보를 밖에서 안으로 수용하는 ‘이해’에 해당하는 정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이해 과정은 결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지식이나 경험을 최대한 동원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능동성 때문에 학자들은 독서 과정을 ‘의미 구성의 창조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독서 모형은 이러한 이해 과정으로서의 읽기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쓰기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독서 모형은 ‘쓰기를 통합한 읽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일반 가정에서의 아동 지도에서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또한 설명문이나 이야기 글 읽기, 국어 수업, 그리고 기타 과학 교과나 사회 교과에서의 수업에서도 모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업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아동 중심, 학생 중심의 활동이며, 또한 철저히 지적 과정 중심의 학습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위의 모형이 결코 낯설거나 어렵고 생소한 모형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그 실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매우 친숙한 우리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형이 일상의 독서 생활, 가정 및 학교에서의 독서 지도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3. 마치며

독서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앎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깨달음의 즐거움’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감동의 즐거움’도 얻습니다.

독서의 즐거움은 만인의 즐거움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 모두 독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부자도 모두 독서의 즐거

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또 적은 사람도 모두 독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독서의 즐거움은 책을 읽는 독서 행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독서의 즐거움은 얻을 수 없습니다.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아야 밖이 보이듯이, 지식과 지혜와 감동도 책을 펴고 글을 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글자로 된 글을 읽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끝까지 읽기가 어렵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서에는 끈기가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지적 분석과 통합과 창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린 학생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힘겹고 벅잡니다. 그래서 선배, 학부모, 교사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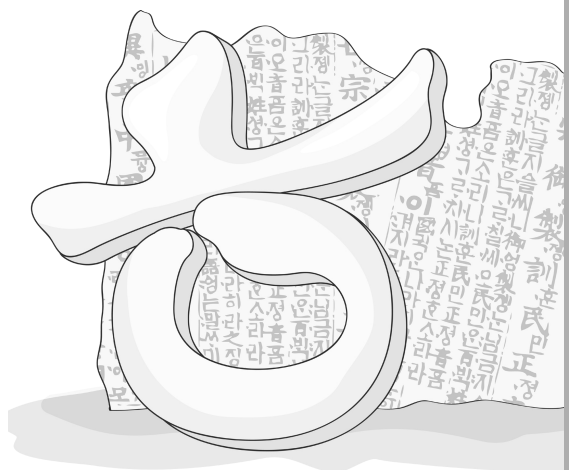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과 함께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 작업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은 책읽기에 대한 동기도 얻고, 잘 읽었다는 격려도 받으며, 또한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것인지에 대한 도움, 즉 사고 방법에 대한 도움도 얻습니다. 교사는 전혀 하지 않고 학생에게만 하라고 지시하는 일은 피아노 레슨이나 수영 지도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독서에서만은 어른들은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하라고 합니다. 학습은 교사와 학생의 공동 작업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책 읽는 가정’,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마을’을 만들어 봅시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 글에 언급된 세 가지 독서 지도 사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2. 지도 방법 측면에서 세 사례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3. 위의 세 사례로부터 독서 지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찾아봅시다.
4. 초등이나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위의 방법을 적용하여 독서 지도를 해 봅시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방안

옥 현 진 |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방안

옥 현 진 |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1. 강좌 목표

- 업무와 관련된 자신의 읽기 활동 양상을 파악하고 자신의 읽기 능력을 다면적으로 점검한다.
- 읽기에서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탐색한다.
- 21세기 읽기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ICT를 읽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2. 읽기 활동 양상과 읽기 능력에 대한 자기 점검

-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읽기 활동 양상을 파악하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직무 특성에 따라 직장인들의 읽기 양상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육행정 공무원	교사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 확인 • 전자문서 확인 • 이메일 확인 • 업무 처리 지침 확인 • 접수된 문서 확인 • 민원 접수 서류 읽기 • 업무 편람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게 가르치기 전에 교과서 읽기 • 학생에게 가르치기 전에 교사용 지도서 읽기 • 교수학습 사이트 검색 후 필요한 학습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 읽기 • 공지사항 읽기 • 분석 방법 읽기 • 업무 관련 자료 검색 • 연구 데이터 해석하고 처리 • 연구 데이터를 근거로 자료 검색하고 문제의 원인 파악

- 직무독자에게는 직무에 맞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 직무독자는 서로 다른 특성의 텍스트를 읽는다.
- 직무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요구되는 읽기 능력의 수준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 직무독자는 읽기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나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
- 직무독자는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텍스트를 읽지만, 읽기 방법에 대한 연습, 연수,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읽기 기회를 갖지 못한다.

출처: 이형래(2006)

- 직장인들의 읽기에 대한 인식
 - “업무 혁신에 대한 독후감을 쓰라고 하는데요. 도서 목록에 80권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정해서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절차는 ‘읽게 된 동기’, ‘글의 내용’, ‘생각과 느낌’, ‘업무와의 연관성’ 순이에요. 그런데 이런 글쓰기가 무척 어려워요. 독후감 쓰기는 거의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형래, 2005, p. 255)
 - “처음엔 어렵죠. 그런데 계속 읽다보면 이해가 되요. 아마 처음부터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이 읽기 실력이 좋은 사람이겠죠. …… 그런 사람도 계속 읽어야 돼요. …… 계속 읽으면 이해가 잘 되죠. 읽다보면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형래, 2006, p. 229)
- [부록 1]의 설문을 통해 자신의 읽기 양상에 대한 점검
 - 읽기와 직무의 관련성, 읽기 효능감, 읽기에 대한 자신의 태도, 읽기 방해 요인, 읽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읽기 방법(기능과 전략)
 -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읽기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원인이 효과적인 읽기 방법(기능과 전략)을 습득하지 못한 데 있다면 연습을 통해 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의 읽기 방법 점검

점검 항목	매우 미흡 <-----> 매우 만족				
	1	2	3	4	5
① 어휘력(읽고자 하는 텍스트 내에 모르는 어휘들이 많아 읽기에 걸림돌이 되는가?)	1	2	3	4	5
②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는가?)	1	2	3	4	5
③ 다양한 읽기 전략*의 활용(읽기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읽기 전략을 활용하는가?)	1	2	3	4	5
④ 읽기 동기·가치(읽기의 필요성/중요성을 인식하고 읽기 활동을 즐기는가?)	1	2	3	4	5
⑤ 읽기 경험의 성찰 및 공유(읽은 내용을 정리·예를 들어 글쓰기·하고 공유하는가?)	1	2	3	4	5
⑥ 읽기 환경(읽기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 예를 들어 읽기 시간이나 읽기 공간의 확보 등 -이 없는가?)	1	2	3	4	5

- 구체적인 읽기 상황에서의 읽기 방법에 대한 설문의 예(OECD PISA)

아프리카에 있는 호수의 수심 변동에 대한 길고 다소 어려운 2쪽 분량의 텍스트를 방금 읽었다. 이제 그 내용을 글로 요약해야 한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다음 읽기 전략은 얼마나 유용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다				
	1	2	3	4	5
① 글로 요약한 후 각 문단의 내용이 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	2	3	4	5
② 가능한 한 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옮겨 적는다.	1	2	3	4	5
③ 요약하기 전에 가능한 한 여러 번 텍스트를 읽는다.	1	2	3	4	5
④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사실들이 요약한 글에 포함되었는지 신중하게 확인한다.	1	2	3	4	5
⑤ 가장 중요한 문장들에 밑줄을 그으면서 텍스트를 읽은 후 자신의 글로 요약한다.	1	2	3	4	5

- EFF에서 제시한 16개 핵심 기능¹⁾과 읽기 능력

1) EFF(Equipped For the Future)는 미국 테네시 대학의 문식성·교육·고용센터(Center for Literacy, Education & Employment)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성인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탐색하고 이들 역량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
http://eff.cls.utk.edu/fundamentals/eff_standards.htm#four

범주	하위 기능
의사소통 기능 (Communication Ski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하며 읽기(Read with understanding)* • 쓰기를 통해 아이디어 전달하기(Convey ideas in writing) • 남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Speak so others can understand) • 적극적으로 듣기(Listen actively) • 비판적으로 관찰하기(Observe critically)
의사결정 기능 (Decision-Making Ski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과 의사결정하기(Solve problems and make decisions) • 계획하기(Plan) • 수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하기(Use math to solve problems and communicate)
대인관계 기능 (Interpersonal Ski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기(Cooperate with others) •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기(Guide others) • 지지하고 영향력 미치기(Advocate and influence) • 갈등을 해결하고 협상하기(Resolve conflict and negotiate)
평생학습 기능 (Lifelong Learning Ski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대한 책임감 갖기(Take responsibility for learning) • 연구를 통해 학습하기(Learn through research) • 성찰하고 평가하기(Reflect and evaluate) • ICT 활용하기(Use ICT)

* ‘이해하며 읽기’의 하위 요소

- 읽기의 목적 결정하기
- 목적에 적합한 읽기 전략 선택하기
- 이해를 점검하고 읽기 전략 조정하기
- 정보를 분석하고 속뜻을 숙고하기
- 사전 지식과 통합하기

• 읽기 단계에 따른 읽기 전략의 예

읽기 단계	읽기 전략의 예
읽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훑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과 저자 - 텍스트에서 다루는 화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 - 그림과 도표 - 텍스트의 구성 방식 및 각 장/절의 제목 - 핵심어나 핵심 문구 • 텍스트 내용 및 저자의 의도 예견하기 • 자신의 읽기 목적 점검하기 • 효과적인 읽기 전략 세우기
읽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하기 • 정리하며 읽기

읽기 단계	읽기 전략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모하며 읽기 - 그래픽 조직자(graphic organizer) 활용하기 • 자신의 이해 정도에 대해 점검하기(이해가 부족할 경우) - 천천히 읽기 - 다시 읽기 - 추가 정보 확보를 위해 다른 텍스트 읽기 - 읽기의 목적 수정(보다 일반적이거나 쉬운 텍스트로 변경)
읽기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기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주제, 이슈, 필자의 관점에 대해 토의하기 • 읽기 전에 예견한 내용과 비교하기 • 사용한 읽기 전략에 대한 평가 • 텍스트 내용 전반에 대한 질문 만들기

3. 21세기의 읽기 환경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전략

1) 21세기 읽기 환경의 특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 보고서(장주희 외, 2011:118)에서는 우리나라의 직업변천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직업 세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전문직, 디지털, 개별화 등이라 할 수 있다.

	해방·격동기		경제개발·성장기				전환기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전망)
산업 특성	사회적/정치적 혼란기(과도기)	산업기반 시설 폐허기/재건기	경제 도약기/산업 근대화 착수기	산업화 진전기/육성기	첨단산업 및 서비스 산업 태동기	문화산업 진전기/육성기	첨단산업/레저환경 산업 발전기	인간중심 산업 발전기
주요 업종	1차산업 중심(80%)	1차산업 중심(80%)	노동 집약적 경공업 중심수출 산업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 육성	증권, 보험, 유통, 스포츠	반도체, 정보통신 방송	항공우주, 의료, 국제금융	사회복지, 첨단의료, 레저관광
직업 특성	농어민 주류 시대	농어민 주류 시대	기능공, 공장 노동자 시대	건설 노동자, 은행원 시대	화이트 칼라, 유통업 시대	전문직중 시대	디지털, 글로벌 전문가 시대	인간관리, 복지 전문가 시대

- ‘전문직’은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직종을 가리킨다.
 - ‘디지털’은 학습의 원천이 전통적인 서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매체에도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따라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 능력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읽기 능력은 표준화된 텍스트(예: 작업 매뉴얼)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면 ‘개별화’ 시대의 읽기 능력은 각자에게 필요한 텍스트를 각자의 의도, 목적, 관점에 따라 읽는 것이다.
- 3차 산업혁명의 시대
 - “근면한 사고와 사업 시장, 대규모 노동력을 특징으로 200년에 걸쳐 회자된 영리주의 전설은 종결될 것이다. 동시에 협력적 행동 방식과 소셜 네트워크, 창의적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이 특징인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릴 것이다. 다가오는 반세기에는 1차, 2차 산업혁명의 전통적인 중앙집권화 경영 활동이 3차 산업혁명의 분산 사업 관행으로 점차 대체될 것이다. 또한 경제 및 정치권력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계급 조직이 사라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 교점 중심으로 조직되는 수평적 권력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 『3차 산업혁명』, 민음사, p. 15)
 - 지식기반사회
 - ① 지식의 개념과 지식관리의 중요성(박희서&임병춘, 2001)
 - “조직의 주요 자원인 무형자산으로서 지적 자본을 의미한다. 즉, 조직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체화(internalized)되어 있는 사실, 기술, 노하우, 유형, 제도 등을 의미한다.”
 - “지식사회에서는 지식관리가 핵심역량으로 작용하는 사회로, 지식 관리를 소홀히 하면 조직이든 개인이든 정체되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특히 행정은 지식사회의 중추로서 지식역량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최근에는 지식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② 정보 선별 및 평가 능력의 중요성
 - “통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5-10년 안에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 중에 가치가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보와 사실을 수집하

는 것은 지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 검증되지 않은 통계수치나 쓸데없는 정보를 전문적인 안목으로 걸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지식경영의 중심과제는 넘쳐나는 정보를 여과, 축출, 정제, 체계화, 평가하는 것이다.” (요아힘 모르 외, 『무엇이 과연 진정한 지식인가』, 2011, pp. 18-19)

③ 지식의 비중립성에 대한 인식

• 디지털 매체 발달에 따른 읽기 환경의 변화

- ① 하이퍼미디어 텍스트(Hypermedia texts)의 특성에 대한 이해
 - 비선형적(non-linear) 텍스트
 - 방향상실(disorientation)과 인지적 과부하(cognitive overload) 초래

② 디지털 환경에서 텍스트가 생산되고 소통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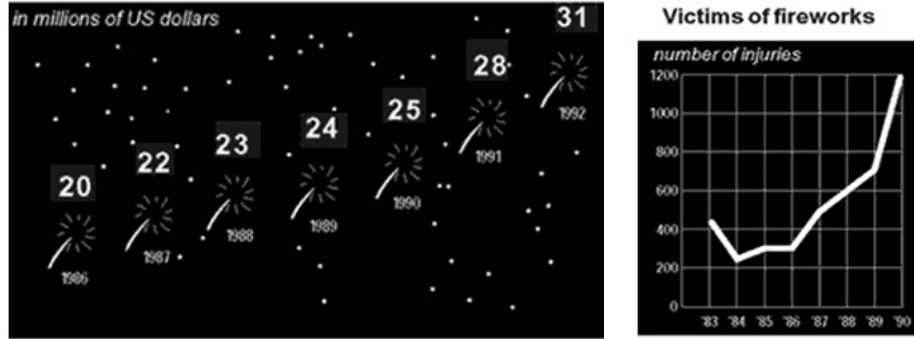
Web 1.0		Web 2.0
Ofoto(코닥사의 사진인화 서비스 사이트)	→	Flickr(야후가 만든 사진 공유 사이트)
브리태니커 온라인	→	위키피디아(Wikipedia)
개인 웹사이트	→	블로그
인터넷 출판 (Publishing)	→	참여(Participation)
내용 관리 시스템	→	Wikis(웹기반 정보 공유·관리 프로그램)
디렉토리(분류학, Taxonomy)	→	태깅(동료분류학, Folksonomy)
네스케이프	→	구글

- “지식 관리 방식은 지식을 한 곳에 집중시켜 위계적으로 조직하던 방식에서 인터넷망의 구석구석에 지식을 수평적으로 편재(遍在)시키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소수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지식을 독점적으로 생산 및 공급(일방향)하던 형태에서 익명의 다수가 참여하여 지식을 공동 생산(양방향)하는 형태로 지식 생산 및 유통 방식이 변모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담화 구성원들이 담화 생산 과정에 참여하면서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오던 많은 지식들을 가변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 또한 인터넷 환경이 주도하고 있는 지식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옥현진, 2008)

③ 다양한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s)의 등장

출처: Adult Literacy and Lifeskills Survey(ALL)* 예시 문항

<http://nces.ed.gov/surveys/all/items.asp?sub=yes>



1. 네덜란드에서 폭죽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의 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언제인가?
2. 1991년에 네덜란드에서 팔린 폭죽의 총 가격은 미화로 얼마인가?
3. 폭죽 판매량과 폭죽 부상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 OECD와 캐나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성인 기초능력 국제 비교 평가

2) ICT를 활용한 읽기 능력 확장

- ICT 활용의 필요성
 - 정보원(情報源)의 다양화
 - 정보의 폭발적 증가
 - ICT를 ‘뇌수(腦髓)의 분실(分室)’로 활용하여 제한적인 인지적 자원을 정보의 기억과 같은 기초 기능보다 정보의 통합, 분석, 평가 등과 같은 고차원적 기능에 활용
- 정보 검색 방식의 다양화
 - 문서의 디지털화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검색
 -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기능을 이용한 정보의 효율적 수집
- 정보의 효율적 관리
 -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나 스프레드시트(Spread sheet)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관리

-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관리
 - 인터넷 공간(예: 블로그)을 활용한 정보 관리
 - 온라인 북마킹 서비스(예: www.delicious.com)
 -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메타정보(예: 블로그의 태그) 작성
- 정보의 공유
 - 집단지성(예: 위키피디아)
 - 다양한 네트워크(예: 동호회) 활용

참고문헌

- 박희서·임병춘(2001). 지방공무원들의 효율적 지식관리를 위한 인과모형 검증. 『한국정책학회보』, 10(2), pp. 111-112.
- 요아힘 모르(Joachim Mohr) 외, 박미화 역(2011). 『무엇이 과연 진정한 지식인가』. 더숲.
- 옥현진(2008). 다중모드 문식성. 노명완·박영목(편), 『문식성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이형래(2005). 문식성 교육의 확장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직업 문식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8, pp. 249-282.
- 이형래(2006). 직무독자에 대한 탐구. 『독서연구』, 16, pp. 199-249.
- 장주희·한상근·이지연·서용석(2011). 『203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안진환 역(2012). 『3차 산업혁명』. 민음사.

부록 1. 설문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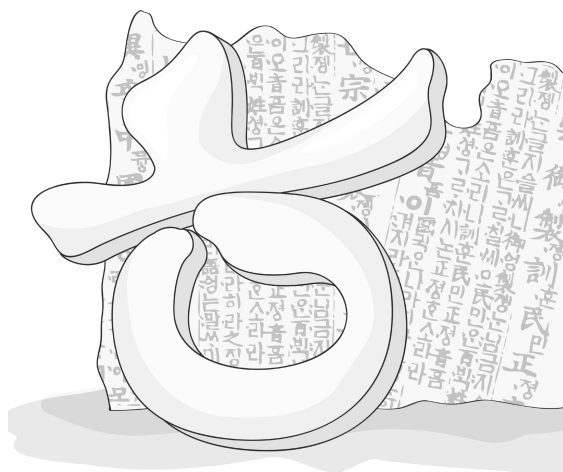
※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문 항	1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0									
1. 나의 직장에서는 읽기/독서가 중요하다.	1	2	3	4	5	6	7	8	9	10
2. 직무와 관련하여 나의 읽기/독서 능력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0
3. 나는 직무와 관련된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읽기/독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4. 나는 학창시절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읽기를 잘했다.	1	2	3	4	5	6	7	8	9	10
5. 나의 독서량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0
6.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을 몇 권(전자책 포함) 읽었습니까?										
(1) 일반도서	_____ 권(아라비아 숫자)									
(2) 잡지	_____ 권(아라비아 숫자)									
(3) 만화책	_____ 권(아라비아 숫자)									
7. 나는 신문(전자신문 포함)을 주기적으로 읽는다.	1	2	3	4	5	6	7	8	9	10
8. 나는 다방면(여러 분야)의 책을 읽기를 원한다.	1	2	3	4	5	6	7	8	9	10
9. 다음은 나의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입니까?										
(1) 책 읽기가 따분하고 귀찮음.	1	2	3	4	5	6	7	8	9	10
(2) 바쁜 일과(직무, 공부)	1	2	3	4	5	6	7	8	9	10
(3) 다른 실외 여가 활동(스포츠, 레저, 여행 등)	1	2	3	4	5	6	7	8	9	10
(4) 다른 실내 여가 활동(TV, 영화, 게임 등)	1	2	3	4	5	6	7	8	9	10
(5) 읽을거리(도서 등) 구입 비용 부담	1	2	3	4	5	6	7	8	9	10
(6)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잘 읽는 방법을 모름)	1	2	3	4	5	6	7	8	9	10
(7) 읽기의 필요성을 못 느낌(도움이 안 됨)	1	2	3	4	5	6	7	8	9	10
(8) 어떤 책(읽을거리)을 읽어야 할지 모름.	1	2	3	4	5	6	7	8	9	10
10. 책읽기는 삶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6	7	8	9	10
11. 나는 평소 친구나 직장 동료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5	6	7	8	9	10
12. 나는 평소 가족과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5	6	7	8	9	10
13.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1	2	3	4	5	6	7	8	9	10
14. 직장에서 직장 내 독서 모임이 생기면 참여하겠다.	1	2	3	4	5	6	7	8	9	10
15. 가까운 거리에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6. 나는 읽고 나면 읽은 내용을 스스로 정리한다(독후감, 메모 등)	1	2	3	4	5	6	7	8	9	10
17. 나는 읽고 나면 같은 것을 읽은 사람들의 견해를 찾아 본다(서평, 블로그, 인터넷 댓글 등)	1	2	3	4	5	6	7	8	9	10
18. 나는 인터넷에서의 읽기 활동에 불편함(어려움)이 없다.	1	2	3	4	5	6	7	8	9	10



미래 세대를 위한 독서 교육

이 순 영 | 고려대 국어교육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독서 교육

이 순 영 | 고려대 국어교육과

I. 돌아보기 :

우리의 독서교육 잘 되고 있는가?

미래 세대를 위한 독서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독서교육 어떠한가? 학교 독서교육은 잘 되고 있는가?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다. 거리의 행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의 독서교육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독서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독서교육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 행정가들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사실 답하기에는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다. ‘독서’의 개념과 ‘독서교육’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理解 comprehension) 행위를 독서라고 하고, 학생들의 독해력 증진을 독서교육의 목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독서교육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3년 단위로 비교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reading) 영역에서 2000년에는 6위, 2003년에는 2위, 2006년에는 세계 1위, 2009년에는 OECD 국가 중 1위로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다.¹⁾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우리의 독서교육이 학생들의 독해력

1) 인용 출처: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28

증진에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심해 온 교육 행정가들에게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독서교육의 성과를 지필 검사의 독해력 점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면, 우리 독서교육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 책 읽기를 즐기는가?’를 지표로 학교 독서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학생들의 독서 동기나 독서 태도, 독자로서의 주체성이나 긍정적인 자아의식과 같은 독서의 정서적 영역을 강조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성취는 매우 부진하다.²⁾ PISA의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성취는 높지만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학습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극히 낮은 순위를 보인다. 또한 독서 후 다른 이들과 읽은 책에 대해 소감을 나누거나 글쓰기 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독서 활동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새로운 지식 산출에 참여하는가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학교 독서교육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독서(읽기)는 한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노명완·이차숙, 2002). 예로부터 세계 각국이 독서를 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읽기 활동을 권장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위기론이 제기될 때마다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 연구가들은 독서 교육에 주목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다만 과거에는 문맹 퇴치와 같은 기초 문식성 증진이나 교양 독서가 독서 교육의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양식의 텍스트들을 읽고 정보를 선별·가공·재생산하는 읽기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세계 각국의 교육 정책이나 독서 연구 기관들의 성명서를 보면, 정보 문식성(정보글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과 테크놀로지를 강조하는 독서 교육의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독서 교육’의 핵심적인 흐름이다.(NCTE, 2008; U.S. Depart. of Education, 2002; National Literacy Trust,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1).

2) 참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2008). 『2008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1. 독서의 개념 변화

가. 독서에 대한 관점의 변화

독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특히 20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독서에 대한 관점을 재고하고 재개념화 하려는 노력도 활발하였다(Alvermann et al., 1998). 최근의 연구자들은 독서에 대한 관점을 크게 전달관, 번역관, 상호작용관, 상호교섭관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노명완(2008)이 정리한 네 가지 독서관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전달관(transmission) : 독서 행위를 저자가 생성한 메시지를 글(텍스트)이라는 매체에 실어 독자에게 전달하고, 독자는 메시지에 어떠한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 관점은 ‘수도관’에 비유된다. 전달 관점에서 글의 의미는 전적으로 저자로부터 온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저자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독자는 저자의 권위로부터 온 의미(메시지)를 단순히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 관점에서 좋은 독자란 저자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 머리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대로 기억(암송)할 수 있는 독자이다. 전달 관점의 대표적인 예는 중세 시대의 독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인들이 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던 중세인들에게 독서는 성직자의 말을 통해 신의 말씀을 듣는 ‘음성(듣기) 행위로서의 독서’가 보편적이었다. 이 때 독서는 즐거움이나 지식 획득을 위한 개인적인 지적 행위라기보다는 신의 말씀을 성직자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가슴에 새기는 사회적, 종교적 행위였다.

2) 번역관(translation) : 번역관은 ‘보물찾기’ 혹은 ‘번역 행위’에 비유된다. 그 이유는 독서를 독자가 다양한 인지적 기능들(예: 낱자에 대한 지식, 낱자와 소리와의 규칙에 대한 지식, 단어를 해독하는 지식 등)을 동원하여 보물(텍스트의 의미)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번역 행위’에 비유되는 이유는 독서 행위를 번역가가 해당 언어에 대한 의미 지식 및 문법 지식(해당 언어의 의미 및 문법 지식을 넘어서는 사회, 문화적 지식이라기보다는)을 토대로 해당 글의 의미를 옮기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 번역가는 해당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 다양한 언어적 지식을 사용하지만 글의 의미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번역관에서의 유능한 독자는 글 속에 있는 의미가 명백할 때는 저자의 의도를 수용하고, 메시지가 암시적일 때에는 다양한 독서 기능들을 동원하여 글에 들어 있는 의미를 찾는 이들이다. 문학이론으로서

신비평이론이 이런 관점을 보여준다.

3) 상호작용관(interaction) : 독서 행위를 독자와 글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이다. 독서는 쓰인 글로부터 의미를 구성(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독서 행위는 종이 위에 쓰인 낱자와 단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각해서 의미를 할당하고, 나아가 그것들을 좀 더 큰 단위인 문장 및 문단으로 통합해서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상향적 사고를 포함하고,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독자 자신의 세상 지식을 적절하게 관련시켜야 하는 하향적 사고 과정도 포함된다. 즉, 독서는 단어와 문장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와 그것들로부터 활성화되는 독자의 배경 지식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미의 구성, 재구성 과정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유능한 독자는 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글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아는 전략적인 독자(strategic reader)로서, 독서의 목적과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자신의 의미 구성 과정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독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자신의 의미 구성 과정을 적절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이다.

4) 교섭관(transaction) : 교섭관은 글(텍스트)의 의미를 창조하는 데에 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글보다는 독자를 더 강조한다. 독자 반응 이론과 후기 구조주의적 문학 이론이 이러한 교섭관을 지지한다. 반응 중심 이론은 글(텍스트)에는 갖가지 의미와 다양한 반응(정서적 반응, 개인적 반응, 해석적 반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글(텍스트)의 의미는 독자가 읽는 행위에 다양한 배경을 동원하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후기 구조주의 문학 이론은 글(텍스트)의 의미는 항상 다른 관점과 맥락에 비춘 새로운 해석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섭관은 독자가 그들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텍스트를 재창조하는 것을 독려하고,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다양한 관점으로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독서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독서교육 연구는 물론 현장 독서교육의 내용에도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번역관이 우세하던 시기에는 독서 기능들에 관심이 높았다면, 상호작용관이 강조되면서 스키마의 작용이나 독자의 읽기 과정 중심리적 작용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반면 최근에는 교섭관이 강조되면서, 독서의 정서적인 영역이나 독자와 타인 간의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섭관은 최근의 사회문화적 접근(sociocultural perspective)과도 결합해서 독서를 독자 개인의 수용 행위가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지식 수용과 다양한 모드(mode)로의 산출 행위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나. 독서의 다층성을 강조하는 변화 : 인지에서 정서와 사회적 측면으로

독서관의 변화와 맞물려 최근에는 독서의 다층성이나 다면성(multi-layers, multi-dimensions)을 강조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독서가 단일한 층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면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Baker & Wigfield, 1999). 인지·정의·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독서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해 보자.

1) 인지적 정신 작용으로서의 독서 : 기능, 전략, 초인지와 독해

독서는 흔히 독자가 텍스트를 만나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이해(comprehension)하거나, 의미를 구성(construct the meaning)해내는 사고 활동이라고 한다. 이는 독서가 일차적으로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고도의 정신 활동임을 의미한다. 독서는 쓰기 활동에 비해서는 인지적인 원천을 덜 사용한다고 하지만,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의미를 구성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복잡다단한 인지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독서교육 학자들은 오랜 동안 인간의 독서 행위를 특히 그 인지적인 과정에 두고, 이를 연구해 왔다. 이들은 개별 독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인 의미 구성의 활동이야말로 독서의 개념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자 독서 연구의 기본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개별 독자가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거쳐 텍스트에 담긴 단어를 해독(decoding)하는지, 그리고 독서의 과정 중에 개인의 배경 지식과 경험(schema)을 동원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내는 과정과 독서 후의 결과에 대해 설명해내고자 노력해 왔다. 독서의 과정, 읽기 기능이나 읽기 전략의 문제, 독해와 의미 구성, 그리고 초인지(meta-cognition)의 작용에 대한 연구는 모두 독서를 인간의 인지적 정신 활동으로 보고 독서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여러 작용 기제를 설명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2) 정의적 행위로서의 독서: 독서 흥미, 태도, 동기와 몰입

독자가 텍스트를 만났을 때,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독서의 과정은 순수하게 인지적인 활동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독자는 독서의 과정 중에, 또 독서 후에도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서적인 반응(예: 느낌(feeling), 감정(emotion), 몰입(engagement, flow), 카타르시스(catharsis) 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삶에 감정적으로 공감하거나 또 어떤 이에게는 적대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 작품을 읽은 후에도 오랜 동안

그 작품의 인물이나 내용에 사로잡힌 듯한 경험을 하는 것은 모두 독서가 인지적인 행위인 동시에 지극히 정의적인 행위임을 의미한다. 특히 하나의 독서 경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개별 독자의 기억에 잔존하는 것은 텍스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지식이 아니다. 그 텍스트를 읽을 때 개별 독자가 느꼈던 감정이나 독자를 사로잡았던 감동과 같이 정의적인 경험이 독자에게 오래 남아 영향을 준다. 복잡 미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독서의 이러한 정의적 경험은 독서의 과정은 물론 독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개별 독자의 의식 속에 남아 꾸준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이유로 독서의 즐거움에는 앞서 언급한 인지적인 활동을 통한 “앎과 사고의 즐거움”과 함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즐거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문학적인 텍스트의 경우, 독자의 독서 경험에서 있어서 이러한 정의적인 요소가 갖는 영향력이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독서 연구자들에 의하면 개별 독자가 갖는 정의적인 측면의 독서 경험, 그리고 독자 스스로의 자아 개념(self-concept, self-perception)이나 자존감(self-esteem) 등은 개별 독자의 독서 동기와 독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독서의 정의적 요소들은 독자가 경험한 과거의 독서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향후 개별 독자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독서의 정의적 요소는 특히 개별 독자들의 ‘독서량’은 물론 그 ‘독서 경험의 질적인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후반 이래, 독서 연구자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도 독서의 인지적 영역과 함께 정의적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된다. 더구나 20세기 후반 이래,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은 물론 학습자에 대한 관심, 특히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 분야의 분위기에 힘입어 학습자의 독서 동기를 결정하는 독서의 정의적 영역은 더욱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독서 과정에 대한 연구자와 교사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독자의 자발적인 독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몰입 독서(reading engagement)나 몰입형 독자(engaged readers)에 관한 연구는 학계의 주류 담론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의 중요한 학문 영역으로 확립된다.

3) 사회적 행위로서의 독서: 독서의 사회문화적 맥락, 사회적 의사소통

독서는 기본적으로 개별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개인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흔히 독서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개별 독자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책이 인도하는 또 다른

세계에 몰입하여 있는 모습이다. 독서의 과정 중에 개별 독자는 신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머물고 있으나, 그의 정신은 온전히 텍스트가 인도하는 다른 세상의 일에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독자의 인지적이고 정의적 경험은 독서의 중요한 측면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행위로만 보이는 독서는 사실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활동인 동시에 지극히 사회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우선 주목할 점은 독서의 상당한 부분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유목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공부나 학습을 위한 독서(reading for study, reading for learning)나 직장에서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읽기 활동(reading for work)은 물론, 대학생들이나 학자들의 독서는 대부분 유목적적이며 사회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일이나 공부, 업무로서의 독서가 아닌 개인 차원의 즐거움을 위한 자유 독서 활동(reading for pleasure, leisure reading, free reading)의 상당한 부분도 사회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독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나 사회 구성원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독서의 이유나 목적, 필요성을 발견하고, 또 실제로 독서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학생의 경우, 학교 학생들 사이에 특정한 문학 작품이 화제가 되곤 한다. 이때 이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그 책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학생들과의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위해서 그 책을 읽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성인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회문화적인 관계 속에서 독서의 동기와 필요성이 부여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 독자들의 독서 활동은 개인의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독서의 주체는 개별 독자이지만, 이들의 독서 행위나 개별 독자들을 교육시키는 독서 교육의 주요 문제들(예: 무엇을 독서 행위로 볼 것인가, 어떠한 독서 행위가 바람직한 것인가, 독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은 역시 지극히 사회문화적인 논의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독자의 모습이나 독서의 목적, 독서의 수준과 후속 활동은 물론 학교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의 내용은 시대적으로 크게 변화해 왔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이나 가족,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독서의 내용과 방법, 결과가 모두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래, 독서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사회적 영역과 연계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독서를 사회적 행위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더욱 힘을 얻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2. 독서교육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

가. ‘학교 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사업과 그 영향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독서교육 정책은 1999년에 시작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때부터 독서와 관련된 국책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다. 단군 이래 최대 교육투자 사업이라 회자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사업은 2003년에 시작되어 2007년에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5년간의 사업에 3,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육천 개 이상의 학교 도서관을 새로 짓거나 재단장할 수 있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 사업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학교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도서관 설치 비율은 2008년 기준 95.1%까지 확충되었고, 학생 1인당 장서수가 12권까지 늘어났으며, 학교 운영비의 3-5%를 도서구입비로 정하게 되고, 도서관에 사서 교사도 채용도 본격화 되었다. 교육 행정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행한 최고의 사업이라고 지칭되는 이 사업은 교사나 연구자들에게도 국가가 해온 독서교육 정책 사업 중 성공 사례로 꼽힌다(송승훈, 2009).

학교 도서관의 시설 확충과 기본 인프라 구축은 곧 학교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차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 관련 연구 모임이 조직되고, 교사 대상 연수에 독서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다. 또한 부산 교육청과 대구 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 독서 관련 수업 실천 사례가 각종 장학 자료로 발간배포되어 학교 독서교육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의 주체인 현장 교사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어 교사 개인의 관심사와 믿음으로 진행해 오던 독서교육의 실천 사례와 각종 노하우가 다양한 공적 경로를 통해 교사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배출되기 시작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책따세)나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등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사모임으로 학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 일종의 중핵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교사 자율 단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 도서 목록을 제공했고, 이는 시중의 주요 서점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등 학부모와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의 일부 구성원들은 시도 교육청의 독서교육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여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정책 입안 과정에도 제공하여 학교의 독서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도 이러한 독서교육 활성화의 분위기에 호응해서 각종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게 되었다.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일정한 사회적 반향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문화방송의 ‘느낌표’는 주요 시간대에 나오는 오락프로그램 속에 책을 읽자는 내용을 담아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민관협력 사례를 만들어냈다. 한국방송에서는 ‘TV 책을 말하다’라고 책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도 제작되었다. 이러한 방송에 소개된 도서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독서 관련 텔레비전 프로는 서점의 주요 추천도서 제공처로 자리매김된다. 각 신문에서 책 소개를 고정 코너로 설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낙도의 어린이나 학교에 책을 보내주는 운동을 사회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라디오 등 각종 방송 매체에서도 다양한 책 소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는 물론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다. 이런 언론 매체의 움직임은 독서를 일종의 사회적 국민 운동화 하는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 문화적으로 정착했다고 할 수 있다.

나. ‘학교 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이후 최근의 상황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사업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7년에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2008년부터는 2단계 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이 수립·추진되어 오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단계의 사업이 주로 학교 도서관 시설 확충과 사서 교사 충원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일에 주목했다면, 2008년도부터 시작한 2단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학교 도서관의 활용 프로그램 강화와 전담 관리 인력 배치,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도서관의 내실을 높여주는 내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현실상 2단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지만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유명무실하던 학교 도서관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학교 구성원은 물론 사회적 관심을 회복한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2007년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된 후 최근까지 독서교육은 국가 수준의 차원에서 볼 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독서교육에 보이는 관심도 2000년 초반과 비교해 많이 위축되었다. 약 5년 이상 활발하게 추진했던 과제들이 있기에 독서교육 관련 연수와 각종 지원 행사들이 맥은 잇고 있으나, 그 관심도가 예전과 같지는 않다.

이에는 정권 등 여러 요인의 개입과 영향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 후 국가의 교육 정책이 영어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대학의 입시 정책에서 논술이 위축되면서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 “영어교육 광풍”이라고도 호명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시도 교육청의 각종 교육 사업을 영어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게 하고, 영어 마을 등을 지역에 유치·운영하는 것을 지역 발전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와 맞물려 대학에서도 입시에서 논술을 제외하거나 축소하면서, 논술과 연계된 기본 활동이라 여겼던 독서교육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중등에서 독서-토론-논술교육을 담당하던 사교육과 도서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은 더욱 영어와 일반 내신 공부로 집중된다. 현재 독서와 글쓰기 교육은 초등 저학년 수준에서만 활발한 상황이다.

2007년 이후 정부의 독서교육 정책과 현장, 또 사교육의 독서교육 현실이 급격히 위축된 데에는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이후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새로운 의제가 나오지 못한 점도 일조했다. ‘2000년대에 이른 우리의 학교와 지역 사회에 변변한 도서관 시설조차 없다’라는 지적이 열성적인 사회적 반응을 얻어 시설 구축까지는 힘을 받았으나, 그 이후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등 내실화 단계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지 못해 사회적 관심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년간 지속된 도서관 사업 후 이를 독서교육을 넘어서 문화교육 사업으로 재도약 시킬 아이디어와 뒷심의 부족은 적절한 예산 확보와 사업 실천의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회적·교육적 분위기 속에서 현재 우리 독서교육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원에는 각종 도서관과 독서교육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장 독서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 중 상당수가 독서교육이나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용을 어려워한다는 데 있다. 학교 교사들을 만나다 보면, 제일 많이 나누는 대화가 독서교육 잘 하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또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사실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다. 교사 스스로 독서교육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고 방법을 모를 때, 학교 독서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잘 인식하고 여러 수업 활용 자료들도 제공하고 연수도 실시했지만 아직 그 파급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의 이용은 많이 활성화 되었으나, 아직 도서관이 학교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여가 독서나 과제를 위한 자료 제공처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어교육을 넘어서서 여러 교과수업에서 교과 독서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양상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독서교육계는 위축된 분위기를 타개하고 현장의 독서교육을 일신할 새로운 전기를 필요로 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9월 “학교 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약 54억의 추정 예산이 도입되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09년 <학교 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정책 영역	주요 실천 내용
(영역1) 학생발달에 맞는 독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 책 읽는 환경 조성을 통한 독서습관 배양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과교실에 책 지원 •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수업 실시
(영역2) 교사의 독서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임 독서토론연수 방식 도입 • 각 자격연수에 독서 내용 반영
(영역3) 독서교육 주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1,000곳 지원 (10억) •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 300곳 지원 (3억)
(영역4) 학교도서관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 100곳 (30억) •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통합 대출증 발급

2009 “학교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현장 교사들을 정책 자문단으로 참여시켜서 사업의 내용 전반에 걸쳐 논의를 수렴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사업은 1)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하고 함께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관의 기능 강화, 3) 학교 도서관의 지역 사회 문화센터로서 개방화를 통한 평생 교육 중심 센터로서의 운영 등을 그 기본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학습자의 독서 동기와 습관 형성 등 정서적인 영역의 고려,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은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근원적인 정착 방안 마련, 학교 도서관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도모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독서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정책이 발표된 이래 온라인 독서 기록 활동 등에 대한 ‘독서인증제’ 우려 등이 학회 논의를 통해 지적되고 있지만, 2007년 이래

주춤하던 학교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발단과 방향은 기본적으로 학교 독서교육 관계자에게 있어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II. 점검하고 나아가기 :

우리의 독서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1. 우리의 독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 우리의 독서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 판단에 따라 상이한 평가가 가능함을 논하였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교육 영역에 있어서 인지적인 차원의 성취는 높지만 동기화의 수준, 자율성, 창의성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성장할 측면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高성취 低동기”의 기형적 발달과 “학습된 무기력”을 우리 교육의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온 학생들만 해도 교사가 무슨 질문을 던지면 서로 대답을 하려고 손을 든다. 반면 12년 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침묵만 있을 뿐이다. 수업 중 엎드려 자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등 교사의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명문대 합격 여부가 모든 이의 것을 결정지으면서 대다수 학습자들은 필연적으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들에게 학교교육은 매우 수동적이고 무의미한 활동으로 전락되는 현실은 깊이 고려할 문제이다.

이러한 교육 현실에서 학교 독서교육의 문제는 교실이나 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학교 독서교육은 독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와 분위기, 정부의 교육독서 정책, 보다 직접적으로는 대학 입시와 내신 선정 등 여러 차원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문제이다. 하지만 교육 연구자나 교육 행정가,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영향과 한계 속에서도 현장의 수준에서 독서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후의 논의는 현재의 조건에서 최선의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우리 독서교육의 문제는 사실 여러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기 기초 작업일 것이기에,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생산적인 논의라 생각된다. 학계와 현장 교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우리 독서교육의 문제점 중 특히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독서 교육 주체(교사)의 동기화와 역량 강화 필요성 :

독서 토론, 독서 평가,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다. 이들에게 적절한 지식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동기화 시켜서, 구체적인 수업의 변화를 가져와야지만 학교 독서교육의 근원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독서교육 관련 국가 정책들 현장에 정착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교사의 역량을 키워주고 동기화 시켜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연수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참여 활동으로 교사 스스로 독서 활동을 체험하고 독서교육의 콘텐츠와 운영 방법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실무 기능을 익힌 후에야 자신의 수업에서 스스로 이를 적용·활용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9월 “학교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다. 교사가 동기화되고 준비되지 않는 한 그 교사의 수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 독서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나. 사서 교사 확충과 사서 교사의 독서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

2007년까지의 국가사업으로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의 수는 많이 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새로 충원되는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의 수는 적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놀랍게도 충원된 사서 교사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있다. 학교 도서관의 사서 교사는 공공 도서관이나 기업 등 특수 기관의 사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학교 도서관에 사서 교사가 채용되는 것만으로 학교 도서관에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책을 읽고 학교 독서교육이 활성화 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는 그 학교 도서관의 사서 교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학교 도서관은 도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에 도서관의 책이 문서 정보학상으로 어떻게 분류·배치되느냐의 문제가 관건인 곳이 아니다.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학교 독서교육의 메카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서 교사들이 독서-토론-글쓰기나 교과 독서(content area reading)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알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채용된 사서 교사의 역량 강화와 향후 채용할 사서 교사의 자질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활동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 학교 도서관의 개방과 도서 대출의 현실적 지원 필요성 :

우리 학생들은 방과 후 공부한다고 하면 자율학습실이나 교실로 옮겨간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다. 공부는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실 또한 그러하다. 방과 후나 주말, 방학 중 개방되는 학교 도서관은 극히 드물기에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도서관 활용은 불가하다.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가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도서관은 학생 개인의 자유 독서를 위한 책을 대출해 가거나 학교에 머무는 동안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등 잠시 시간을 내어 짧은 독서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다. 이나마도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요원한 상태이다. 학교 도서관이 제 구실을 담당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사용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개방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라. ‘읽고 쓰고 말하기’, 그리고 여러 ‘교과 독서’ 활동으로서 독서교육의 개념 확장의 필요성 :

현행 독서교육은 기본적으로 혼자 읽고 끝나는 활동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독서는 더 이상 개인의 지식 수용 활동이 아니다. 개인의 만족을 위한 취미·여가 활동으로서의 독서도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직무로서, 또 지식을 수용에서 나아가 새로운 지식 산출을 위한 기본 활동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³⁾ 이를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읽은 후에는 또 여러 사람들과 그 의견을 나누어 자신의 지식수준을 확장해야 하며, 또한 쓰기 활동을 통해 그 지식을 더욱 정교화 하고 지식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다. 학교 독서교육 또한 현실화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읽기 활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읽기와 쓰기,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다양한 활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독서교육의 개념을 국어 교과에 국한시키는 시각을 개선해야 한다. 독서는 기본적인 학습 활동으로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영어·사회·과학 등 모든 교과의 기본 활동이다. 이런 이유로 공부 방법으로서의 독서(reading as study skills)뿐만 아니라, 교과 영역에서의 독서(content area reading)의 개념은 요즘의 독서교육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국어 교과는 물론 전 교과에 걸쳐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3) 이를 위해서는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는 job literacy 직업 문식성(이형래, 2006; 노명완·이차숙, 2006)을 참고 할 수 있다.

인식될 때 학교 독서교육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2. 우리의 독서교육과 도서관 운영,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학교 도서관 운영과 연계하여 우리의 독서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위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 독서교육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 행정가들과 학교 교사들에게 현재의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가. 학교 도서관 멘토링 사업 : 교육 관련 대학생과 학부모를 도서관으로

전국의 교대와 사대 학생 중 자원 봉사자(mentor)를 받아 학교 학생들 중 원하는 학생들(mentee)과 연계 시켜 독서 활동을 운영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학교 도서관은 이들을 위한 일종의 독서 활동 허브로서 작용하고, 멘토는 교대와 사대의 학생들 외에 학부형과 일반인으로 확장 가능하다. 학부모를 도서관으로 유도하는 한 방법은 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연초나 학기 초에 도서관에서는 학부모에게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다. 일은 반납된 도서를 제 자리에 꽂는 도서관 운영을 돕는 역할에서 원하는 경우나 능력에 따라 학생들과의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까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도서관의 도서 대출 기간과 권 수 등에서 우대 혜택을 줄 수도 있다. 학부모의 책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곧, 아동들의 책과의 접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책 읽는 교사(부모, 아이), 책 읽어주는 교사(부모, 아이)”

교사가 실제로 책을 즐겨 읽고 독서에 관심이 높을 때 학생들의 독서 활동도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교사가 실제로 책을 많이 읽고 원하는 도서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 지원해주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교사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확장해 나갈 수 있다.

아울러 북클럽 활동을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등 여러 집단별로 운영하도록 학교 도서관에서 인원을 구성해주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사대나 교대의 예비교사들의 북클럽과 인근 지역 학생들의 북클럽을 연계시켜 서로 도움을 주도록 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 읽고-쓰고-논의하는 교과 중심 독서 프로그램(content area reading)

독서교육은 아침 독서 활동이나 재량 시간을 이용한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교과 수업에 있어 기본 활동이 되어야 한다. 교과 독서의 개념이 정착되고 교과 수업과 연계되어 학교 도서관 활용이 활성화되면, 학교 독서교육은 교육의 근간이 되고 독서는 모든 교과 활동의 기본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 매김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서 활동을 읽기로 국한시키지 말고, 쓰기와 타인과의 소통을 강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 생산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서 교사의 역량 강화

학교 도서관에 아이들과 학부모가 자주 찾아오고 학교 도서관의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서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근 도서관과 연계하여 저자와의 이야기,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세계, 전문 스토리텔러의 활동, 주말의 영화 상영과 공유 시간, 잡지와 영상물 등 다양한 도서·정보 자료 대여, 도서관 내 컴퓨터실 개방, 어른들의 북클럽, 청소년들의 북클럽, 유아들 스토리타임과 아트 시간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또 도서관에서 계절별 도서 전시회, 도서 판매 바자회, 각종 대회(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에 의의를 두고 재미를 권장하는 활동)와 도서관을 이용한 활동 공간과 각종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 도서관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센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⁴⁾ 아이들과 모든 교과의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가능한 자주 도서관에 와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도록 얼마나

4) 미국의 경우, 사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교과 수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 반이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사서 교사의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도서관에는 수업을 위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습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었다. 5학년 행성에 대한 수업의 경우, 사서 교사가 미리 활동지를 준비하고 그 활동지에는 행성에 대한 내용이 도표화 되어 있었다. 사서 교사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행성에 관한 기본 내용을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며 학습하고 활동지에 있는 세분화된 내용들을 학생들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직접 찾아서 채워 넣게 하였다. 학생들은 컴퓨터로 자료 검색도 하고 도서관도 검색해서 행성에 관해 관련 자료를 찾고 이 과정에서 사서 교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지원한다. 마지막에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프로젝터를 정리해 주며 수업을 마쳤다. 이는 교사도 도서관에 와서 수업을 운영하지만 사서 교사도 적극적으로 교과 수업에 기여하고 있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원활한 시간 운영과 공간을 제공하는가가 학교 도서관 활용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마. 학교 독서교육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학교 독서교육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내의 인력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사서 교사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교 독서교육이 활성화 되고 학교 도서관이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의 연구자(대학, 연구소)와 교육 행정가(교육청의 장학사), 교사, 학부모나 지역의 주민들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에는 학부모 중에서도 독서교육에 열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많다. 이러한 자원과 연구자의 자문, 교사 중 독서교육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면 교육 행정가의 부담은 줄어들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정책 입안과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학교 독서교육은 교사-학부모-학생-관련 전공 연구자 등 다각적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서만 정착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금까지 학교 독서교육을 위해 묵묵히 일해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논의를 맺고자 한다.

Ⅲ. 미래 세대의 독서 교육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볼 문제

1. 독서를 많이 하면, 정말 공부를 잘 하게 될 것인가?
2. 우리 학생들의(내 자녀의) 읽기 능력은 정말로 높은가?
3. 우리 학생들은(내 자녀는) 정말로 책을 잘 읽고 있는가?
4. 독서는 다 똑같은가? 미래 세대에게 적합한 독서는?
5. 그냥 독서만 하면 되는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가?
6. 중고등학생이 되면 독서하기가 어렵다는데, 그 이유는?
7. 우리 아이의 독서지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좋은 독자, 필자, 학습자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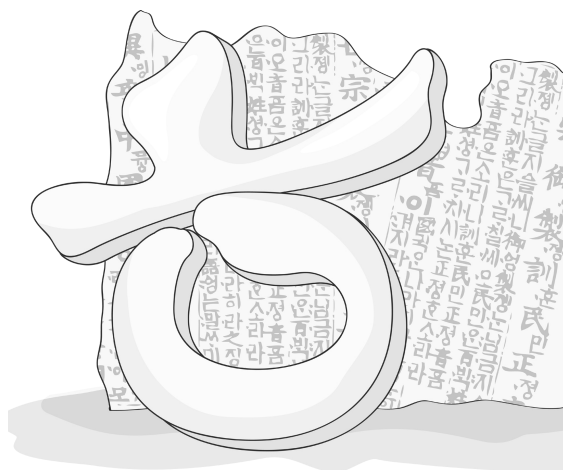
참고문헌

- 노명완 (2008). 독서지도의 원리와 방법, 『독서-토론-논술: 그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 연습을 위한 안내』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독토론 자료집.
- 노명완 · 박영목 · 권경안 (1988). 『국어교육학개론』. 갑을출판사.
- 노명완 · 이차숙 (2006). 『문식성연구』. 박이정.
- 송승훈 (2009). 정부 정책을 통해 본 독서 교육의 진단과 방향 :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학교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2009.9.30)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학회 학술 발표회 자료집.
- 이순영(2011). 읽기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 국내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제10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이순영(2011). 교사들의 텍스트 유형별 선호와 인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42집, 국어교육학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 (2008). 『2008 국민 독서실태 조사』 보고서.
- Alvermann, D.E., Hinchman, K.A., Moore, D.W., Phelps, S.F., & Waff, D.R. (1998). *Reconceptualizing the literacies in adolescent lives*,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Mahwah: NJ.
- Baker, L., & Wigfield, A. (1999). Dimens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and Their Relations to Reading Activity and Reading Achievement. *Reading Research Quarterly*, 34(4), 452-477.



독서와 표현 능력

김 성 수 | 연세대 학부대학



독서와 표현 능력

김 성 수 | 연세대 학부대학

1. 왜 읽는가?

우리는 지금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눈부신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다른 한편, 전(全)지구적 자본의 물신(物神)이 삶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까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스며들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에 한국 사회는 인간의 내면과 본질, 역사와 문화의 구조, 기술과 문명의 본질, 자연과 생태의 가치에 대해 묻고 성찰하는 ‘인문학(人文學, Studia Humanitatis)’ 열풍이 불고 있다. 상호 이질적인 것의 공존, 그러나 이런 현상은 역설적으로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람들은 인문학 공부를 통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무언가로부터 치유받기를 바라고,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 타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어 하며, 팍팍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인문학의 렌즈와 프리즘으로 읽어내려고 한다.

상아탑을 빠져나온 인문학은 ‘중년의 인문학’, ‘노년의 인문학’, ‘일상으로 스며드는 인문학’, ‘인문학 기행’ 등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일상의 국면에 파골들어 질문을 던진다. 공자의 『논어』를 통해서 진정한 배움의길을 묻고,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 ‘사관(史官)’의 절대고독과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 시내 대형서점 서가의 앞자리를 채우고 있는 인문학 관련 서적¹⁾, 방송매체의 인문학 프로그램²⁾, 각 지역별

1) 인터넷 서점 검색창에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철학이 필요한 시간-강신주의 인문학 카운슬링』(강신주), 『인문학 명강-동양고전』(강신주 등),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주현성),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동의보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고미숙), 『인문학으로 광고하다』(강웅현·강창래),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김훈민·박정호), 『기적의 인문학 독서법』(김병완),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 독서법』(안상현), 『밤의 인문학』(밤장), 『모든 순간의 인문학』(한귀은), 『인문학 개념정원』(서영채), 『미술관 옆 인문학』(박홍순), 『열린 인문학 강의』(윌리엄 앨런 닐슨) 등의 책들을 찾을 수 있다. 인문학 관련 문학, 철학, 역사, 예술, 종교, 심리학 분야의 책까지 생각하면 그

온-오프라인 인문학 공부 모임³⁾ 어느 금융회사의 ‘OO레인보우인문학’ 강좌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들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공부 모임의 특징은 고전(책) 읽기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핵심은 고전(책)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과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인문학!’ 하면 전문가 집단이든 일반 시민·청소년 집단이든 책읽기, 그 중에서도 ‘고전 읽기’를 핵심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전(책)을 읽는가?

우리가 고전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독서력(讀書力)’을 키워야 삶의 여러 국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에세이나 보고서를 쓰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독서력을 강화해야 지적인 삶, 교양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⁴⁾ 독서력을 키우면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이로울 수 있다.

첫째, 유익한 실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자아 형성, 자아 성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행복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숫자와 종류는 훨씬 더 늘어난다.

2) EBS방송의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인 <김상근 교수의 ‘인문의 시대, 르네상스’>를 들 수 있다.

3) <중앙일보>가 소개한 전국 주요 인문학 공부 모임 소개 기사를 볼 것.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264494 (2013년 8월 6일). 이 기사에는 인문학 토론 프로그램으로부터 시민 대상 인문학 독서모임, 청소년 고전학교 고전읽기, 학부모 대상 독서회, ‘서양의 위대한 저서’ 60권 읽기 모임 등 수많은 형태의 인문학 관련 모임·강좌가 지역·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4)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2012. 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과 학생들의 독서 목적은 성인의 경우, 독자들의 28.7%는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경우도 22.9%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경우가 37.1%로 성인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경우는 15.8%로 성인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성인과 학생 모두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서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성인과 학생의 과반 수 이상이 독서가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는 성인보다 적은 49.8%만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은 절반 이상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중학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kpa21.or.kr> (2013년 8월 21일).

무엇보다 인문학에서의 고전 읽기든, 경제·경영서 같은 실용적인 책읽기든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깊다. 일본 최고의 저널리스트이자 책 읽기의 거장인 다치바나 다카시(立花 隆)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에 자극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Metaphysica)』 첫머리에서 가져온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인류 지식의 총체를 나날이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뜻이다.(다치바나 다카시,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 청어람미디어, 60~61쪽)

그러나 스스로를 가리켜 ‘지적 욕구가 필요 이상으로 강한 이상 지적 소유자’라고 평가한 그조차도 “최근 들어 인류의 지의 총체가 확대, 발전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확장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날지라도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는 전적으로 무지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승자독식의 자본주의의 우려하는 오늘의 시대에서 이미 한 세기 전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진단한 ‘마지막 사람들(letzte Menschen)’, 즉 ‘영혼이 없는 전문가, 마음이 없는 향락인’에 비유한 ‘최후의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최후의 사람들’은 제일 지식인 강상중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더 이상 세상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그만둔 사람들의 말로를 가리킨다. 그가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강제수용소를 체험한 것으로 유명한 정신의학자 빅터 E. 프랭클의 말을 인용하여 호모 폐이션스(Homo patience, 고민하는 인간)의 가치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한 것(강상중, 『고민하는 힘』, 사계절, 54~55쪽)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이른바 ‘정보(information)’와 ‘지성(intelligence)’을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책을 읽는 인간은 고민하는 인간이며, 고민하는 인간은 나와 세상의 문제를 성찰하는 인간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다치바나 다카시는 책이란 무엇이며, 또 책읽기란 무엇인지 「우주·인류·책」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책이란 만인의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건 사람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학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인간은 결국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을 나왔건 나오지 않았건, 일생 동안 책이라는 대학을 계속 다니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책이라는 대학에 지속적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고 있다.(…)“(다치바나 다카시,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 285~286쪽)

‘책이란 만인의 대학’이며, 대학에 있건 대학을 졸업했건 ‘책이라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평생 책을 읽고 있다는 그의 ‘독서론’에서 ‘왜 책을 읽는가?’에 대해 엄정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책의 의미와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고전 읽기’란 무엇이며, ‘왜 고전을 읽는가?’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 보자. 이탈리아 현대문학의 거장이자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문학 세계로 유명한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 1923~1985)는 다음과 같이 14개의 내용들로 고전에 대한 정의를 풀어나간다.

- 1) 고전이란, 사람들이 보통 “나는……를 다시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나는 지금……를 읽고 있어.”라고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다.
- 2) 고전이란 그것을 읽고 좋아하게 된 독자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는 책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조건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그런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3) 고전이란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책들이다. 그러한 작품들은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으로 각인될 때나, 개인의 무의식이나 집단의 무의식이라는 가면을 쓴 채 기억의 지층 안에 숨어 있을 때 그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 4) 고전이란 다시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무언가를 발견하라는 느낌을 갖게 해 주는 책이다.
- 5) 고전이란 우리가 처음 읽을 때조차 이전에 읽은 것 같은, ‘다시 읽는’ 느낌을 주는 책이다.
- 6) 고전이란 독자들에게 들려줄 것이 무궁무진한 책이다.
- 7) 고전이란 이전에 행해졌던 해석의 그림자와 함께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며, 그것이 하 문화 혹은 여러 다른 문화들에(더 단순하게는 언어나 관습들에) 남긴 과거의 흔적들을 우리의 눈앞으로 다시 끌어오는 책들이다.
- 8) 고전이란 그것을 둘러싼 비평 담론이라는 구름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작품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평의 구름들은 언제나 스스로 소멸한다.

- 9) 고전이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실제로 그 책을 읽었을 때 더욱 독창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창의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해 주는 책이다.
- 10) 고전이란 고대 전통 사회의 부적처럼 우주 전체를 드러내는 모든 책에 붙이는 이름이다.
- 11) 고전이한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작품과 맺는 관계 안에서, 마침내는 그 작품과 대결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 12) 고전이란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위계 속에 속하는 작품이다. 다른 고전을 많이 읽은 사람은 고전의 계보에서 하나의 작품이 차지하는 지위를 쉽게 알아차린다.
- 13) 고전이란 현실을 다루는 모든 글을 배경 소음(잡음)으로 물려나게 만드는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전이 이 소음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4) 고전이란 배경 소음처럼 존속해서 남는 작품이며, 이는 고전과 가장 거리가 먼 현재에 대한 글들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탈로 칼비노, 『왜 고전을 읽는가』, 이소연 옮김, 민음사, 9~20쪽, 2008)

이탈로 칼비노가 고전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 조금은 장황하고 번거로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칼비노가 14개의 항목으로 이어가며 정의하고 있는 고전에 대한 생각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읽다’라는 동사이다. 그래서 그가 이 글에서 최종적으로 강조하려는 생각은 고전이 무언가에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인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고전은 읽지 않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칼비노가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 사상가 시오랑(1911~1995)의 말을 인용하여, 소크라테스는 독약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피리로 음악 한 소절을 연습하고 있었다고 한다. “대체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요?” 누군가 이렇게 묻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음악 한 소절은 배우지 않겠는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왜 고전을 읽는가.’에 대한 답을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면, 법정(法頂: 1932~2010) 스님의 다음 수필에서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못 박아 놓고들 있지만 사실 가을은 독서하기에 부적당한 계절이다. 날씨가 너무 청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옅어 가는 수목의 그림자가 우리들을 먼 나그네 길로 자꾸만 불러내기 때문이다. 푸르디푸른 하늘 아래서 책장이나 뒤적이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리타분하다. 그것은 가을 날씨에 대한 실례다.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습다. 아무 때고 읽으면 그 때가 독서의 계절이지. 여름엔 무더워서 바깥일을 할 수 없으니 책이나 읽는 것이다. 가벼운 속옷바람으로 뒹자리를 내다 갈고 죽침이라도 있으면 제격일 것이다. 수고롭게 찾아나설 것 없이 출렁거리는 바다와 계곡이 흐르는 산을 내 곁으로 초대하면 된다.

8, 9년 전이던가, 해인사 소소산방(笑笑山房)에서 <화엄경 십회향품>을 독송하면서 한여름 무더위를 잊은 채 지낸 적이 있다. 그해 운허노사(耘虛老師)에 이르러 보살의 지극한 구도 정신에 감동한 바 있다. 언젠가 틈을 내어 <십회향품>만을 따로 정독하리라 마음먹었더니 그 여름에 시절 인연이 도래했던 것이다.

조식으로 장경각(藏經閣)에 올라가 업장(業障)을 참회하는 예배를 드리고 낮으로 산방에서 독송을 했었다. 산방이라지만 방 하나를 칸 막아 쓰니 협착했다. 서까래가 없는 방, 그러니 여름이 아니라도 답답했다. 그래도 저 디오게네스의 통 속보다는 낫다고 자족했었다. 또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앞산이 내다보이는 전망이었다. 그것은 3백 호쯤 되는 화폭이었다.

『화엄경』은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경전이다. <십회향품>은 그 중 아홉 권으로 되어 있다. 한여름 그 비좁은 방에서 가사와 장삼을 입고 단정히 앉아 향을 사르며 경을 펼쳤다. 먼저 개경계(開經偈)를 읽는다.

“더없이 심오한 이 법문 /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데 /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외니 / 여래의 참뜻을 바로 알아지이다.”

경은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 한역(漢譯)의 목판본으로 읽었었다. 요즘은 한글대장경으로 번역이 나와 있지만 그때는 번역이 없었다. 한글 번역이 있다 하더라도 표의문자가 주는 여운이며 목판본으로 읽는 그 유연한 맛은 비교될 수 없다. 더러는 목청을 돋우어 읽기도 하고 한 자 한 자 짚어 가며 묵독하기도 했었다.

비가 올 듯한 무더운 날에는 돌담 밖에 있는 정랑(淨廊: 변소)에서 역겨운 냄새가 풍겨 왔다. 그런 때는 내 몸 안에도 자가용 변소가 있지 않으나, 사람의 양심이 썩은 냄새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았다. 일체가 유심소조(唯心所造).

저녁 공양 한 시간쯤 앞두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가사장삼에 땀이 흠뻑 배고 깔
 았던 방석이 축축이 젖어 있었다. 비로소 덥다는 분별이 고개를 든다. 골짜기로 나
 가 뿔뿔 벗어젖히고 시냇물에 잠긴다. 이내 더위가 가시고 심신이 날듯이 가벼워진
 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해서 그해 여름 <십회향품>을 10여 회 독송했는데 읽을수록 새롭고 절절
 했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 그렇게 못 했을 것이다. 스스로 우러나서 한 일
 이라 환희로 충만할 수 있었다.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목소리를 통해 나 자신의 근원적인 음성을 듣는 일이 아닐까.”(1972) (법정,
 『무소유』, 1972)

2. 무엇을 읽는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일지 모른다.
 이 세상에는 수천 년에 걸쳐 인류의 지혜가 낳은 생각의 보물로써 ‘위대한 고전들(Great
 Books)’을 비롯하여 전문 직업 분야의 책, 취미와 여가 활동의 길잡이로 도움을 주는
 책,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책들이 존재한
 다. 모든 분야의 책들은 읽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읽기의 방향이다. 범위를 조금 좁혀, 훌륭한 일로 세상에 알려지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 이를테면 법정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 나아가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나 작가들, 또는 위대한 사상가들과 권위 있는 기관들이 추천하는
 책이라면 독자들은 신뢰를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읽기를 요구하는 책은 대부분 ‘고전’ 저작들이다. 외국대학
 의 경우를 참조한 국내의 주요 대학들도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고전 목록’을 가
 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양 고전 200선 목록’이나 ‘연세 필독도서-고전
 200선 해제-’ 같은 고전 읽기 목록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고전 읽기
 목록’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오래 전부터 자기대학의
 학생들을 위하여 꼭 읽어야 할 고전 총서나 목록을 만들어 인문교양 교육에 활용해
 오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버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한 찰스 W. 엘리엇(Charles W. Elliot: 1834~1926)이 “5피트 책꽂이면 몇 년

과정의 일반교양 교육을 대체할 만한 책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평소의 지론을 바탕으로 1909년에 펴낸 것이 유명한 ‘5피트 책꽂이(five-foot shelf)’라는 별칭의 인문학 고전선집 ‘하버드 클래식(Harvard Classics)’이다.

이 하버드 클래식을 읽기 위한 안내서로 같은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윌리엄 앨런 닐슨(William Allan Neilson)이 기획한 『Lectures on the Harvard Classics』(1914)(우리말로는 『열린 인문학 강의』로 번역되어 있다)에는 다음과 같은 <추천사>와 <서문>이 들어 있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할 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강의는 고전을 접하는 일반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사람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일 적은 시간이나마 할애하여 엄선된 고전을 읽는다면 일정한 수준의 인문교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마련한 강의를 통해 독자들은 수준 높은 고전을 독파하면서 책읽기의 즐거움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찰스 윌리엄 엘리엇 전 하버드대학교 총장, 「입문자를 위해 엄선한 기초 고전강의」, 윌리엄 앨런 닐슨 엮음, 『열린 인문학 강의』, 김영범 옮김, 유유, 2012)

“하버드 고전은 일반 독자들에게 방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보물창고입니다. 이 창고 안에는 인류가 지식을 축적하면서 창조한 주요 분야의 모범적인 작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련된 이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둘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독자들은 명교수들의 안내를 받으며 다양한 주제를 두루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와 함께 ‘하버드 고전’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믿을 만한 독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윌리엄 앨런 닐슨 엮음, 위의 책)

이 책자의 ‘차례’에 나와 있는 고전 저작의 목록과 항목들을 보면 인문학의 주요 범주가 잘 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엘리엇 총장이 목표로 했던 것처럼 위의 목록에 제시된 고전을 꾸준히 읽으면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인문적 소양을 갖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인문학 공부하기의 목표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자본의 논리가 현실의 삶을 쉽지 않게 만드는 오늘의 이 시대에 인문학 고전 읽기를 통해서 ‘인간답게 사는 법(humaniter vivere)’을 조금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Lectures on the Harvard Classics』 Contents

- I. 역사
 - 들어가는 말-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 서양 고대사
 - 르네상스
 - 프랑스 혁명
- II. 철학
 - 들어가는 말-삶의 이상과 희망의 근거를 묻다
 - 소크라테스, 플라톤, 로마 스토아학과
 - 근대 철학의 발흥
 - 칸트
- III. 종교
 - 들어가는 말-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얻을 것을 원하는 것의 사이
 - 불교
 - 유교
 - 파스칼
- IV. 정치
경제학
 - 들어가는 말-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같은 인간이 가진 서로 다른 이해관계 사이의 투쟁
 - 르네상스 시대의 정부론
 - 애덤 스미스와 『국부론』
- V. 항해와
여행
 - 들어가는 말-그곳으로 죽을 때까지 가겠노라!
 - 헤로도토스
 - 엘리자베스 시대의 모험가들
 - 발견의 시대
 - 다윈의 비글호 항해
- VI. 희곡
 - 들어가는 말-웃음과 눈물로 인간의 세계를 보여주다
 - 그리스 비극
 -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
- VII. 시
 - 들어가는 말-인간 지식의 처음이자 마지막
 - 호메로스와 서사시
 - 단테
 - 존 밀턴의 시

대학생이든 일반인이든 인문적 소양을 갖추는 데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대학의 학자들이나 재야의 학자들이 전문가로서 읽는 고전 저작들도 있겠지만, 일반인 독자들 또한 자기만의 ‘평생 독서 계획(The Lifetime Reading Plan)’과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다. 미국의 작가·비평가이자 독서가인 클리프턴 패디먼(Clifton Fadiman: 1904~1999)이 1960년대에 일반인들에게 어떤 고전을 읽히면 좋겠는지 생각한 끝에 발간한 『평생 독서 계획』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많은 미국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까지 4판이 발간됐다. 이 책을 내면서 패디먼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넨다.

“나는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틈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제시된 책들을 읽고 또 읽었다. 이 책들을 읽으면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젊은 독자들에게 증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들은 사진 필름의 현상액 같은 것이라고 말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평소에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당신의 의식 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이 책들은 자기 계발의 도구라기보다 자기 발견의 도구이다. 자기 발견이라는 말은 나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아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많은 지혜를 미리 발견해 놓은 플라톤이 이미 그렇게 말했다. 위대한 책은 이런 산파 노릇을 한다. 두뇌의 깊은 곳에 코일처럼 감겨져 있던 생각의 태(胎)를 밖으로 꺼내 주는 것이다.”(클리프턴 패디먼·존 S. 메이저, 『평생 독서 계획』, 이종인 옮김, 연암서가, 2010)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33명 저자의 대표저작 각각에 대해 200자 원고지 11~12매 분량으로 저자의 생애, 대표작, 작품세계 세 부분으로 짧으면서도 핵심적으로 논평을 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수정 4판에서 기존의 서양 중심에서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이슬람 경전과 선불교 경전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주요 고전들인 삼국지, 서유기, 사기, 마쓰오 바쇼 등을 수록하고 있어 흥미롭다.

대학의 안팎에서 과학기술의 팽창 시대에 인문교양 또는 인문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조적 상상력이나 융·복합적 통섭의 사고를 언급할 때 책읽기의 중심을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보다 고전 읽기에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 저작 안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 인간을 존중하는 법에 대한 인류의 위대한 관찰 기록과 사상이 담겨 있어 우리의 삶과 세계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되비쳐주는 거울 역할

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 거울의 상에 비춰진 오이디푸스의 지해를 나침반 삼아 우리는 혼돈된 삶의 현실에서 질서를 세우고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저명한 교육철학자이자 시키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R. M. 허친스와 M. J. 아들러가 1930년부터 미국의 대학생과 일반인의 교양교육을 위해 구성한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Great Books Program)에서도 이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고전 작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와 타자와 세계의 모습을 이해하고 성찰하면서 삶의 가치를 확장해나가고, 삶의 구조와 문명의 질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나가는 자양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3. 어떻게 읽는가?

고전 작품과 저작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읽기의 기술, 즉 독서의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운동을 할 때에도 기술과 방법, 요령이 필요하듯이 책읽기에서도 시간과 상황과 목적에 따라 읽기의 방법이 다 다르다.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책 읽는 스타일이 있고 메모하는 방식이나 습관이 있으며, 책이 내용을 기억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책 읽는 스타일과 속도에 따른 책 읽기의 방법에 대해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만 정리해본다.

- ▶ 다독(多讀): 다양한 분야의 글이나 책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것.
- ▶ 정독(精讀): 글이나 뜻을 새기면서 자세히 읽는 것.
- ▶ 숙독(熟讀): 충분히 뜻을 새기면서 공들여 글을 읽는 것.
- ▶ 속독(速讀): 책이나 글을 빠른 속도로 읽는 것.
- ▶ 난독(亂讀): 순서나 체계, 내용에 관계없이 아무것이나 닥치는 대로 읽는 것.
- ▶ 묵독(默讀): 글을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읽는 것.
- ▶ 통독(通讀): 건너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훑어 읽는 것.
- ▶ 완독(玩讀): 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읽는 것.
- ▶ 발췌독(拔萃讀): 글의 내용을 필요한 부분만 걸러내어 읽는 것.

다치바나 다카시는 「나의 독서론」에서 독서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독서 그 자체가 목적인 독서, 또 하나는 독서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독

서로 나누고 있다.

- ▶ 목적으로서의 독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자 즐거움인 책읽기로, 문학 작품 읽기.
- ▶ 수단으로서의 독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 일로, 책 속에 담겨 있는 지식이라든가 정보 혹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읽는 책을 읽는 것. 요리하는 법을 알기 위해 익는 요리책, 비즈니스 관련 서적, 자연과학 책 읽기.

책읽기의 대가인 다치바나는 「우주·인류·책」이라는 글에서 책에는 속독이 가능한 책과 불가능한 책이 있다며, 속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으로 읽는 것 자체를 즐기기 위한 책은 속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천천히 읽어야 책읽기를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독이 가능하고 또한 속독하는 편이 더 나은 책은, 읽는 것 자체를 들기는 책이 아니라 정보다 가득 차 있는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의 책으로, 실려 있는 정보를 취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참고 자료 같은 종류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OO백서」 같은 것이다. 이런 책은 대부분 정보의 농축된 포인트를 모두 도표 방식으로 수록하고 있으므로, 그런 도표들을 중심으로 이해해 가면서 정보를 접한다면 글은 굳이 읽지 않아도 괜찮다.”

필자가 아는 어느 후배 대학교수는 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읽기 위해 대학 시절부터 속독법을 배워 활용하고 있다. 필자는 속독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거의 대부분의 책읽기에서, 속독에 반대되는 ‘지독(遲讀)’으로 느리게 읽는 편에 속한다. 달리 말하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고전 읽기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완독, 정독, 통독에 가까운 스타일로 책을 읽는 편이다. 이런 읽기의 방식은 아주 젊은 나이에 『일식(日蝕)』이라는 소설로 1998년 제120회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하여 화제가 되었던 히라노 게이치로의 ‘슬로 리딩’의 방법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가 말하는 ‘슬로 리딩(slow reading)’이란 말 그대로, “한 권의 책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는”(히라노 게이치로, 『책을 읽는 방법』, 김효순 옮김, 문학동네, 2008, 19쪽) 책읽기의 방법이다. 따라서 슬로 리딩을 하는 독자들은 ‘슬로 리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슬로 리딩은 꼼꼼하게 책을 읽는다는 의미에서 ‘속독’이나 ‘정독’이라는 독서

의 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히라노 게이치로에 따르면, 독서 방법으로써 이 슬로 리딩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한다.

- ▶ 책을 읽는 습관을 지닌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에도 중요하다. 이 방법은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 ▶ 업무에도 응용할 수 있다. 독서의 과정에서 오독을 줄이고 뜻하지 않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 ▶ 수험공부에도 응용할 수 있다. 일상 회화뿐만 아니라 면접시험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점에서 ‘속독’이 독서를 마친 시점에서 끝내버리는 독서법이라면, 슬로 리딩은 독서를 그 후에도 살리기 위한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을 공부했고, 소설 비평을 전공한 필자의 입장에서는 작품을 읽을 때 속독을 피하고 슬로 리딩을 하는 것은 문학 분석과 해석의 방법으로 바뀌어서 말하면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천천히, 자세히 읽는 과정에서 문장 사이사이에 감춰져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 조그만 목소리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설 인물들의 다성적 목소리와 그 시끄러운 소음의 흔적들을 찾아 읽어내기 위해서는 지독한 슬로 리딩이 필요할 때가 많다. 복잡하고 난해한 작품을 읽을 때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슬로 리딩이란 고전 저작 읽기의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의 분석과 해석이라는 차원에서 고전 읽기는 ‘고쳐 읽기’이고 ‘거슬러 읽기’이며, ‘겹쳐 읽기’의 반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오독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결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미가 재구성되는 것이다. 가령, 『데미안』과 『호밀밭의 파수꾼』을 겹쳐 읽을 수 있으며, 여기에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주제를 가져다 논의할 수 있다. 더 나아가간다면, 이러한 읽기의 방식으로 일본의 국민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산시로』를 논의 구조 안에 넣어서 시대와 지역에 따른 ‘성장소설’의 다양한 형태를 포착하여 비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 다시 읽기의 방식은 다시 쓰기의 과정을 수반하며, 서로의 꼬리를 물며 순환한다.(이러한 방식으로 세계의 고전 문학을 다시 읽고 있는 것이 『로자의 세계문학 다시 읽기』(이현우, 오월의봄, 2012)이다. 읽기는 읽기가 완료되면서 그 역할이 기억의 단계에 머물러 끝날 수도 있지만, 읽

기의 감동이나 정서에 대한 기록, 혹은 표현의 객관화라는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글로 남겨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고전 읽기에서, 고전에 관한 글쓰기로 나아가는 것이다.

4. 읽기에서 쓰기로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글을 잘 쓰고 책을 잘 읽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1)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

- 문자-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
-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 텍스트를 이해·활용·성찰하는 능력’으로 규정(OECD)

2) ‘좋은 글’을 읽는 것이 ‘좋은 글’ 쓰기의 첩경

【예문】

각급 학교의 어문교육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글쓰기 훈련이다. 아마도 우리 교육에서 가장 등한시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할 것이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해를 가지며 아울러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구미의 유수한 대학들은 인문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글쓰기 훈련은 따라서 문과대학생 만의 특수 분야가 아니다. 세상 범백사가 그렇듯이 좋은 글쓰기에 왕도는 있을 수 없다. 좋은 글을 꾸준히 읽는 것이 좋은 글쓰기의 첩경이다. 비문학적인 글쓰기에서나 문학적인 글쓰기에서나 사정은 동일하다. 흔히 글재주란 말을 하지만 글재주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글을 알아보는 감식력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글의 좋은 점을 알아차리고 글 쓸 때 그것을 본뜨면 좋은 글은 자연히 써지게 마련이다.

좋은 글 읽기는 그러므로 좋은 글쓰기의 필수 선행조건이다. 좋은 글이 좋은 글을 낳기 때문이다. 한편 글쓰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좋은 글과 서투른 글, 공들인 글과 갈겨쓴 글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읽기와 쓰기는 그러므로 상호보완적이지요 또 상호 부조적이다. 읽기에 앞서 쓰기에만 열중하는 사례도 있으나 진척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대체로 서투르거나 지리멸렬한 글을 상승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좋은 글을 알아보는 감식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종호, 「왕도는 없다」,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2001, 274쪽)

〈예문 요약〉

- 좋은 글을 꾸준히 읽는 것이 좋은 글쓰기의 첩경이다.
- 좋은 글 읽기는 좋은 글쓰기의 필수 선행 조건이다.
- 읽기와 쓰기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부조적이다.

글쓰기에서 읽기를 강조하는 발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쓰기와 관계가 있다. 1차적인 구술문화의 사고를 포함해서 무릇 모든 사고는 어느 정도 분석적이다. 즉, 사고는 그 재료를 가지각색의 성분으로 분해한다. 그렇지만 잡다한 사실이나 현상들을 추상적으로 순서 매김을 하고 분류하고 설명해서 분석하는 일은 쓰거나 읽거나 하는 일 없이는 불가능하다.” (윌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 129쪽)
- (2) “글쓰기가 재미있는 작업이든 아니든, 글을 쓰려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그 최고의 공급원이 바로 글 읽기다. 즉, 글 읽기와 글쓰기는 맞물려 있는 것이다.” (김용석, 「글쓰기의 황홀과 고통 그리고 보람」, 『글쓰기의 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5, 41~43쪽)
- (3) “(…) 고전과 명저를 읽고 토론함으로써 깊이 있는 사고력과 다양하고 유연한 관점을 기르고,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개설 취지입니다. 지적 성찰이 돋보이는 다양한 영역의

고전적인 명저와 우리 시대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명저를 읽음으로써, 통찰력 있는 비판력과 가치 있는 지식 생산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Great Books & Debate 교과목(군) 개설 안내〉,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2011)

- (4) “문학은 그 자체로서 값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값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 인간 활동이며 업적이다. 삶의 다른 모든 값 있는 것들이 그러 한 것처럼 그렇다고 하여 다른 더 큰 것에 의하여 규정되는 의미를 그것이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으면서 또 삶의 균형 있는 개화에 한 요소가 된다. 문학은 그 자체로 값있는 것이면서 다른 의의를 가질 수 있는데 아마 궁극적으로 문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정신 훈련과 기율에 기여한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훈련은 개인적인 의미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이 큰 사회 속으로 사회화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물론 이 정신훈련이 문학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회는 개인을 그 개체적 생존에의 집착으로부터 떼어내어 큰 사회 안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하여 일정한 정신적 기율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최상의 상태에서는 외면적인 강제력의 부과 과정이 아니라 사회화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심화와 확대의 과정이 된다. 그것은 개인으로는 단순히 내면의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외 일치의 사회화 과정 또 개인적 심화 및 확대의 과정이 흔히 말하는 교양적 형성과정이다. 문학은 사회화의 과정으로서의 교양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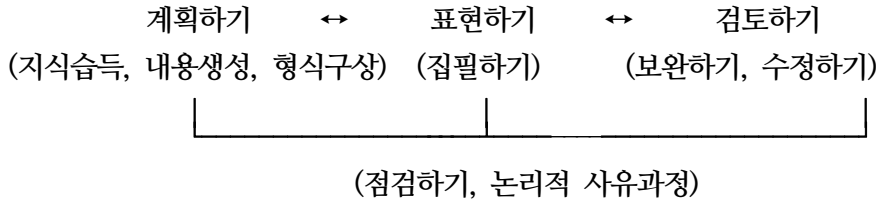
3) 글쓰기의 과정을 이해한다.

(1) 글쓰기의 기본

- 글의 어법적 기능에 대한 기본 이해: 문장 부호, 문장, 단락
- 글의 구성과 배열에 대한 이해
- 글쓰기의 윤리: 올바른 인용, 표절 피하기 등
- 논리적 문제 해결: 논증의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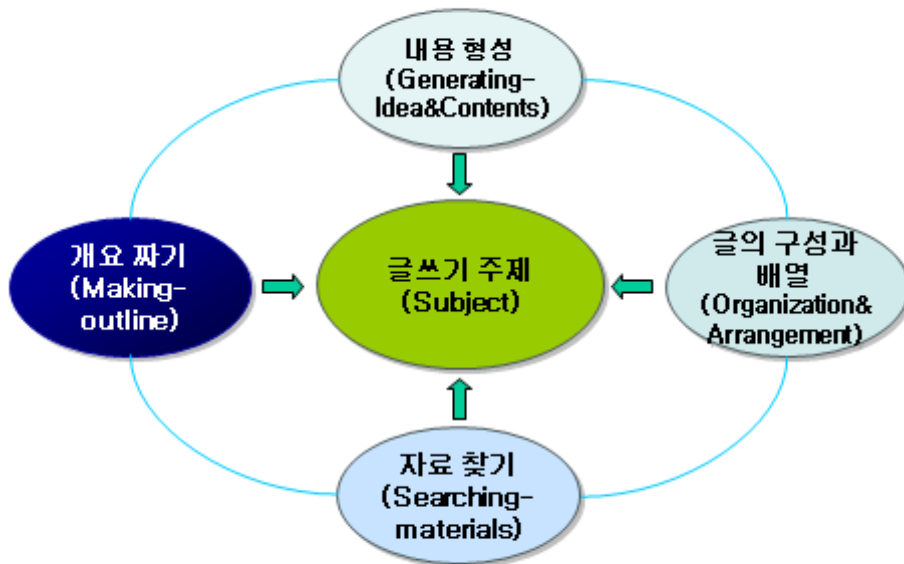
5) 김우창, 「외국 문학 수용의 철학」, 『법 없는 길』(김우창 전집 4), 민음사, 1993, 287쪽.

(2) 글쓰기 과정(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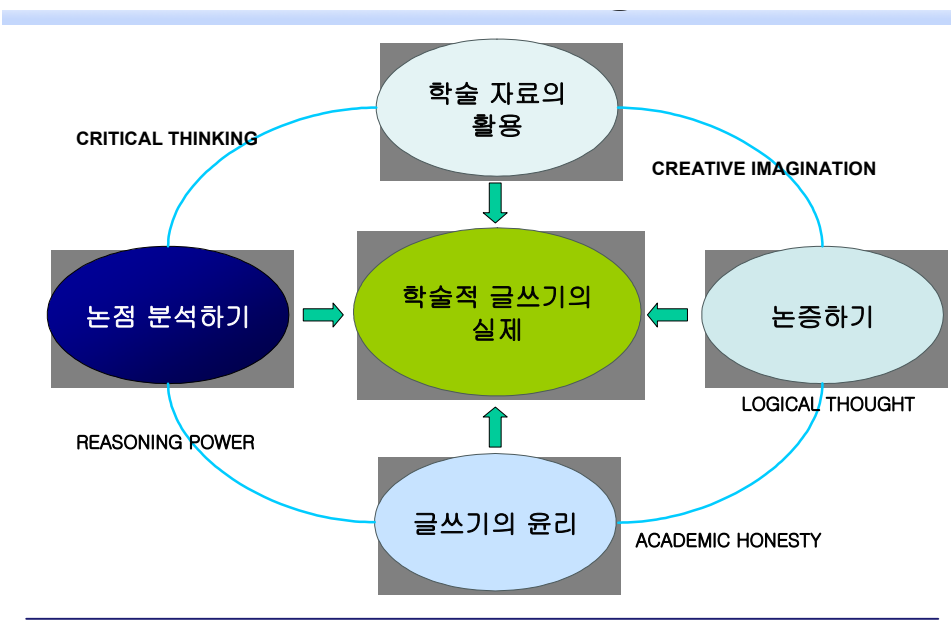


〈글쓰기 전(前)과정(pre-writing)으로서 계획하기〉

글 계획하기[Pre-writing] 수업 모형



4) 학술적 글쓰기의 구성



5) 글의 구성과 흐름

글 쓰는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구성(organization)이다. 글에서 구성이란 불필요한 언어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충분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펼쳐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일정한 형식적 틀로 정해 놓은 것이다.

글의 흐름을 ‘배열(arrangement)의 질서’라는 면에서 생각할 할 때 떠오르는 것이 한시(漢詩)의 구성 형식인 기승전결이다. 한시의 기승전결 형식은 순간적인 시상을 압축해서 언어로 표현해 내는 동양인의 오랜 창작 경험과 지혜가 집약된 구성 방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구성법으로, 현대적 글쓰기의 과정에서도 구성 능력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네 구로 이루어지는 단시(短詩)인 한시의 기승전결 흐름은 제1구에서 자연적 배경으로 시상(생각)을 도입하여 일으키고(起句), 제2구에서는 그 뜻을 이어받아 전개하고(承句), 제3구에서 그 뜻을 전환하며(轉句), 마지막으로 제4구에서 1·2·3구의 뜻을 종합하여 전체를 마무리

리하는 절구(結句)의 형식을 취한다. 여기서 기승전결은 각각 화제의 도입, 화제의 전개, 화제의 발전(전환) 및 마무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한시의 기승전결 흐름은 일정한 주장을 논증하는 본격적인 논문들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이나 문학적인 에세이에서도 많이 이용될 수 있다. 기승전결의 구성형식을 글쓰기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시 한 편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渭城朝雨浥輕塵 위성의 아침비 가벼운 먼지를 적시고
 客舍青青柳色新 객사 앞 버들빛이 푸릇푸릇 새로워라
 勸君更盡一杯酒 그대여 다시 한잔 다 드시게
 西出陽關無故人 서쪽으로 양관을 나면 친구가 없으리니
 (『唐詩 읽기』, 요시카와 코지로·미요시 타쓰지, 심경호 옮김)

이 한시는 당나라 시대에 두보, 이백과 함께 활동을 한 왕유(王維, 709~761)의 「送元二使安西(안서로 봉사 가는 원이를 전송하며)」라는 7언 절구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원이(元二)라는 친구가 전선지대인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즉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과 붙어 있는 서쪽 신강성(新疆省)의 투르판(吐魯番) 지역으로 조정의 명을 받고 임지로 떠나가게 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唐詩 읽기』 저자들의 해석을 빌려 시를 음미해 보면, 수도인 장안의 북쪽 교외 위수 건너편 위성(渭城)에서 친구(故人)는 친척과 벗들의 전송을 받고 있다.

- 임지로 부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어느 봄날 아침 비는 내리고, 길 양 편 공중에 부유하던 모래먼지도 비에 젖어 가라앉아 있다. (起句)
- 객사 앞에 늘어선 버드나무가 비에 씻겨 신선하게 푸릇푸릇한 빛을 띠고 있다. (承句)
- 시의 화자는 친구에게 ‘그대여 다시 한잔 다 드시게’라며 못내 이별을 아쉬워하며 잔을 권한다. (轉句)
- “서쪽으로 양관(陽關)을 나면 친구가 없으리니”라며 이별의 정회를 고조시키면서 끝을 맺는다. (結句)

기승전결의 구성법은 논문의 구성과 흡사한 부분이 있다. 서론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배경과 그 문제를 어떤 이유에서 다루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다음, 실험 방법과 그 결과(이론에 관한 논문이라면 가정과 그것으로부터의 연역)를 기술한다. 다음으로 일단 입장을 바꾸어 자신의 연구에 남겨진 문제점을 음미하고, 또 자신의 결과를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서로 맞추어 검토해 본 다음 결론을 정리한다. 이런 구성법은 확실히 기승전결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승전결의 흐름은 여러 종류의 글 가운데 칼럼을 구성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짧은 칼럼 한 편을 선택하여 이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예문】

자동차회사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디터 체체 회장은 ‘생태 정신분열증’이란 말을 만들었다. 정치가, 언론인, 돈 많은 소비자 등 유력인사들이 입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성능의 큰 차만 선호하는 풍조를 빗댄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연료 3ℓ로 100km를 달려 ‘3리터 루포’란 애칭을 얻었던 폴크스바겐의 소형차 루포는 2005년 생산이 중단됐다. 찾는 이가 없어서다. 그 대신 이 회사는 1001마력을 자랑하는 초고성능 엔진을 단 부가티 페이론을 내놔다. 루포보다 탄산가스는 많이 내보내지만 어쨌려, 소비자는 그보다 16배나 강력한 파워에 끌린다.

루포는 1.2ℓ 배기량의 3기통 디젤 터보엔진을 달았다. 연비를 높이고자 갖은 기술이 동원됐다. 자동으로 변속되는 독특한 5단 수동 변속기였다 4초 이상 서면 저절로 엔진이 꺼지게 돼 있다. 에어컨, 파워핸들 등 액세서리는 애초에 없다. 환경운동가들에게 생색을 내려고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 만큼 승차감도 별로였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기존 기술로도 초저연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요즘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주자인 도요타의 프리우스는 휘발유 1ℓ로 24km를 간다. 8억달러를 들인 첨단 연료겸용(하이브리드) 기술을 도입했는데도 루포보다 연비가 떨어진다. 배터리와 각종 액세서리를 다느라 차가 무거워져서다. 게다가 요즘 연료겸용차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연료효율을 높이기보다 강력한 힘을 얻으려 하이브리드 엔진을 다는 차종이 늘고 있다. 도요타의 연료겸용 스포츠실용차(SUV) 하이랜더의 연비는 프리우스의 절반이다.

최근 환경부의 기후변화 국민 의식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 열에 아홉이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스포츠 실용차는 불티나게 팔리고, 소형차는 보기도 어렵다. ‘생태 정신분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홍섭, 「생태 분열증」, 〈한겨레신문〉, 2007. 5. 31)

네 단락으로 이루어진 위의 예문을 각각 기승전결 형식에 맞추어 생각해 보자.

- 1) **제1단락(起句):** 겉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성능의 큰 차를 선호하는 외국의 돈 많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생태 정신분열증’이라고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 2) **제2단락(承句):** 폴크스바겐의 루포라는 자동차가 승차감은 떨어지지만 초저 연비를 자랑하는 친환경 자동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3) **제3단락(轉句):**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도 연료효율을 높이기보다 각종 액세서리와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여 자동차의 연비가 떨어지고 있음을 서술한다.
- 4) **제4단락(結句):**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구인들처럼 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모두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연비가 좋은 친환경 소형차보다는 강력한 마력을 자랑하는 큰 차를 선호하는 ‘생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글쓴이는 도입(起)과 마무리(結)에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겉으로는 지구의 온난화를 걱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연료효율보다 자동차의 외양이나 파워를 더 좋아하는 생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서술한다.

본론의 첫 번째 전개 단락(承)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루포의 예를 제시하고, 두 번째 전개 단락(轉)에서는 연료 효율을 높이기보다 자동차의 외양과 파워를 더 좋아하는 의식의 이중성을 비판한다.

두 번째 전개 단락이 바로 한시에서 전구(轉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생각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칼럼은 어떤 면에서 기승전결의 형식을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6)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글

글쓰기란 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떤 실천적 활동을 촉구하는 분명한 목소리(주장)를 내서 독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소통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한 편의 글을 쓸 때에는 무엇보다도 글쓴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 단계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사항은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주제의 글을 쓸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인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로 그에 대해 어떤 해결을 요구하는 데서 생기는 공통의 과제

[문제의식]: 사회적 현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의 과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태도

글의 주장과 논점과 서술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들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서 화제를 만들어 글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개요(Outline)’를 작성한 다음 본격적으로 초고를 쓴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글쓴이의 주장을 구체화시켜 초점화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확보하는 일이다.

넓게 보면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 않은 글은 거의 없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은 물론이고, 실용적인 기술문(記述文)에서조차도 서술 주체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화제나 의제(議題)를 글로 쓸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그에 대한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올바른 논점을 세울 수 있으며, 그 바탕 위에서 바람직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는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해결을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나

간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쓴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사회적 소수자고령화·사회적 양극화 문제 등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시야를 밖으로 돌리면 미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총기사고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는 다음의 글에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예문】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들이 또 있다. 그들은 서울에서 성대하게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반대하는 일부 노동자·농민·예술가 및 일반 시민들이다. 이 사회적 약자들이 모인 시민운동단체들은 이 국제회의가 유럽 및 아시아 무역·금융 시장을 완전 개방시키고, 세계무역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신자유주의 강화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면서 회의 개최를 반대했다.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약자와 약소국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목소리로 간주되어 정부와 매스컴에 의해 무시당했다. 이들은 국제시민단체들과 합류하여 시애틀·프라하에 이어 서울에서 대대적인 회의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주목받지 못하거나 폭도로 비쳐지고, 시위는 경찰에 의해 무참하게 진압되었다. 그리고 국제 시민운동가들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됨으로써 의사 표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 더욱이 문제는 내로라 하는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도 이 회의의 심각성과 반대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후 국제학술회의차 서울을 다녀간 프랑스의 한 좌파 지식인은 한국 지식인들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현택수, 「사회적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라」 중 일부)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식

- ⇒ ▶ 모든 인간은 평등하건만, 다수의 관습과 편견 때문에 고통 받는 신체적·사회적·성적 소수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 ▶ 비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 한 선수에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화려한 올림픽이 끝난 후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에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 ▶ 비장애인과 같은 국가 대표이건만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

분 석

- ⇒ 장애인 대표 선수들은 태릉선수촌같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곳도 없이 물질적·정신적 지원 부족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렵사리 얻은 생업도 포기하고 사비로 훈련에 임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돈이 없어 라면을 끓여 먹으며 기록 경신을 위해 땀을 흘린다.

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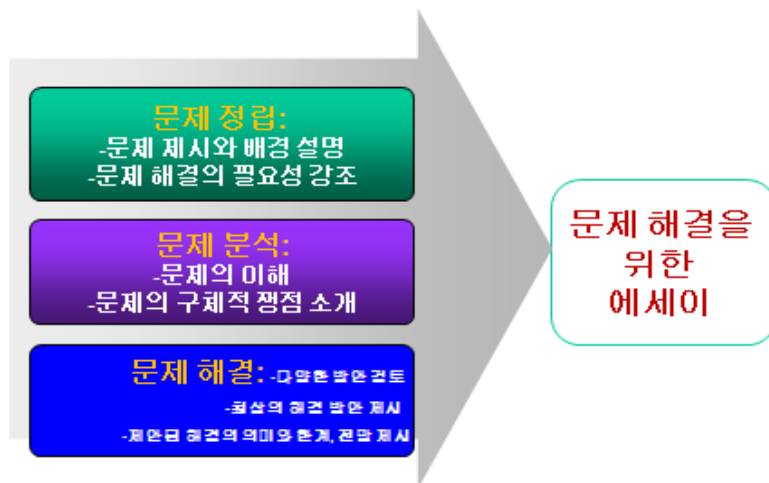
- ⇒ 올림픽이 진정한 인류 전체의 화합과 평화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애인을 동등하게 배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하나의 예로, 글쓴이는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사회적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는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거론한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생물학적 원인이든 사회적 이유에서든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하나의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수의 관습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 소수자의 인권이 억압되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예증으로 글쓴이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온 조선족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 등 경제·계급·정치·사상·문화적 측면에서 차별과 억압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내부에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듣고 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수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그들이 더 이상 설움과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현실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서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과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극복의 방법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그 자체가 복잡한 성질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으므로 단번에 즉각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좀 더 폭넓은 연관 관계 속에서 바라보려는 노력 등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학술에세이의 구조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 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해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분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글을 쓰기 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세밀한 분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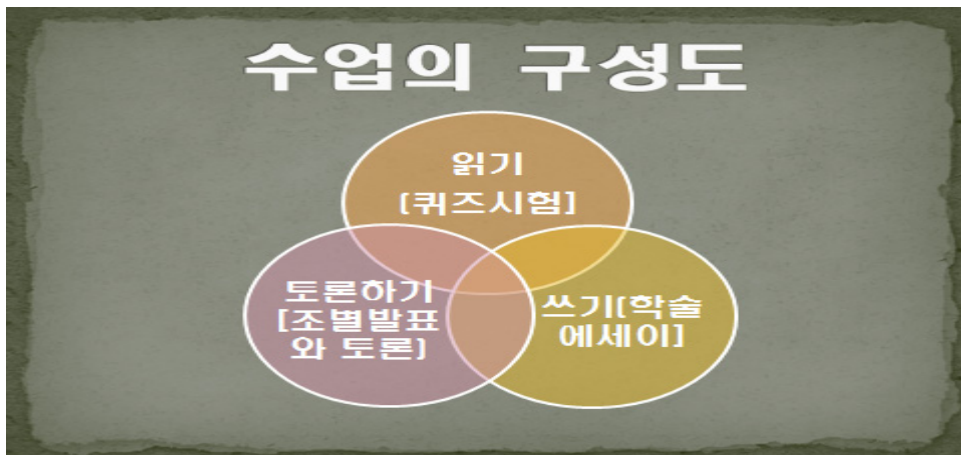
문제 자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좀 더 폭넓은 연관 관계 속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은 주어진 문제의 합리적인 인식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인식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

- ▶ 사안에 담겨 있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전제되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 그 문제에 담겨 있는 여러 요소들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고, 그 요소들을 다시 각각의 성격이나 형태 그리고 그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 분석된 내용들은 그 문제들 사이의 내적인 인과 관계를 밝혀내는 과정을 거쳐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한 편의 글로 구성된다.

7) 읽기를 통한 글쓰기의 실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학습을 통하여

(1) 책 읽기의 과정: 주 텍스트 및 관련 자료 읽기→조별 토론-주제 생성→개요 작성→초고 작성 및 동료 첨삭→퀴즈시험→최종 글 제출→교수 피드백



(2) 글의 장르: 학술에세이 (3,000자 내외)

- 제목(Main-title): 학생 스스로 붙이기
- 부제(Sub-title): 『사기(史記)』에서 배우는 역사의 교훈(또는 지혜)

(3) 텍스트 자료 읽기 및 예비 학습

- 우리나라 최고경영자 사이에서 『사기(史記)』가 필독서 1위인 이유
- 『사기(史記)』의 구성 체제: 本紀-表-書-世家-列傳
- 저자 司馬遷에 대한 이해: ‘태사공(太史公)’ 관직의 임무

“고대 중국, 그러니까 공자(孔子)보다 앞선 시대의 왕실에는 태사공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이 관리의 임무는 공식 문서를 보관하고 왕의 언행을 기록하면서 천상과 지상의 조짐과 징조를 관찰, 해석, 기록하는 것이었다. 가령 하늘에 나타난 혜성을 살펴거나 새들의 이상한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태사공의 임무였다. 이런 조짐은 하늘이 통치자의 국정 운영 방식을 불쾌하게 여긴다는 경고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태사공 직무는 공식 기록의 유지에서부터 점성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주를 필요로 했다. 이 때문에 태사공 직책은 종종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세습되었다. 기원전 2세기에 중국의 두 유명한 태사공, 즉 사마담(司馬談)과 그의 아들 사마천(司馬遷)은 인류의 위대한 역사서로 남게 되는 책을 편찬했다.”(클리프턴 패디먼·존 S. 메이저, 앞의 책, 72~73쪽)

- 사마천이 선택한 ‘궁형(宮刑)’의 이해

“좀 끔찍하기는 하지만 궁형을 어떻게 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으므로 우선 고향을 포함해서 성기 전체를 끈으로 묶어 신경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칼로 통째로 잘라냅니다. 그럼 요도, 즉 오줌 구멍만 남는데 거기다 큰 거위털을 박아 둡니다. 거위털이 요관인 셈입니다. 그렇게 한 뒤 누에를 치는 잠실(蠶室)에 보냅니다.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몸에 찬 기운이 들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죄인을 무슨 황토방으로 보낼 수도 없으니 잠실에 보내서 몸을 추스르게 합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백 일 정도 뒤에 오줌이 나오면 수술이 성공한 것이고 오줌이 안 나오면 요독증(尿毒症)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궁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80퍼센트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중국학자들도 있습니다.”(강신주 외, 『인문학 명강』, 258쪽)

(4) 학생들이 선택한 학술에세이 제목 (22명)

- ‘공자를 통해 반성하는 한국 사회
- 증삼살인과 우리 사회의 공론장(公論場)
- 역사는 짧고 인생은 길다
- 『사기(史記)』에서 배우는 겸손과 섬기는 리더십
- 살아있는 권력, 그러나 미완(未完)의 리더십
- 『사기(史記)』가 알려주는 삶의 지혜
- 인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
- 『사기(史記)』에 나타난 균형
- 수평적 의사소통의 중요성
- 영어에 빠진 대한민국
- 숨기기엔 너무 큰 존재, 돈
- 춘추필법의 자세와 분서갱유
-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
- 공자님, 왜 여기에……
- 『사기(史記)』를 읽고 처세를 생각하다
- 박수칠 때 떠나라
- 하늘의 역사, 인간의 역사
-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 ‘도전’
- 연횡책과 정의
- ‘발상의 전환’의 사례집, 『사기(史記)』

5. 마치며 - 독서와 표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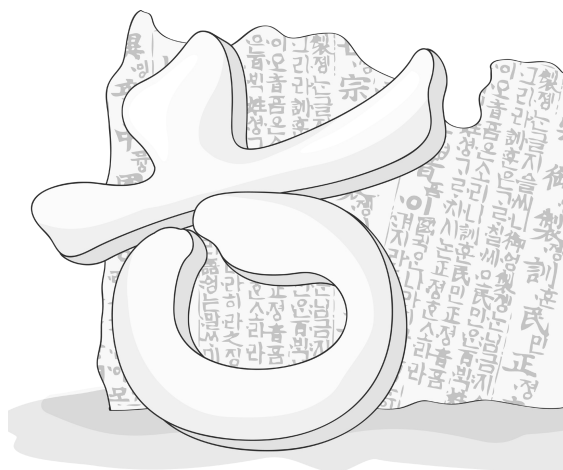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원칙 하나를 더 떠올려 보자. 중국 송나라 때의 유명한 문장가 구양수는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고 하였다. 이른바 삼다설(三多說)이다.

좋은 글을 쓰는 데는 왕도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많이 쓴 글을 찾아서 두루 읽고(多讀), 폭넓고 깊게 사색을 하면서(多商量) 많이 써보는(多作) 가운데 훌륭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 구양수만이 아니라 글을 읽고 쓰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칙을 늘 좌우명으로 새겨두고 있다. 이처럼 삼다설은 옛 시절의 글쓰기에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사항이다.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많이 써보지 않고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읽기와 쓰기는 상호 부조적이고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국어 정보 활용법

권 미 영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국어 정보 활용법

권 미 영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국어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공된 정보를 소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오면 정면에 국어사전 검색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9년에 표제어·뜻풀이·용례 등 모든 부문에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을 적용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들었다. 이 사전은 총 3권의 종이 사전으로 출간되었으며 2001년에는 컴퓨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사전(CD 형태)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사전의 오류를 수정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2008년에 사전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공되고 있는 사전이다.

1.1 사전 정보

사전에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단어에 대한 여러 정보가 실려 있다. ‘가리키다’를 예로 들어 사전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검색 칸에 ‘가리키다’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가리키다’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다’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다’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 둘은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 01과 02로 나뉜 것이다. ‘가리키다02’는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가르치다01.”로 되어 있다. 이는 ‘가리

키다02'는 '가르치다01'로 가라는 뜻으로,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과 같이 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다음으로 '가르키다01'을 통해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 보자.



가리키다01 발음 듣기

활용 정보: [가리키어[---어/---여](가리켜, 가리키니)]

발음

활용

품사

「동사」

「...을」

「가리키다」

문형

뜻풀이

용례

「가리키다」는 손가락이나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린다.

예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리켰다./시냇바늘이 이미 오후 네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나는 형사에게 뒷덜미를 잡힌 채 막사 안을 둘러다보며 자고 있는 두 사람을 가리켜 주었다.

이 내민 김 씨가 눈으로 시령의 돈을 가리켰다. <한수산, 유민>

「가리키다」 ((주로 가리켜, 팔로 쓰여)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예 모두들 그 아이를 가리켜 신동이 낫다고 했다./사람들은 동네 변쪽, 서에 변쪽 하는 그를 가리켜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했다.

【<가르키다> <가르치다> <가르치다> <역상>】

어원

- 1) 발음 : 단어의 발음을 알려준다. '가리키다' 옆에 '발음 듣기'를 누르면 그 단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 '발음 듣기'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나, 표기와 발음이 다를 경우 단어 옆에 발음을 제시해 두었다.

안다01 [안 : 따] / 찾다[찾따]

- 2) 활용 정보 : 동사나 형용사에 어미가 연결되면 모습이나 발음이 바뀌는데, 이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사전에서는 '가리키다'의 어간에 '-어'가 연결되면 '가리키어'가 되고 이것이 '가리켜'로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가리키어'가 [가리키어]나 [가리키여]로 소리가 난다는 것도 알려 준다. 이와 달리 명사 뒤에 조사가 연결될 때도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활용 정보에서 알려 준다.

꽃01 [꽃이[꼬치], 꽃만[꼐-]]

- 3) 품사 : 단어의 품사(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품사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4) 문형 : 단어가 동사나 형용사일 때 어떤 문장 성분과 함께 쓰이는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경우 ‘북쪽을 가리키다, 네 시를 가리키다, 사람을 가리키다’ 등과 같이 반드시 ‘~을’과 함께 쓰이므로, 문형 정보에서 【…을】을 제시하고 있다.
- 5) 뜻풀이와 용례 : 사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단어의 뜻과 그 용례를 알려 준다. 실례 뒤에는 그 출전을 밝혔다.
- 6) 어원 : 단어가 15~17세기 문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 준다. 최초로 나타난 형태를 제시하며 그 형태가 바뀌면 함께 제시한다. ‘가리키다’는 “석보상절”에서 ‘ᄭᆞ치다’로 처음 나타났으며, ‘ᄭᆞ치다’가 ‘ᄭᆞ치다’를 거쳐 ‘가르키다’로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2. 사전 검색 방법

누리집에서는 ‘?(물음표)’와 ‘*(별표)’를 이용하면 단어를 찾을 때 좀 더 쉽게 단어를 찾을 수 있다. ‘?(물음표)’는 해당 글자를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다. 글자 한 개를 모르면 ‘?’, 글자 두 개를 모르면 ‘??’, 글자 세 개를 모르면 ‘???’처럼 글자 수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와 달리 ‘*(별표)’는 글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단어들을 찾아준다. 만약 ‘인사말’인지 ‘인삿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인?말’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만약 ‘인*말’로 검색하면 ‘인’으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 모든 단어를 검색한다. 참고로 ‘?’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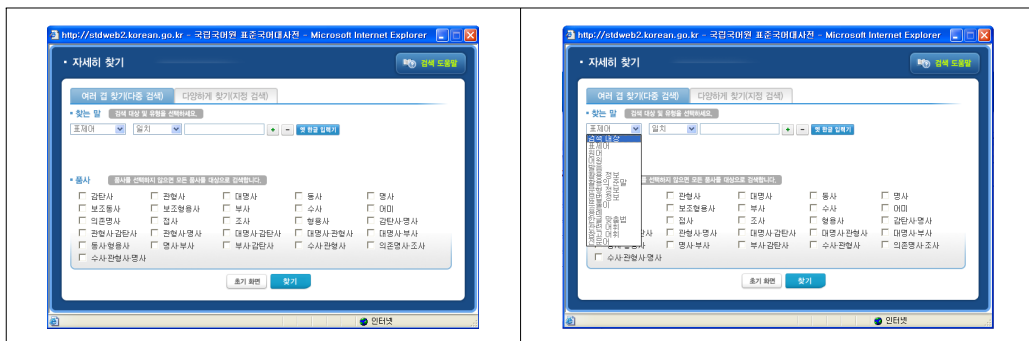
‘인?말’ 검색 결과	‘인*말’ 검색 결과
<div data-bbox="244 1387 574 1432"> <p>‘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2건)</p> </div> <div data-bbox="244 1432 532 1495"> <p>인사-말(人事-)</p> <p>「명사」</p> <p>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p> </div> <div data-bbox="244 1495 361 1564"> <p>인삿-말(人事-)</p> <p>「명사」</p> <p>→ 인사말.</p> </div>	<div data-bbox="682 1338 1193 1362"> <p>‘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6건)</p> </div> <div data-bbox="682 1362 1179 1403"> <p>인말미(人末)</p> <p>「대명사」</p> <p>주로 한자글에서, 말하는 이가 미질(嫌嫌)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대명사). 즉인하02(補下).</p> </div> <div data-bbox="682 1403 785 1444"> <p>인말(人末)</p> <p>「명사」 「민족」</p> <p>인시(寅時)의 끝 무렵.</p> </div> <div data-bbox="682 1444 882 1485"> <p>인사-말(人事-)</p> <p>「명사」</p> <p>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p> </div> <div data-bbox="682 1485 761 1526"> <p>인삿-말(人事-)</p> <p>「명사」</p> <p>→ 인사말.</p> </div> <div data-bbox="682 1526 1185 1568"> <p>인중지말(人中之末)</p> <p>「명사」</p> <p>사람의 세 가운데 가장 못된 것이라는 뜻으로, 대도나 병실이 사람답지 않고 막힌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p> </div> <div data-bbox="682 1568 898 1609"> <p>인중지말(人中之末)</p> <p>「명사」</p> <p>사람 가운데 병실이나 인종이 제일 못한 사람.</p> </div>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구와 속담, 방언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속담은 일반적으로 그 속담의 첫 단어를 알아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속담의 일부분만 알아도 찾을 수 있도록 속담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전 화면 왼쪽에 ‘따로 보기’ 아래에 ‘관용구, 속담, 방언, 북한어, 고유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속담’을 누르면 속담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표제어’에 ‘포함 문자’를 선택하고 찾고자 하는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가 포함된 모든 속담을 찾아 준다. 다음은 ‘말’이 들어간 속담을 검색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용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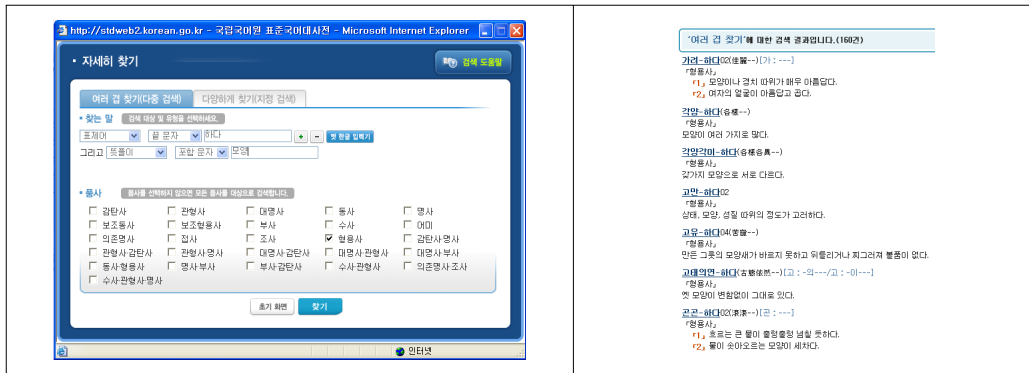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 화면으로 들어오면 검색 칸 옆에 ‘찾기’ 단추 외에 ‘자세히 찾기’ 단추가 있다. ‘자세히 찾기’란 검색 대상을 달리하거나 검색 조건을 세분하여 검색하는 기능으로, 이것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찾기’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원어, 발음, 뜻풀이, 용례 등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조건도 하나 이상 줄 수 있다. 가령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서 뜻풀이에 ‘모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검색할 수 있다.



검색 대상을 우선 ‘표제어’로 설정하고 다음 조건은 ‘끝 문자’를 선택한 후 검색 칸에 ‘하다’를 입력한다. 이것은 ‘하다’로 끝나는 표제어를 찾으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를 누르면 검색 조건식이 하나 더 나온다. 두 번째 조건식의 검색 대상을 ‘뜻풀이’로 두고 다음 조건을 ‘포함 문자’로 둔 후 검색 칸에 ‘모양’을 넣는다. 이것은 뜻풀이에 ‘모양’이 들어간 단어를 찾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품사 중 ‘형용사’를 선택한 후 ‘찾기’를 누르면,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 뜻풀이에 ‘모양’이 들어간 단어들이 모두 검색된다.

2. 어문 규정

국민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어문 규정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이 네 가지 어문 규정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찾기 마당’의 ‘어문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독서와 국어 능력 향상 2013년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교재

한글 맞춤법

첫 화면 > 읽기 마당 >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 총칙
제2장 지모	• 지모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1절 탄소리 • 제4절 모음 • 제2절 구개음화 • 제3절 두음법칙 • 제3절 'ㄷ' 받침 소리 • 제4절 겹쳐 나는 소리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제1절 체언과 조사 •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 제2절 어간과 어미 • 제3절 준말 •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5장 띄어쓰기	• 제1절 조사 •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제3절 보조 용언 •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6장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부록	• 문장 부호

외래어 표기법

첫 화면 > 읽기 마당 > 어문 규정 > 외래어 표기법

용례 보기	규정 보기
제1장 표기의 원칙	<p>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한글 표기 원칙에 따라 제13항으로 제13항.</p> <p>제2항 외래어는 1. 음운론 원칙(자음과 모음)에 따라 제13항.</p> <p>제3항 외래어는 2.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따라 제13항.</p> <p>제4항 외래어는 3.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따라 제13항.</p> <p>제5항 외래어는 4.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따라 제13항.</p> <p>제6항 외래어는 5.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따라 제13항.</p> <p>제7항 외래어는 6.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따라 제13항.</p> <p>제8항 외래어는 7.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따라 제13항.</p> <p>제9항 외래어는 8.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따라 제13항.</p> <p>제10항 외래어는 9.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따라 제13항.</p> <p>제11항 외래어는 10.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따라 제13항.</p>
제2장 표기 방법	<p>제1항 국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2항 로마자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3항 그리스 문자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4항 아랍 문자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5항 힌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6항 중국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7항 일본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8항 베트남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9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10항 몽골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11항 티베트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12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13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14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15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16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17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18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19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20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21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22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23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24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25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26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27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28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29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30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31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32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33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34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35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36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37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38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39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40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41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42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43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44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45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46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47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48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49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50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51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52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53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54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55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56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57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58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59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60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61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62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63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64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65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66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67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68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69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70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71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72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73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74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75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76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77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78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79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80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81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82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83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84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85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86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87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88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89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90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91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92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93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94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95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96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97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98항 캄보디아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99항 네팔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p>제100항 라오스어 용어 기호의 한글 대조표</p>
제3장 표기 예시	<p>제1항 로마자 표기</p> <p>제2항 그리스 문자 표기</p> <p>제3항 아랍 문자 표기</p> <p>제4항 힌디어 표기</p> <p>제5항 중국어 표기</p> <p>제6항 일본어 표기</p> <p>제7항 베트남어 표기</p> <p>제8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9항 몽골어 표기</p> <p>제10항 티베트어 표기</p> <p>제11항 네팔어 표기</p> <p>제12항 라오스어 표기</p> <p>제13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14항 네팔어 표기</p> <p>제15항 라오스어 표기</p> <p>제16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17항 네팔어 표기</p> <p>제18항 라오스어 표기</p> <p>제19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20항 네팔어 표기</p> <p>제21항 라오스어 표기</p> <p>제22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23항 네팔어 표기</p> <p>제24항 라오스어 표기</p> <p>제25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26항 네팔어 표기</p> <p>제27항 라오스어 표기</p> <p>제28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29항 네팔어 표기</p> <p>제30항 라오스어 표기</p> <p>제31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32항 네팔어 표기</p> <p>제33항 라오스어 표기</p> <p>제34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35항 네팔어 표기</p> <p>제36항 라오스어 표기</p> <p>제37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38항 네팔어 표기</p> <p>제39항 라오스어 표기</p> <p>제40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41항 네팔어 표기</p> <p>제42항 라오스어 표기</p> <p>제43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44항 네팔어 표기</p> <p>제45항 라오스어 표기</p> <p>제46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47항 네팔어 표기</p> <p>제48항 라오스어 표기</p> <p>제49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50항 네팔어 표기</p> <p>제51항 라오스어 표기</p> <p>제52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53항 네팔어 표기</p> <p>제54항 라오스어 표기</p> <p>제55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56항 네팔어 표기</p> <p>제57항 라오스어 표기</p> <p>제58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59항 네팔어 표기</p> <p>제60항 라오스어 표기</p> <p>제61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62항 네팔어 표기</p> <p>제63항 라오스어 표기</p> <p>제64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65항 네팔어 표기</p> <p>제66항 라오스어 표기</p> <p>제67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68항 네팔어 표기</p> <p>제69항 라오스어 표기</p> <p>제70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71항 네팔어 표기</p> <p>제72항 라오스어 표기</p> <p>제73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74항 네팔어 표기</p> <p>제75항 라오스어 표기</p> <p>제76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77항 네팔어 표기</p> <p>제78항 라오스어 표기</p> <p>제79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80항 네팔어 표기</p> <p>제81항 라오스어 표기</p> <p>제82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83항 네팔어 표기</p> <p>제84항 라오스어 표기</p> <p>제85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86항 네팔어 표기</p> <p>제87항 라오스어 표기</p> <p>제88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89항 네팔어 표기</p> <p>제90항 라오스어 표기</p> <p>제91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92항 네팔어 표기</p> <p>제93항 라오스어 표기</p> <p>제94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95항 네팔어 표기</p> <p>제96항 라오스어 표기</p> <p>제97항 캄보디아어 표기</p> <p>제98항 네팔어 표기</p> <p>제99항 라오스어 표기</p> <p>제100항 캄보디아어 표기</p>

표준어 규정

첫 화면 > 읽기 마당 > 어문 규정 >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규정	• 제1항 총칙
제2항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제1항 자음 • 제2항 모음 • 제3항 준말 • 제4항 단어 표준어 • 제5항 복수 표준어
제3항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제1항 고어 • 제2항 한자어 • 제3항 방언 • 제4항 단어 표준어 • 제5항 복수 표준어
제2부 표준 발음법	• 제1항 총칙
제2항 자음과 모음	• 자음과 모음
제3항 음의 길이	• 음의 길이
제4항 발음의 발음	• 발음의 발음
제5항 음의 명확	• 음의 명확
제6항 경음화	• 경음화
제7항 음의 첨가	• 음의 첨가

로마자 표기법

첫 화면 > 읽기 마당 > 어문 규정 > 로마자 표기법

용례 보기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방법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ㅑ	ㅕ	ㅛ	ㅟ	ㅢ
a	eo	o	u	eu	i	ae	e	oe	wi	

1. 이중모음

ㅑ	ㅓ	ㅗ	ㅜ	ㅕ	ㅛ	ㅟ	ㅢ	ㅑ	ㅕ	ㅛ	ㅟ	ㅢ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어문 규정’에는 각 어문 규정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가령 ‘한글 맞춤법’의 ‘제6절 겹쳐 나는 소리’를 누르면 ‘겹쳐 나는 소리’와 관련된 조항인 제13항이 나온다. 그런데 조항을 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있으나, 왜 그렇게 쓰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조항마다 ‘해설’을 함께 제공한다. 조항 아래에 있는 ‘해설 보기’를 누르면 왜 그렇게 쓰는지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는 어떻게 쓰는지 설명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맞춤 규정 >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목차 보기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에 걸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배함.)

ㄱ	ㄴ	ㄱ	ㄴ
막막	막막	꽃꽃하다	꽃꽃하다
씩씩	씩씩	늘늘하다	늘늘하다
씩씩	씩씩	늑늑하다	늑늑하다
똑똑똑똑	똑똑똑똑	밋밋하다	민밋하다
씩씩씩씩	씩씩씩씩	씩씩하다	씩씩하다
연연불망(連連不望)	연연불망	쌔쌔하다	쌔쌔하다
유유상종(優優相宗)	유유상종	쌔쌔하다	쌔쌔하다
누누이(麗麗-)	누누이	잡잡하다	잡잡하다

해설 보기

한글 맞춤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맞춤 규정 >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목차 보기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에 걸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배함.)

ㄱ	ㄴ	ㄱ	ㄴ
막막	막막	꽃꽃하다	꽃꽃하다
씩씩	씩씩	늘늘하다	늘늘하다
씩씩	씩씩	늑늑하다	늑늑하다
똑똑똑똑	똑똑똑똑	밋밋하다	민밋하다
씩씩씩씩	씩씩씩씩	씩씩하다	씩씩하다
연연불망(連連不望)	연연불망	쌔쌔하다	쌔쌔하다
유유상종(優優相宗)	유유상종	쌔쌔하다	쌔쌔하다
누누이(麗麗-)	누누이	잡잡하다	잡잡하다

해설 보기

‘막막’, ‘씩씩’ 등은 의성어 ‘막’, ‘씩’이 겹쳐진 형태(疊聲)이며, 한자어 ‘연연(連連)’, ‘유유(優優)’, ‘누누(麗麗)’ 등도 겹쳐진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꽃꽃하다’, ‘늘늘하다’, ‘늑늑하다’ 등에서 ‘꽃’, ‘늘’, ‘늑’은 의미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원칙 예시어와 오프트 예시어) 유형이 마찬가지로 동일 음절, 혹은 유사 음절이 중첩되는 형식이므로, 본 항에서 일괄 다루었다.

다만,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제11항 불합 1 규정을 적용하면 ‘연연(連連)’, ‘유유(優優)’, ‘누누(麗麗)’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대 : 난-], [유유-], [누 : 누-]로 굳어져 있는 것이므로, 관용 형식을 취하여 ‘연연-’, ‘유유-’, ‘누누-’로 적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예로 ‘노노법사(老老法師)’, ‘요요무론(孝孝無論)’, ‘요요(孝孝)’도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제2 음절 이하에서) 본문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날날(날날하다)	날날(날날하다)	늑늑(늑늑하다)
늘늘(늘늘하다)	연연상(連連相)	잡잡불망(雜雜不望)
억억(億億하다)	연연(連連하다)	적나라(赤絲裸하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규정을 찾아 직접 표기해 볼 수도 있지만 ‘용례 찾기’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원어나 한글 표기를 넣고 ‘찾기’를 누르면 원어의 바른 한글 표기를 알려 준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역시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로마자로 표기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그 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려 준다.

외래어 표기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어휘·용어 정보 > 외래어 표기법

원어 찾기

규정 보기

전체

국가

국명/지역

한문/영문/한자/성명/영문/영문

검색 결과: 49651건

원어소

기타소

번호	원어 표기	한글 표기
49651	Torres (Casanova), Sandra	토레스 (카사노바), 샌드라
49650	Kirch, Leo	키르히, 레오
49649	Chávez (Frias), Aden	차베스 (프리아스), 아덴
49648	朱凱(Zho Min)	주민
49647	Swayze, Patrick (Wayne)	스웨이즈, 패트릭 (웨인)
49646	Sandberg, Sheryl	샌드버그, 셰릴
49645	Mujawar, cAbi Muamrad (통용 로마자: Mujawar, Abi Muhammad) 아랍 어명: علي محمد سوير	무자위르, 알라 무함마드
49644	Murray, Douglas	마리, 다글러스
49643	Murdoch, James (Rupert Jacob)	머독, 제임스 (루퍼트·제이콥)
49642	Niemi, Lisa	니에미, 리사

로마자 표기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어휘·용어 정보 > 로마자 표기법

원어 찾기

규정 보기

전체

국가

번호	무리말	로마자 표기
12803	가글통	Gagyesong-dong(O) Kagesong-dong(O) Gakeyong-dong(O) Kageyong-dong(O)
12802	가게 해수욕장	Gagye beach(O) Kage beach(O)
12801	가게	Gagye(O) Kakey(O) Kagey(O)
12800	가죽	gagok(O) Gagok(O) kakok(O) galok(O) kakok(O)
12799	가죽통	Gagok-dong(O) Kagok-dong(O) Galok-dong(O) Kakok-dong(O)
12798	가죽면	Gagok-myeon(O) Kagok-myeon(O) Galok-myeon(O) Kakok-myeon(O)
12797	가교변	Gagyeobi(O) Gakyobi(O) Kageyobi(O) Kakyebi(O)
12796	가금면	Gageum-myeon(O) Kageum-myeon(O) Gakeum-myeon(O) Kageum-myeon(O)
12795	가나안	Ganaan(O), Kanaan(O)
12794	가남면	Ganam-myeon(O) Kanam-myeon(O) Kanam-mysin(O)

3.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이란 어문 규범이나 어법, 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곳이다. 가령 ‘가십시오’가 맞는지 ‘가십시요’가 맞는지 궁금할 때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날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다. 화면 윗부분에 있는 검색 칸에서 ‘질문 제목’이나 ‘질문 내용’을 설정한 후에 ‘가십시오’나 ‘가십시요’를 넣고 검색하면 ‘가십시오/가십시요’와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 검색된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답인지 알 수 있다.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첫화면 > 문의응답 >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이곳은 주로 규범이나 어법,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곳입니다.
간단한 사항은 가나다 전화 1599-9979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두 단어 조합 검색 방법 : 단어와 단어 사이에 AND 를 삽입(예 : 가 AND 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 자료 보기 질문내용 가십시요 **검색** 전체 옛 한글 사용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	바른표기	박가영	2010.02.08.	17
	→ 댓글 가십시오, 오십시오	온라인가나다	2010.02.09.	17
3	문익드립니다.	박희숙	2008.12.26.	19
	→ 댓글 ~십시오 (맞춤법)	이수연	2008.12.29.	19
2	안녕히 가십시오/시요	이강길	2008.02.25.	116
	→ 댓글 ~십시오 (맞춤법)	임현열	2008.02.26.	116
1	종결형어미에 ‘~요’ 사용을 허용합니까?	홍미균	2007.12.20.	187
	→ 댓글 안녕히 가십시오. (맞춤법)	국립국어원	2007.12.21.	187

<< 처음 < 이전 | 다음 > 끝 >>

글쓰기

답변 제목: 가십시요, 오십시요

작성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자** 2010.02.09.

안녕하십니까?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이므로, ‘가다, 오다’의 여간 ‘가-, 오-’ 뒤에 ‘~십시오’를 붙여 ‘가십시요./오십시요.’와 같이 적습니다. 종결 어미 ‘~셔요’는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으로,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방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질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안 남기고 직접 전화를 해도 된다. 국립국어원은 ‘가나다 전화(1599-9979)’라는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가나다 전화로 전화해서 국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 보면 상담원이 바로 답을 알려 준다.

그리고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에 들어오는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질문 300여 개를 모아 ‘자주 나오는 질문’에 정리해 놓았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는 ‘로써’와 ‘로써’의 차이, ‘들려서/들러서’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있음/있슴’ 중 어느 것이 맞는지부터 부고하는 요령이나 단자 쓰는 법, 세배 인사법 등 국어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다.

1 자주 나오는 질문 원화면 > 질의응답 > 자주 나오는 질문

공공적인 단어를 검색하면 입력하신 단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누리집 이용 안내**를 이용해 주세요

제목

번호	원부	제목	작성일	조회
9		‘로써’와 ‘로써’의 차이	2000.05.31.	14371
8		‘친구 집에 들러서/들러서’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31.	10682
7		‘고마워요’와 ‘고마워요’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2840
6		‘있음’과 ‘있슴’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5871
5		‘곤색’이 ‘갈색’로 읽히는지?	2000.05.29.	12953
4		‘귀여롭가’와 ‘귀여웁가’ 중 맞는 표기는?	2000.05.29.	14443
3		수평변을 ‘늘오는’ 것입니까, ‘나는’ 것입니까?	2000.05.29.	13658
2		‘나’와 ‘네’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5889
1		‘너대’와 ‘넌대’는 어떻게 다릅니까?	2000.05.29.	24738

<< 처음 < 이전 41 42 43 다음 > 끝 >

2 자주 나오는 질문 원화면 > 질의응답 > 자주 나오는 질문

공공적인 단어를 검색하면 입력하신 단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누리집 이용 안내**를 이용해 주세요

제목

번호	원부	제목	작성일	조회
429		부고하는 요령	2008.01.21.	6663
428		문자 봉투 쓰는 법 ①	2008.01.21.	4798
427		할순 간치의 속리금 봉투와 단자	2008.01.21.	2642
426		조위금 봉투와 단자	2008.01.21.	3073
425		문자 봉투 쓰는 법 ②	2008.01.21.	2480
424		문자 봉투 쓰는 법 ③	2008.01.21.	3061
423		물상 것을 때 인사말	2008.01.21.	5608
422		장년 퇴임 때 인사말	2008.01.21.	3189
421		방문한 것을 때 인사말	2008.01.21.	4461
420		복문세배	2008.01.21.	2684

<< 처음 <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끝 >

4. 공공언어 지원

4.1. 순화어와 ‘우리말 다듬기’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쉽고 규범적인 상태로 또는 고유어로 바꾸어 쓰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를 ‘순화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순화어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첫 화면의 ‘찾기 마당’을 누른 후에 ‘어휘·용어 정보’에 ‘순화어’로 들어오면 된다.

순화어 자료 역시 검색이 가능하다. 가령 순화 대상어로 ‘나시’를 찾으면 ‘나시, 소테나시, 에리나시’ 등이 검색된다. ‘나시’에 들어가면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순화한 용어만 쓸 것’이라고 되어 있다. 즉 ‘나시’, ‘소테나시’를 쓰지 말고 ‘민소매’를 써야 한다.

독서와 국어 능력 향상 2013년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교재

순화어

첫화면 > 찾기화면 > 어휘, 용어정보 > 순화어

1981년 순화자료집(1977~1991 종합)부터 2002년 순화자료집까지 21,000여 개의 순화어를 종합한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2003년)**과 2005년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해 순화한 발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순화대상어

번호	순화 대상어	원어	순화어	권장
4	나시	← そでなし일..	민소매	
3	소데나시	袖なし, そでなし..	민소매(옷)	
2	에리나시	裸なし	민것	
1	에리나시	裸なし, えりなし 일..	민것	

<< 뒤를 <매번 1 다음>를 >

나시

순 화 어:	민소매
원 어:	← そでなし일
순 화 정 도:	× : 순화한 용어만 쓸 것
의 미/용 레:	패션 디자인
비 고:	국연1999(고시)

순화어에는 ‘나시’처럼 순화한 용어만 쓰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순화한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는 것과 둘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가드

순 화 어:	수비수
원 어:	guard
순 화 정 도:	→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
의 미/용 레:	운동경기(핸드볼)
비 고:	국연2001

가세

순 화 어:	집안 형편
원 어:	家勢
순 화 정 도:	○ :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한 용어를 모두 쓸 수 있음
의 미/용 레:	행정
비 고:	국연1992

최근 인터넷에 오르는 글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 외래어가 부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럴 해저드, 풀 옵션, 시스루, 플래시몹’ 등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다.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이름자 이름 비밀번호

- 내가 다듬고 싶은 말
- 어떻게 바꿀까요?
- 이 말에 한 표
- 어떻게 바꿨어요?
- 상용 번외성 분
- 이미 다듬은 말
- 우리말 자료실

우리말이 아파요!

* 외래어, 외국어를 마구 써서 우리말이 위험해요.
* 이번 우리가 직접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요.

오늘에 이디를 가든지 온돌 논에 띄는 것은 외래어 (미니언 외래어)입니다.
제거할 시대. 국정을 시(다)해서 그들(가)을.
아무런 그(가)만으로도 을 나(가)라는 는(가)라 불(가)지 않습니까?
국(가)들이 너무 조(가)에 보(가)입니다.

이번 회 다듬을 말 투표

풀옵션(full option) | 2011.7.5. ~ 2011.7.1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16	‘롤 모델(role model)’은 ‘분모기상’으로	우리말	2011.07.05.	140	5
315	‘포커 페이스(poker face)’는 ‘무표정’으로 (17)	우리말	2011.06.21.	346	6
314	‘바리스타(barista)’는 ‘커피전문가’로 (29)	우리말	2011.06.07.	557	12
313	‘오버 페이스(over pace)’(하디)’는 ‘무리(하디)’로 (20)	우리말	2011.05.24.	695	26
312	‘콜업(call kili)’은 ‘박음머’로 (116)	우리말	2011.05.10.	1628	93
311	‘러브 샷(love shot)’은 ‘사랑탄’로 (42)	우리말	2011.04.26.	1418	15
310	‘치킨 게임(chicken game)’은 ‘활상승부’로 (3)	우리말	2011.04.12.	1407	10
309	‘엑코 드라이빙(ecco-drive)’은 ‘전원정원전’으로 (1)	우리말	2011.03.29.	996	59
308	‘로하스(LOHAS)’는 ‘건강공생’로 (4)	우리말	2011.03.15.	938	4
307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는 ‘정보부착’로 (9)	우리말	2011.03.01.	1236	5
306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관광취업’으로 (10)	우리말	2011.02.15.	844	2
305	‘블랙 소비자(black consumer)’는 ‘약력소비자’로 (1)	우리말	2011.02.01.	942	3
304	‘런칭 쇼(launching show)’는 ‘신제품 발표회’로 (1)	우리말	2011.01.18.	899	5
303	‘스카니진(skinny jeans)’은 ‘형식화바지’로 (10)	우리말	2011.01.04.	1700	7
302	‘P(Private Label)상품’을 ‘자책가책상품’으로 (1)	우리말	2010.12.21.	924	4
301	‘와이파이(Wi-Fi)’는 ‘근거리무선망’으로 (9)	우리말	2010.11.23.	1819	10
300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는 ‘공동구매’로 (1)	우리말	2010.11.23.	1337	10
299	‘타운하우스(town house)’는 ‘공동주택주택’으로 (1)	우리말	2010.11.09.	1181	9
298	‘멀티탭(multi-tap)’은 ‘모뎀콕’로 (7)	우리말	2010.10.27.	1719	16
297	‘슬로시티(slow city)’는 ‘참살이지역’으로 (4)	우리말	2010.10.12.	1336	12
296	‘선루프(sunroof)’는 ‘지붕형’으로 (9)	우리말	2010.09.28.	16241	12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에서는 어려운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과 바꾼 단어를 알리는 일을 한다. 이곳에서는 다듬고 싶은 말을 건의할 수도 있고, 바꿀 단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듬을 말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4.2. 공공언어 지원 요청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책 용어와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공공언어 지원’이라는 누리집을 만들었다. 이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지원’을 요청하면 각 기관에서 다듬고 싶은 말이나 문장을 다듬어 준다.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www.korean.go.kr/publang)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질의응답’ 아래에 있으며, 첫 화면 오른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공공언어 지원을 받고 싶으면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에 들어와 요청 신청을 작성하면 된다. 이 공공언어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원 요청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지 실명 확인을 한다.

실명 확인을 한 후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낱말’인지 ‘문장’인지 선택하면 된다. 행정 용어나 정책 용어 순화를 원하면 화면의 요청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대로 작성하면 되고, 문장의 교열이나 교정을 받고자 하면 작성한 문장을 파일로 올리면 된다.

독서와 국어 능력 향상 2013년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교재


공공언어 지원						
지민 요청 현황						
개화면 > 자료 요청 현황						
연호		내역		연월	처리	종료
142	조계 사립규구 경장안 자료 [내용불가]	문장	박치영	2011-07-15	0	
141	조선조복록 형편취지서 한대익 표기해당 대한 국사	날말	조동현	2011-07-15	접수	2
140	조계정자와 관련하여 사용중인 적대방목 결구도	날말	김갑국	2011-07-13	완료	0
139	한산의사(박경원) 관공리(박정호) 관공리(박정호) 관공리(박정호)	날말	김갑국	2011-07-13	완료	0
138	장성군 역로 지도는 언제 [내용불가]	날말	김정희	2011-07-12	완료	0
137	장성군역로변에 설치되어있는 관수요청	날말	이상원	2011-07-11	완료	3
136	공민왕이 10월6일 지방을 [내용불가]	그 밖	김현숙	2011-07-07	완료	13
135	전주에 있는 김충 공민왕 [내용불가]	그 밖	한희숙	2011-07-06	완료	0
134	공민왕이 전주에 있는 김충 공민왕 [내용불가]	문장	김희숙	2011-07-06	완료	0
133	공민왕이 전주에 있는 김충 공민왕 [내용불가]	그 밖	한희숙	2011-07-05	완료	0

5. 온라인 강의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는 어문 규정을 직접 볼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배움 마당’의 ‘온라인 강의’로 들어오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과목은 말 그대로 어문


규정 중 ‘한글 맞춤법’ 규정을 알려 주는 강의이다. 어문 규정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궁금했던 예들로 수업을 진행해 한글 맞춤법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로그인](#)

[홈](#)

[도서관](#)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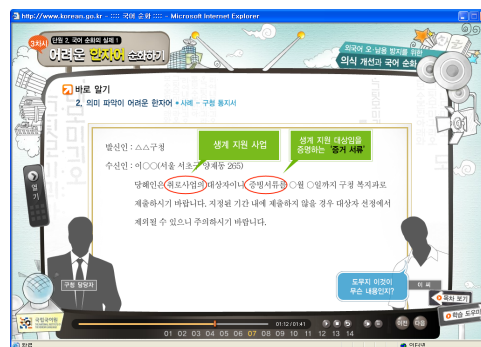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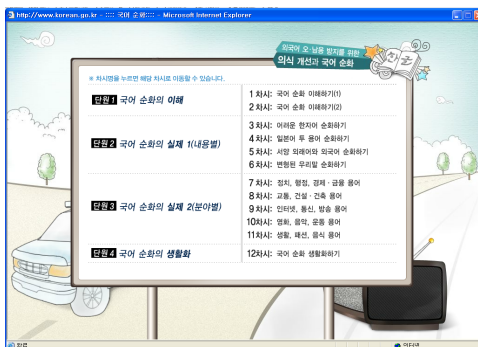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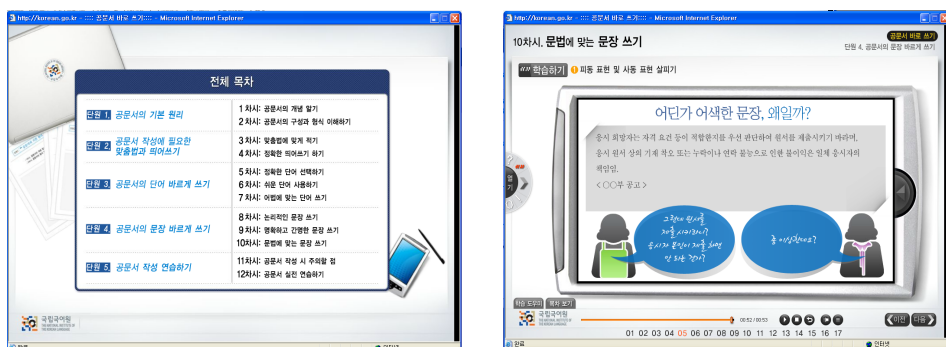
‘새터민 발음 교육’은 새터민을 위한 온라인 강의이다. 새터민의 발음과 억양은 남한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다. 이것을 고치고 싶어 하는 새터민을 위해 다른 발음이나 억양을 중심으로 발음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음을 녹음해서 들어 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외국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강의는 국어 순화와 관련된 강의이다. 국어 순화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 주고,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행정 용어 등을 살펴 본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함께 공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문서 바로 쓰기’는 공문서를 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이다. 공문서를 쓸 때 필요한 어문 규정이나 문장 바르게 쓰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실제 예를 들어 잘못된 곳을 찾고 고쳐 보기도 한다.



6. 디지털 박물관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있다. 한글문화의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역사관은 한글(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보여 준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의 문자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 주며, 세계 여러 문자의 역사도 소개한다.

조형 예술관은 글자의 모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글의 자형의 변천 과정과 한글 글꼴 개발의 역사를 설명하고, 다양한 글꼴을 보여 준다. 그리고 글꼴 개발 산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학술 정보관은 한글 관련 문헌들을 정리한 곳이다. 한글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원문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문헌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한글문헌통합정보’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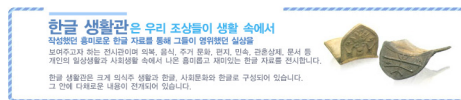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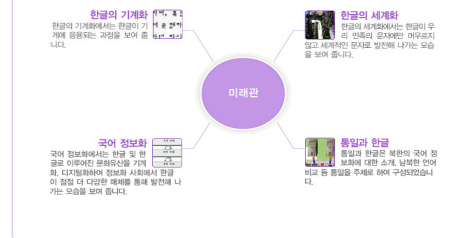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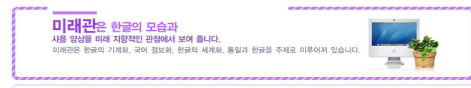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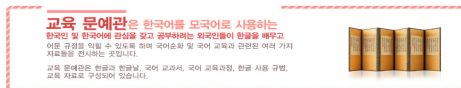


교육 문예관은 한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어문 규범과 국어 교육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곳이다.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 국어 관련 교육 자료도 제공된다.

미래관은 한글의 모습과 사용 양상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여 준다. 한글의 세계화와 기계화, 국어 정보화 사업을 소개한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어문 규정을 소개하고 남북한 언어도 비교해 놓았다.

한글 생활관은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을 주제로 한 한글 관련 문헌을 전시한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한글 문헌과 사회상을 반영한 한글 문헌을 소개한다.

독서와 국어 능력 향상 2013년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교재



7.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를 국외에 보급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자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 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배움 마당’의 ‘한국어 교육’에 들어오면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기본 교재’, ‘이주민을 위한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로 나뉜다. 한국어 교사이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건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이면 모두 교재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면 ‘한국어세계

이주민을 위한 고지	한국어 기본 고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안내지
<p>1. 대성공회대만교회와 합창하는 한국어 1~4</p> <p>▶ 대성공회대만교회가 한국에 정착을 통해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함.</p> <p>▶ 교인들 스스로 교육과 세 명의 대성공회대만교회, 미국에 주요인물로 등장함.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성령을 사용하며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고지 ▶ 전지적 보기 ● 음성 자료 (MP3) ▶ 노래방기 (USB) 	
 <p>합창하는 한국어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고지 ▶ 전지적 보기 ● 음성 자료 (MP3) ▶ 노래방기 (USB) 	
 <p>합창하는 한국어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고지 ▶ 전지적 보기 ● 음성 자료 (MP3) ▶ 노래방기 (USB) 	

8. 국립국어원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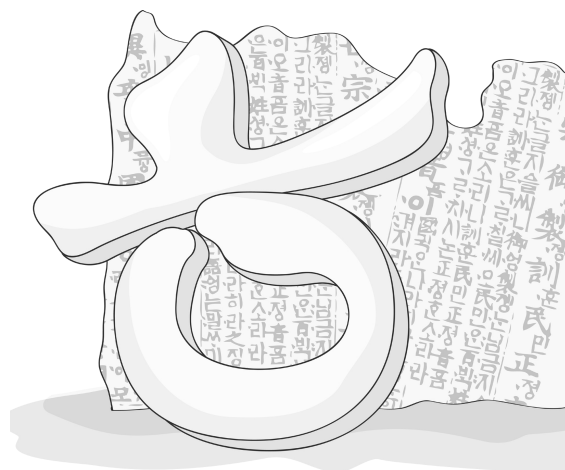
[illegible]

<p>국어원 소식지</p>  <p>제 70호 심표, 마침표.</p>	<p>정기 간행물</p>  <p>제 21권 제 2호(여름) 새국어생활</p>	<p>국어 연감</p>  <p>국어 연감 2010 2010년 국어 연감</p>
--	--	--



문학으로 여는 세상 -정보 사회와 문학-

문 흥 술 |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문학으로 여는 세상 -정보 사회와 문학-

문 흥 술 |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I. 문학의 의의

1. 좋거나 나쁜 작품
2. 문학은 경험세계의 모순을 비판하고 그 모순이 극복된 가능세계를 지향
3. 지배담론 비판과 인간다운 삶 지향

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

II. 근대 자본주의

1. 인간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 폭력적인 이항대립체계
 - 중심: 인간/이성/의식/남성/육체/물질/도시/서양/자본가
 - 주변: 자연/비이성/무의식/여성/영혼/정신/농촌/동양/노동자

2. 자본주의 문제점

- 1)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 2)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3. 자본주의 전개과정: 인간이성중심주의에 입각한 이항대립체계의 변화

증기기관차	비행기	우주선
이항대립	무화	해체
자연=기계	자연=유기체	

III. 정보사회와 지구촌의 시대

1. 사이버 지구촌의 시대=정보사회

표면: 이항대립의 해체

이면: 초월적 중심부에 의한 지배

* 원형감옥(panopticon)

- 1) 상품물신주의
- 2) 가상현실(simulation)
- 3) 파시스트적 속도

- ② 사무실 정중앙의, 지름 2미터의 원통형 기둥. 소방서의 망루 같기도 하고 교도소의 망대 같기도 한 감시탑. 투명한 유리로 둘러쳐진 그곳에서 등장은 직원들을 노려보다. 전기자동 회전장치가 위잉-하고 돌아가는 원형감시탑에서.

- 구효서 <스프링클러의 사랑>, <<확성기가 있었고 저격병이 있었다>>

- ③ 그에게는 두 남녀의 모습이 아우슈비츠의 지옥 같은 가스실에서 상대방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스스로도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장면을 연상시켰고, 거대한 수중 동물의 뱃속에서 남보다 늦게 소화되기 위하여 서로의 등을 떠미는 작은 물고기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삶이란 결국 죽음이라는 동물의 내장 속에 들어 앉아서 천천히 소화되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라는 일종의 깨달음이 가슴빠근하게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 최수철, <<고래뱃속에서>>

- ④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다. 욕망에 휩싸인,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초고속 유성이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다.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번쩍거리는 불빛은 이들의 꿈과 같구에 계속 불을 붙이고 있다. 이 작은 사각의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무력하게 가속도에 몸을 내맡긴다.

- 송경아, <엘리베이터>

- ⑤ 난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미국말식으로 소리낸 한국말이었다. 그것은 한국말 오염의 극치였다. 뜻을 더럽히더니, 급기야 소리까지 난도질이였다. 그의 얼굴에 닭살이 돋았다. 물의 오염에, 말의 오염에. 목숨이 재경각인데 문화라고 성할쏘냐. 문화가 만신창이인데 목숨인들 무사하랴.

- 서정인, <<붕어>>

2. 정보사회의 양면술

1) 획일화된 일상성/ 욕망의 획일화

⑥

압구정동은 체제가 만들어낸 욕망의 통조림 공장이다
국화빵 기계다 지하철 자동 개찰구다 어디 한 번 그 투입구에
당신을 넣어보라 당신의 외꾸를 디밀어보라
(.....)

그 국화빵 통과 제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압구정동 통조림 통 속으로 풍덩 편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곳 어디를 둘러보라 차림새의 빈부 격차가 있는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욕망의 평등 사회이다

패션의 사회주의 낙원이다

가는 곳마다 모텔 텔런트 아닌 사람 없고 가는 곳마다 술과 고기가 넘쳐나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미국서 똥구루마 끝다 온 놈들도 여기선 재미 많이 보는 재미 동포라 지화자. 봄날은 간다—
(……)

—유하,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2〉

⑦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의 방편적 가치이며, 이 양자는 본질적 가치인 정신문화적 가치인 방편적 가치이다.(제목 미상, 70중질, 12.5 X 18.3)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볼 때 세계는 〈하나의 존재물이 아니라 순전한 현상이며 의미화signification이다.〉(제목 미상, 70중질, 12.2 X 18. 8)

권력이 국가로부터 초국가적 기업으로 이양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제목 미상, 백색모조, 15.2 X 22.3) (구효서, 〈아이 엠 어 소피스트〉, 위의 책)

2) 멀티미디어 상상력의 세계-가벼운 주말여행과 같은 것(억압된 상상력의 세계)

3. 문학의 대응방식

1) 정보사회의 양면전술 인식

2)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 영도의 글쓰기, 기호적인 것, 상상적인 것: 모든 이데올로기의 거부. 오염되지 않는 욕망의 글쓰기(동일성의 세계 지향)

⑧

아름다운 산책은 우체국에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편지는
사나흘을 혼자서 걸어가곤 했지요
그런 발효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가는 편지와 받아볼 편지는
우리들 사이에 푸른 강을 흐르게 했고요
(…)

— 이문재, 〈푸른 곰팡이-산책시 1〉

⑨

호수 깊은 곳으로 검은 돌 하나가 가라앉고 있네
나비들은 허공의 물결인 듯 뚝단배의 길을 열고 있네

그 사이로 흐르는 지상의 음악소리

내가 촛불을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는 유일한 꿈
천 개의 촛불이 애태우며 꿈꾸는 유일한 나

나무들,

- 박정대, 〈나무들〉

IV. 문학을 통한 사회적 문제 인식과 그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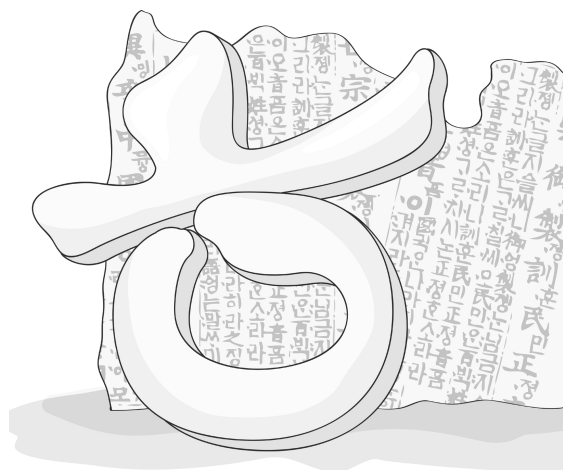
1. 예외적 개인으로서의 작가
 - 역사의 방향성을 문제 삼음
2. 문학을 통해 사회, 역사적 총체적 측면을 인식
3.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



나를 찾는 독서

-당신은 삶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부제: 무엇을 어떻게 꿈꿀 것인가?)

이 철 환 | '연탄길' 작가



나를 찾는 독서

-당신은 삶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부제: 무엇을 어떻게 꿈꿀 것인가?)

이 철 환 | '연탄길' 작가

I.

먼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내 아버지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아버지의 눈물

폐차장으로 일 나가는 아버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막말을 들으며 온종일 망치질을 하셨다. 엄마는 동대문에 있는 음식점에서 온종일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며 푼돈을 받아오셨다. 엄마, 아버지에게겐 코뿔소의 뿔이 없었다. 바람 한 줄기 치받을 수 있는 염소의 뿔도 없었다. 내가 어릴 적, 엄마 아버지는 자주 싸웠다. 가난 때문이었다. 늦은 밤, 단칸방에 잠들어 있던 어린 자식들은 천둥 같은 아버지 고함소리에 깨어났다. 술 취한 아버지는 밥상을 집어 던졌다. 누나가 울었다. 형도 울었다. 나도 울었고 엄마도 울었다. 아버지가 무서웠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형과 나는 잘못을 빌었다. 잘못도 없이 잘못을 빌었다. 형과 나는 그 만큼 어렸다. 자정 넘어 싸움이 그쳤다. 우리는 울음을 그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창문 밖, 달빛은 평화로웠다. 눈물 젖은 달빛이 돌도 되고 셋도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떡국을 밥상에 올리셨다. 설날 아침이었다. 김치 하나에 떡국이 전부였다. 계란만 올려진 초라한 떡국이었다. 찌그러진 밥상에 둘러앉아 우리들은 말없이 떡국을 먹었다. 젓가락 순가락 부딪치는 소리만 들렸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침묵 사이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떡국을 먹던 아버지가 울음을

터트리켰다. 아버지는 안으로 안으로 울음을 삼키켰다. 울음소리는 삼켜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우셨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을 글썽였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왜 우셨을까 두고두고 생각했다. 전 날 밤에 있었던 일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사는 게 힘드셨을 지도 모른다고 스치듯 생각했다. 세월이 많이 지났다. 나도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가 되어 알게 되었다. 가난한 밥상에 둘러앉은 가난한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그 옛날 우리 아버지 눈물 흘리셨다. 푸르렀던 아버지는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이다.

남자들이 하기 어려운 말이 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얼마 전, 친구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왔다.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친구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다. 친구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친구는 시간만 있으면 예배당으로 갔다. 아버지가 깨어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친구는 기도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 만이라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친구는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 후, 친구 아버지가 깨어나셨다. 친구가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친구는 아버지 손을 잡고 목이 메여 말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개를 한 번 끄덕이시고, 영영 눈을 감으셨다. 친구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나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다. 끝끝내 하지 못한다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다.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훗날 별빛을 바라보며 말할 것 같았다. 용기가 생기지 않아 내내 망설이기만 했다. 어느 새벽,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어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껏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저를 업고, 엄마는 형을 업고 눈 덮인 산 길을 걸으셨지요. 그 시절이 눈에 잡힐 듯 아주 가깝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고, 텅텅이 늙어 버리신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낯설어 마음 많이 아팠더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으로도 자식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가을에 말린 예쁜 과꽃 한 송이를 편지 아래 붙이는데 눈물이 나왔다.

다음 날,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비 내리는 고모령' 테이프를 사 가지고 산을 넘어갔다. 어머니를 거실로 불렀다. 나중에 읽으시라고 당부 드리며 편지를 드렸다. 어머니와 함께

'비 내리는 고모령'을 들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에 부영새도 울었다고요. 나도 울었소~. 애절한 노래였다. 이 노래를 좋아하는 연유를 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가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주 오래 전, 칠십을 넘기신 외할머니가 서울에 오셨을 때 이야기였다. 외할머니는 딸들 보고 싶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외삼촌 등에도 업히며 서울에 오셨다. 여러 날을 딸들과 함께 보내고 헤어지는 날, 외할머니는 내 엄마인, 막내딸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 기차 떠날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기차 타려고 사람들은 뛰어가는데, 외할머니는 막내딸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 외할머니는 가난한 막내딸 손에 아무도 모르게 돈을 쥐어주셨다. 큰 딸에게 받은 용돈까지 모두 내어 주셨다. 손을 놓지 않으려는 늙으신 엄마의 손을 놓고 돌아서는 길, 막내딸은 소리 내어 울었다. 그 날이 엄마의 손을 잡은 마지막 날이었다고, 늙으신 내 엄마 울면서 말하셨다.

다음은 '소통'과 '진실'과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초등학교 다닐 적이었다. 우리 가족은 형편이 더 어려워진 탓에 조그만 집들이 모여 있는 산동네로 이사를 갔다. 아버지는 하루하루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예전처럼 어린 자식들을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고 웃음마저 잃어 가는듯했다. 공부를 방해하는 우리 형제 때문에 누나가 공부방을 조를 때 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픔을 삼켰다. 하루는 내가 다 떨어진 운동화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볼멘소리로 엄마를 향해 말했다. “엄마, 아이들이 내 운동화보고 뭐라는 줄 알아? 거지 신발이래, 거지 신발!”

옆에 있던 형이 나를 툭 쳤다.

아무 말이 없던 아버지는 엄마로부터 돈을 받아들고 술 한 병을 사 가지고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곰팡이 핀 벽을 향해 돌아앉아 말없이 술을 마셨다.

밤늦은 시간부터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산동네 집들을 송두리째 날려 보내려는 듯 사나운 비바람도 몰아쳤다. 칼날 같은 번개가 캄캄한 하늘을 찌 하고 갈라놓으면, 천둥소리가 사납게 으르렁 거렸다. 비 오는 날이 계속되면서 곰팡이 핀 천장에는 동그랗게 물이 고였다. 빗물이 한 두 방울 씩 떨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빗물이 방울져 내렸다. 엄마는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걸레 대신 양동이를 받쳐 놓았다.

“이걸 어찌나, 이렇게 비가 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손 좀 볼 걸 그랬어요.”

엄마의 다급해진 목소리에도 돌아누운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아버지는 그 며칠 전 오토바이와 부딪쳐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잠시 뒤, 아버지는 한쪽 손에

갑스를 한 불편한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 아픈 날이면 언제나 그랬듯 아버지는 엄마에게 돈을 받아두고 술을 사러 천둥치는 밤거리로 나갔다. 밤 12시가 다 되도록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에선 여전히 천둥소리가 요란했고, 밤이 깊을수록 우리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엄마와 누나는 우산을 가지고 대문 밖을 나섰다. “우리도 나가볼까?”

아버지를 찾으러 나간 엄마와 누나마저도 감감 무소식이자 형이 불쑥 말했다. 형과 함께 나도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다.

아버지를 찾아 동네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비바람 소리만 장례행렬처럼 웅성거릴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집 앞 골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우산을 받쳐 든 엄마와 누나가 지붕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저기 봐!”

누나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검은 그림자는 분명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서 사나운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갑스한 팔을 겨우 가누며, 빗물이 새는 깨어진 기와 위에 앉아 우산을 받치고 있었던 거였다. 비바람에 우산이 날아갈까 봐, 한 손으로 간신히 우산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몹시 위태로워 보였다. 형과 나는 엄마 뒤로 천천히 걸어갔다. 누나가 아버지를 부르려 하자 엄마는 누나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가엾어도 지금은 아버지를 부르지 말자. 너희들과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가 저것마저 하실 수 없다면 더 슬퍼하실 지도 모르잖아.”

엄마는 목이 메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들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난을 안겨주었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을까.

그날 밤 아버지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 가족들의 가난을 아슬아슬하게 받쳐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족의 든든한 지붕이 되고 싶었던 거였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아픔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가 겪은 아픔도 우리의 삶을 밀고 가는 힘이 되는 것 같다. '아픔도 길이 된다.'는 이야기로 강연의 끝을 맺을까 한다.

오래 전 한 여자를 사랑했었다. 초등학교 다닐 적 같은 반 친구였다. 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다녔고, 그녀는 이화여대에 다녔다.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를 만나기 전, 기름때 절은 손가락을 닦아야만 했다. 칫솔을 문지르며 지우고 또 지웠지만 기름때는 지워지지 않았다. 기름때를 벗기려고 살갓을 벗겨냈다. 이화여대 앞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여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학교 진입로를 걸으며 나는 난장이가 되어버렸다. 학교 앞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만났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예쁜 그녀는 상냥히 웃어주었다. 작아지지 않으려고 저는 책 이야기만 했다. 칸트와 샤르트르와 마르크스와 랭보를 이야기하며 잘난 체했다. 열등감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작은 나를 감추고 싶었다. 다시 만나자고 하면 만나 줄 그녀였다. 정도 많고 이해심도 많은 그녀였다.

다시 만나자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와 나는 삶의 방식이 달랐다. 그녀와 나는 수직과 수평이 달랐다. 가난할지도 모를, 소설가가 내 꿈의 전부였다. 마음 어둡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산도 버리고 비를 맞았다. 빨개진 손가락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왔다. 그날의 절망과 열등감은 두고두고 저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다. 그 후 세월은 물고기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어느 날, 이화여대 채플 시간에 강연 초대를 받았다.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오래 전에 좋아했던 여자 친구가 생각났다. 강연 당일,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안 상처로 남아 있는 제 안의 열등감을 치유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가 모순이지만, 서로가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빛과 어둠으로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보면 아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아픔은 단지,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픔은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픔 없이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야만 빛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들은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진실을 배울 수 있고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끝으로 몇 년 전에 쓴 글 하나를 낭독하겠다.

당신과 나는 들꽃이었으면 좋겠습니다(낭독)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김밥을 좋아하시는지요.
나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하는 건,
사람들 가슴속에 소풍이라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김밥을 만들 때 김밥 속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치자색 단무지와 계란, 분홍색 햄,
초록색 시금치나 오이, 주황색 당근…….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김밥 속은 앞마당의 꽃밭처럼 화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밥 속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김밥은 빨리 상해 버린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것도 꼭 김밥 속 같습니다.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도 빨리 상해 버리니까요.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낮아질까 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하니까요.

당신과 나는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겠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꿈이 너무 많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불 하나를 켜면 별 하나가 멀어지니까요.
꿈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도 조용히 불을 끄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들꽃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피워야만 사랑받는 장미도 되지 말고,
 언제 꺾일지 몰라 불안해하는 백합도 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피고 지는 들꽃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아름답게 흔들릴 줄 아는 들꽃.
 아무 곳이나 피어나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 그런 들꽃 말입니다.
 제비꽃, 달맞이꽃, 패랭이꽃, 자운영꽃, 아기별꽃, 양지꽃…….
 들판 가득 엄마의 눈물처럼 피어 있는 이 꽃들은
 여치 울음소리,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영혼의 키를 키울 줄 아는 들꽃입니다.
 보슬보슬한 흙 위에 누워
 밤하늘 북두칠성을 바라보는 눈빛 맑은 들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어떤 꽃이 되고 싶으신지요.
 당신의 가슴속 아픔이 아름다운 꽃이 될 거라 믿겠습니다.
 당신과 나, 강물보다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기 바란다.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다. 아픔은 길이 된다. 아픔 없이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어두워야만 빛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II.

1.

축의금 만 삼천 원

오래 전,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예식장 로비에 서서 친구를 찾았지만 친구는 끝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바로 그때 친구 아내가 토막 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여덟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어찌나, 예식이 다 끝나버렸네……." 숨을 몰아쉬는 친구 아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석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석민이 아빠가 이 편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친구 아내는 말도 맺기 전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고 등 뒤의 아기는 굳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철환아 결혼 축하한다. 나대신 아내가 간다. 하루를 벌여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장 사이기에 이 좋은 날 너와 함께할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만 삼천 원이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던 날, 흙 속을 뚫고 나오는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내겐 있으니까.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 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오늘은 너의 날이다. 이 좋은 날 너와 함께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 다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 해남에서 형주가

편지와 함께 들어 있던 만 원짜리 한 장과 천 원짜리 세 장…….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 친구가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이었습니다.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까 봐, 멀리서도 저를 보고 있을 친구가 마음 아파할까 봐,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아도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 가운데 서서…….

친구가 결혼식에 오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온종일 겨울바람을 맞으며 장사한 탓에 친구는 얼굴에 심한 동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얼굴 반쪽이 몹시 홍측하게 부어오른 자신의 얼굴 때문에 결혼식날 제 마음이 아플까 봐 친구는 아내를 대신 보냈던 것입니다.

2.

내 이름은 콘트라베이스입니다

내 이름은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첼로를 닮았지만 첼로보다 몸집이 더 큰 악기입니다.

나는 늘 오케스트라 무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무대 앞에 앉아서 청중의 박수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높고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도 소중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누군가 다가와 내 소리가 아름답다고 말해 줄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고음이 아니라 저음입니다.

내가 맡은 저음은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음이 있어야 고음도 빛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가진 저음으로 나는 다른 악기들과 멋진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청중석에 앉아 있는 당신과 가장 멀리 있지만,

그래서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내 이름은 콘트라베이스입니다.

3.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

이제,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남지 않았다.

사람들이 켜 놓은 불빛 때문에
별들은 하나 둘
서울 하늘을 떠나버렸다.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

내 몸에 불을 켜다.
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내 몸에 불 하나를 켜 때마다
사랑도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갔다.

나를 켜면 사랑도 멀어진다.

나는 이제 캄캄한 어둠이 되었다.
불빛 때문에.
내가 켜 불빛 때문에.

4.

자전거 도둑

어느 늦은 밤이었다. 고물상 마당에 나갔던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져 헐레벌떡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여보, 누가 자전거 빌려갔어?” “아뇨!” “자전거가 없어졌는데!” “자전거가 없어져요? 가게 안쪽에다 들여놓지 않으셨어요?” “응, 설마 했지.” 아버지는 몹시 언짢은 얼굴로 방문을 나가셨다. 산동네 이곳저곳을 살피고 온 아버지는 시르죽은 얼굴이셨다. 비록 녹이 슨 짐자전거였지만 사라져 버린 자전거는 아버지에게 더 없이 소중한 물건이었다. 무척이나 뒤숭숭한 밤이었다. 추운 날, 학교를 마치고 교문을 나올 때였다. 학교 후문에서 한 아저씨가 오라궁둥이 같은 솜사탕을 팔고 있었다. 순간 내 시선이 솜사탕 아저씨의 자전거에 꽂혔다. 안장에 녹이 슨 모양새며 오른쪽 페달 반쪽이 떨어져나간 것이 아버지의 자전거임이 분명했다. 나는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우리 학교 앞에 아버지 자전거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아버지 자전거에서 솜사탕을 팔고 있어요!” “뭘? 솜사탕을? 자세히 본거야?” “그럼요!” 나는 가쁜 숨을 할딱거리며 토막말을 했다.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앞세웠다. 학교 후문은 아이들의 쫓알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아버지, 저기여. 저기 저 자전거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주저주저 몇 걸음 다가서다가 주춤 뒤로 물러섰다. 솜사탕 아저씨는 자전거 옆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그 옆에 아기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와 함께였다. 부부는 시들한 김치 하나로 추운 길거리에 앉아 허겁지겁 찬밥을 먹고 있었다. 솜사탕 아저씨가 슬픈 눈빛으로 아주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돈을 다 마련해야 할 텐데……. 수술비는 얼추 마련됐으니까 입원비 얼른 더 벌자고.” 솜사탕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엄마 등 뒤에서 잠든 아기의 새파란 얼굴을 어루만졌다. 솜사탕 아저씨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나는 흥풍향풍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때 우두망찰하던 아버지가 내 손을 끌며 말했다. “가자! 저건 우리 자전거 아냐!” “우리 자전거 맞잖아요.” “글쎄, 아니라도!” 아버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민주낼 수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방문 밖에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여기 좀 나와 봐요.” 나는 아버지를 따라 열린 밖으로 나가보았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고물상 마당 가득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곳에 아버지의 자전거가 순례자처럼 하얗게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쌓인 눈 위로 누군가 살금살금 들와왔다 나간 발자국이 다문다문 찍혀 있었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사과들이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빼알간 얼굴을 비비며 소복소복 흰 눈을 맞고 있었다.

5.

춤추는 해오라기

푸른 강가에 해오라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해오라기는 콩알만 한 돌맹이를 부리로 콧 꺾어 강물 위로 던졌습니다. 해오라기가 던진 돌맹이가 날파리 같은 먹이인 줄 알고 피라미 한 마리가 강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해오라기가 번개처럼 날아가 피라미를 낚아챘습니다. 새순처럼 싱그러운 해오라기 머리뎡기가 바람에 산들산들 날렸습니다. 어느 날, 송글송글하게 생긴 낚시꾼 한 명이 강가로 왔습니다. 낚시꾼은 기다란 낚싯대로 피라미들을 잔뜩 낚아 올렸습니다. 낚시꾼이 가져온 물고기망 속에는 은빛 피라미들로 출렁거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해오라기는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피라미들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해오라기는 기뻐했습니다. 깊은 밤, 낚시꾼은 잠을 자러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오라기는 물고기망이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해오라기는 물고기망 속에 있는 피라미들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낚시꾼은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고기 망 속엔 피라미들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해오라기가 모조리 먹어치운 것입니다. 물고기망 속에는 물고기 대신 해오라기가 갇혀있었습니다. 물고기망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오라기는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꼬옥한 눈으로 해오라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오라기 네 놈이 올 줄 알았다. 남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만날 흠쳐 먹으니까 그렇게 좋으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아야……. 미안하지만 오늘 잡아 놓은 피라미들은 너를 잡기 위한 미끼였어. 속았지? 이놈아, 네가 아무리 춤을 춰 봐도 물고기망을 빠져나올 수는 없어. 오늘은 너를 잡으려고 일부러 주둥이가 좁은 물고기망을 가져왔거든. 들어갈 때는 쉬웠지만 나오기는 힘들 거다." 해오라기는 씨근벌떡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아무리 애를 써 봐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촌촌한 물고기망에 다리까지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오라기는 낚시꾼이 놓은 함정에 꼼짝없이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해오라기는 미처 몰랐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더 많은 함정이 숨어있다는 것을…….

6.

눈물은 힘이 세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숲을 바라보았다. 스트로브잣나무 위로 내리는 함박눈이 아름다웠다. 어두운 하늘을 내려온 눈송이들이 내 가슴에 가만가만 쌓였다. 사방은 고요했고 눈송이들은 햇빛은 겨울나무들을 포근히 감싸주고 있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눈길을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었다. 누군가 만들어 놓고 간 눈사람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가로등 밑에서 눈사람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눈사람의 웃음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았다.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내가 어릴 적 우리 집 마당엔 아무에게나 꼬리를 흔들어주는 ‘순둥이’라는 하얀 개가 살고 있었다. 순둥이는 강아지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란 영리한 개였다. 눈 내리는 어느 겨울 밤, 순둥이는 새끼를 일곱 마리나 낳았다. 순둥이 집에 낳은 담요를 깔고 새끼를 받아내던 아버지가 나를 향해 나직이 말씀하셨다.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순한 개도 새끼를 낳으면 자기 새끼 지키려고 사나워지니까…….” 눈도 못 뜬 어린 새끼들이 빨간 몸을 바들바들 떨며 어미 품속을 파고들었다. 살겠다고, 살겠다고,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새끼들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아버지는 순둥이 집 위에 수북이 쌓여 있던 눈을 털어내고 이불로 감싼 뒤 비닐까지 덮어주었다. 그날 밤 나는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 순둥이 집 옆에 세워 주고 방으로 들어갔다. 눈송이들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문풍지를 쓸어내렸고,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아 눈 내리는 마당을 나는 몇 번이나 내다보았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말씀대로 순둥이의 눈빛은 이전보다 사납게 변해 있었다. 가장 친했던 나의 발걸음조차도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부모가 되고나면 왜 더 용감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지 순둥이를 보며 나는 알게 되었다. 그 후 순둥이 새끼들은 젖을 떼 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우리 집을 떠났다. 새끼들이 떠나는 날이면, 순둥이도 나도 온종일을 슬퍼했다. 새끼들을 데려갈 때마다 순둥이와 새끼들을 한참동안 쓰다듬어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누구의 생(生)이든, 어떤 생(生)이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어렵פות이나마 알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뻐했던 일도 많았고 슬퍼했던 일도 많았다. 그토록 기뻐했던 시간들은 어디로 갔고, 그토록 슬퍼했던 시간들은 어디로 갔을까. 불빛을 향해 달렸던 시간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기쁨은 기쁨보다 멀리 있었고 나를 돌아보게 한 건 언제나 아픔이었다.

기쁨은 나의 의지였지만 아픔은 생(生)의 의지였다. 기쁨이 짧은 웃음을 남겨두고 내 곁을 떠나갈 때도, 아픔은 내게 길을 가르쳐주었다. 기쁨도 나를 꿈꾸게 했지만 아픔도 나를 꿈꾸게 했다. 아픔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주었고, 감사를 가르쳐주었고, 진실을 가르쳐주었다.

함박눈을 맞으며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겨울은 눈 내리는 밤으로 깊어지고, 생(生)은 눈물의 힘으로 깊어진다.

그렇게…… 눈물은 힘이 세다.

7.

곰보빵

곰보빵, 너는 아니?

너의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는 거…….

못된 사람들이, 아이의 아빠를 곰보라고 불렀어.

아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곰보빵, 너를 먹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사람들은 너에게 곰보빵이라는 이름 대신,

소보로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

아이는 그 때부터 곰보빵, 너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

사랑이란 거, 어려운 게 아냐.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활짝 핀 꽃처럼 그냥 한 번 웃어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야.

8.

아버지의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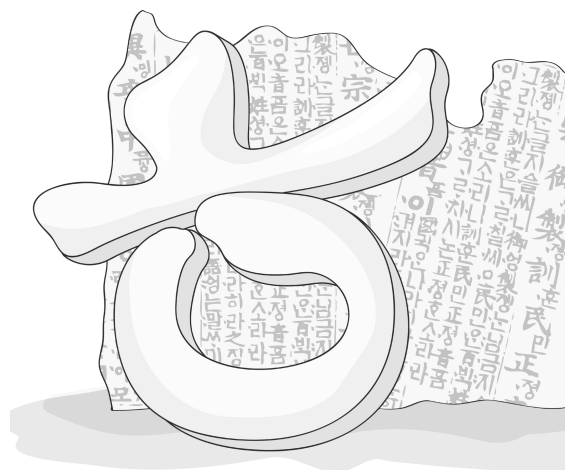
어머니와 다투시고 나간 아버지가
 막걸리 한 병에 건빵 한 봉지를 사가지고 돌아오셨다.
 술을 사온 아버지가 측은하게만 보였던 건 왜였을까?
 아버지는 양지 바른 마루에 앉아 말없이 술을 마셨다.
 아버지가 깊은 숨을 쉴 때마다
 아버지 그림자를 밟으며 코뿔소 한 마리가 쿵쿵 지나갔다.
 아버지 몸에서 마른 잎사귀가 떨어져 내렸다.
 파랑(波浪) 같은 시간을 건너는 동안 아버지의 꿈은 부서졌고,
 부서진 꿈을 쥐고 있고 아버지는 맨발이었다.
 아버지의 넓었던 등은 오래 된 문짝처럼 누추했고,
 늙름함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어깨는 불안했다.
 아버지 팔뚝을 타고 흐르던 힘찬 강물도 이제는 길을 잃었다.
 마른세수를 하는 아버지 얼굴에선
 눈길을 걸어가는 사뭇한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별 과일(star fruit)’이라고도 불리는 열대과일 카람볼라(carambola)는
 그 생김새가 별모양 같아, 옆으로 눕혀 썰기만 하면 황금색 별로 접시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데,
 아버지가 찾으려 했던 별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생(生)이 차려준 따뜻한 성찬 한 번 받은 적 없는 아버지였다.
 이사람 저사람 잘난 사람들 눈치를 보며,
 아내와 철없는 자식들 눈치를 보며, 아버지는 외로운 섬이 되었다.
 불빛을 더듬어 먹이를 물어다 키운 자식들은 자신의 삶으로만 분주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풍경 속으로 아버지는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아는 것만을 사랑했다.
 낮설음과 뼈아픔과 외로움을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맹목의 고요를 사랑하지 않았고 지리멸렬과 고양이 울음소리를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비록 술을 많이 드셨지만 아버지는 나와 달랐다.

아버지는 생의 비루함까지 묵묵히 끌어안으셨다.
흰머리 성성한 아버지가 섬처럼 벽 쪽으로 돌아누운 밤이면,
부러진 더듬이를 더듬거리며 나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나를 찾는 독서 -나의 삶, 나의 독서, 그리고 나의 문학-

고 정 욱 | '가방 들어 주는 아이' 작가



나를 찾는 독서 -나의 삶, 나의 독서, 그리고 나의 문학-

고 정 욱 | '가방 들어 주는 아이' 작가

1. 장애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

어린 시절 성탄절 즈음이면 흑백 텔레비전은 예수님 관련 영화를 화면에 띄웠다. 평소
에 보기 힘든 대작 영화들이라 어린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그런 영화를 끝까지 보곤
했다. 그 가운데 한 영화에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장애를 가진 여인에게 다가가
일어나 걷고 싶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인은 의외의 대답을 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을 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준 뒤 무리를 이끌고 지나갔고 여인은 그냥 장애인으로 남았다. 그저
지극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시절 나는 하늘을 원망한 적이 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소아마비에 걸려 장애인이 되었느냐고……. 다른 것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나에게
는 장애가 치명적 약점이었다. 간절히 하고픈 반장도 할 수 없었고, 동네에 나가 친구들과
뛰놀 수도 없었다. 장애는 그야말로 어린 영혼의 족쇄였고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 해도 내 장애의 원인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의 해답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다. 아니, 애초부터 그건 어린아이가 해야 할 질문이나 고민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해맑은 얼굴은 어두워졌다. 어린 시절 찍은 사진 가운데 환하게
웃으며 찍은 것이 변변히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풀리지 않은 고민을 끝없이
해대니 왜 안 그럴겠는가. 장애아였던 나는 그렇게 골치 아프고 해답 없는 문제를 품에
안은 채 성장했고, 매일 만나는 장애의 고통과 그로 인한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경험해야
했다. 때론 싸우고, 때론 무시하고, 때론 무기력하게 당하면서…….

2. 장애는 부끄러운 일도, 상받을 일도 아니다

“정욱이 어머니 졸업식 날은 옷 좀 예쁘게 입고 오세요.”

70년대 초반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방과후에 학교에 온 어머니에게 담임 선생님이 한 말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복장은 늘 작업바지나 월남치마 차림이었다. 장애아인 나를 아침저녁으로 업어서 학교에 데리고 다니려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아니 왜요?”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께서 장한 어머니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늘 기어서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움직였다. 당연히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간혹 아버지가 안아서 동네 한 바퀴를 돌려주면 그건 정말 큰 기쁨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놀상 나가 뛰노는 골목길이 나에게서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장애 소년에게 유일한 구원은 책읽기. 책만 펼치면 나는 톰 소오여와 함께 미시시피 강에서 뗏목을 타고, 달타냥을 비롯한 삼총사들과 모험을 펼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책벌레가 되었다. 밖에 나가 뛰놀지 못하는 대신 나에겐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내 인생에 폭탄이 터졌으니 그것은 바로 취학 통지서였다. 장애인의 운명은 대개 이 취학통지서에 의해 결정된다. 대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수십 년을 머무는 재가(在家) 장애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욱아, 업혀라. 학교 가자.”

어머니는 입학식 날 나를 향해 등을 돌리셨다. 나는 어머니의 그 등에 업혀 5백 미터쯤 떨어진 학교로 향했다. 가슴에 손수건을 매단 또래 꼬맹이들이 업혀서 학교 가는 나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했다. 그 시선은 학교에 가서까지 계속 이어졌다. 나는 비로소 내가 남들과 다른 장애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고난의 행군은 시작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는 나를 업고 학교를 갔다. 지각, 결석 조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침에 한번 학교 교실에 데려다 놓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하다가 오후에 한번 더 학교에 와서 나를 업고 집에 와야 했다. 그 덕에 우리 집은 어머니가 살림을 제대로 할 시간이 부족해 늘 폭탄

맞은 집 같았다. 동생들이 어질러 놓은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초, 중, 고 12년 개근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때론 혀를 끌끌 차는 주위의 시선도 있었다.

“멀쩡한 애가 왜 업혔누?”

“병신인 모양이야.”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마치 못 볼 것 본 것처럼 말해도 어머니는 꾹꿹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땠을지 조금은 상상이 된다. 장애인은 그 주위 가족, 친구까지도 장애의 느낌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점점 자라면서 덩치가 커지는 것도 문제였다. 아이들의 성장은 엄마의 기쁨이겠지만 그런 아들을 업고 다녀야 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고역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한 해 한 해 체력이 떨어지셨을텐데 아들은 점점 더 무거워지니. 봄부터 가을까지는 나를 업은 어머니 목덜미에서 굵은 땀방울 흐르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한번 하신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나를 업은 팔에 힘을 줄뿐이었다.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보는 아들인 나. 어찌 감히 허튼 생각을 할 것인가. 어머니의 그런 땀과 노력과 희생을 헛되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가르침이 나를 휘감아 돌았던 것이다. 어머니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바친 희생의 전형이었다.

장한 어머니 상을 드리겠다는 담임 선생님께 어머니는 감정을 조절하며 말했다.

“선생님.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이 몸이 불편해도 학교 가겠다는데 업어서 나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엄마라면 누구나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왜 상을 주신다고 하세요? 저는 그런 상 안 받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나를 업고 썩하니 집으로 오셨다. 싸늘한 어머니의 얼굴 표정을 처음 본 나는 등에 업힌 채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갑자기 목에 매달린 내 손등 위로 어머니의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그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욱아, 장애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상 받을 일도 아니란다. 그건 너의 운명일 뿐이야. 그러니 주어진 운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라.”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년간 월남에 싸우러 갔을 때도 울지 않으셨다. 아무리 살림살이가 쪼들려 끼니 거리가 부족해도 울지 않으셨다.

그런 어머니가 난생 처음 흐느끼며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던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장애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그 불리함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갈 결심을 비로소 하게 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의 한 구절처럼 나는 장애라는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르게 된 것이다.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한 우리 어머니. 지금은 사남매를 다 키워 내보내시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계신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나는 지금도 운명을 헤치고 세상을 바꾸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3. 땀에 젖은 아버지의 등

부모님은 장애가 있음에도, 혹은 장애가 있기에 강한 호기심을 가진 나를 위해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거나 하면 최대한 보여주려 애쓰셨다.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한다. 토요일 오후에 귀가하신 아버지는 나와 동생들에게 새로운 산업 전람회를 구경가자고 하셨다. 그건 물론 나의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함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업고 여의도로 택시를 타고 가셨다. 요즘이야 안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구경거리가 무척 적을 때였다. 게다가 요즘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도 않은 시절이니 구경거리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당연했다. 여의도 광장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나를 업고 그 줄을 보신 아버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줄의 앞부분으로 다가가 서있는 중,고생들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이, 학생들. 미안해. 우리 애가 몸이 불편해서 새치기 좀 하자구.”

아버지의 녀석에 중,고생 형들은 순순히 자리를 양보해 주어서 나는 긴 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화끈거리기만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의 그런 마음을 묵살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갖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미 장애로 인해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거나 생활하기 어려울 바에는 비장애인들이 편의를 봐주고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다.

나중에 커서 내가 미국 등의 선진국을 다녀보니 장애인의 줄서기라는 건 아예 있지도 않은 것이었다. 아무리 긴 줄이 늘어져 있어도 장애인은 언제나 맨 앞. 디즈니랜드를 갔을 때 미국 사는 조카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고모부. 하루에 디즈니랜드 다 볼 수 없어요. 너무 줄이 길어요.”

그러나 이게 웬일. 휠체어를 탄 내가 나타나자 각종 놀이기구 앞에 섰던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오라고 하더니 제일 먼저 태워주는 것이 아닌가. 덕분에 신이 난 건 조카였다. 하루만에 그 많은 놀이기구를 줄서지 않고 다 타볼 수 있었으니, 꿈인가 생신가 싶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새치기하는 마음은 당시로선 선진적(?)인 발상이었다. 물론 당신의 속내는 나를 업고 오랜 시간 줄서 있기 괴로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덕에 나는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제품이던 디지털식 전자시계를 처음 구경했던 게 지금도 기억난다.

그 뒤 중학교 3학년 되던 해 여름이었다. 나는 별로 해보지도 못했으면서 낚시를 좋아했다. 넓은 강이나 호숫가에 앉아 은빛 찬란한 물고기를 낚는 꿈을 늘 꾸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애타는 것이었으리라. 혼자 힘으로는 그 좋아하는 낚시를 다니지 못하는 나를 위해 아버지는 어느 날 낚시도구를 챙겨 동생들과 함께 낚시를 가기로 했다. 직장의 동료들에게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은가를 물어보신 뒤 아버지는 파주 어디쯤의 붕어가 많이 나온다는 오리골 저수지를 알아내신 것이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방학을 했지만 아버지는 휴일이 없기에 7월 17일 제한일이 우리의 D-데이였다. 아버지는 나를 업고 내 동생들은 낚시 가방을 들고, 우리는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찜통 같은 더위에 아버지는 나를 업고 후덥지근한 시외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이윽고 덜컹거리며 출발했고, 우리는 한참 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개구리가 풀 쉼 사이로 튀고 매미소리 요란한 시골길을 아버지는 나를 업고 하염없이 걸었다. 타는 목마름으로 땀은 비오듯 흘러 업힌 나도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얼마를 그렇게 걸었을까. 아버지는 나를 풀 쉼에 앉히고 잠시 쉬었다. 그때 아버지의 등을 질편하게 적시며 흐르는 땀을 나는 보았다.

“아버지 너무 힘드시죠?”

내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워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

“괜찮다. 우리 아들이 낚시를 하고 싶다는데 내가 어딘들 못 가겠냐?”

난 그 말씀에 목이 메었다.

그날 나는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다. 더운 여름날의 대낮 낚시가 잘 될 리 없는 건 상식이었다.

그러나 내가 낚은 것이 분명 있었다. 그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 덕에 나는 1급 지체장애를 가지고도 작가로서 활동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살핀다.

장애가 있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는 법을 배운 것은
오롯이 나의 아버지의 땀에 젖은 등 때문이다.

4. 햄 앤드 에그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는 대개 가벼운 것들이다. 빵에다 간단한 음료와 햄 앤드 에그(Ham & Egg)인 경우가 많다. 식빵에 이걸 넣어서 먹으면 아침 식사가 가볍게 해결된다.

언젠가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동료에게 햄과 에그 중에 어느 게 더 고귀냐고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건 영화 속의 동료나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인 나나 마찬가지였다. 한 끼의 메뉴에 불과한 그것들 가운데 더 고귀한 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인공의 해석은 멋졌다. 햄은 돼지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에그는 일부만 나눠주는 것이기에 목숨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햄이 더 고귀하다는 게 결론이었다.

가만히 생각하니 정말 돼지가 우리에게 햄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친 희생이었다. 한번 바치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고귀한 희생.

그리고 에그는 닭이 만들 수 있는 많은 알 가운데 하나를 주는 것이었다. 이건 협조였다.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담이 적다.

인간은 언제나 관계와 관계 속에서 남의 신세를 지며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말이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인 것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은 대개 햄이나 에그 같은 사람들이다. 희생과 협조를 해준 사람들이다. 그들의 희생과 협조 없이 나는 살 수가 없다. 아니, 인간 자체가 남과 어울려 지낼 수가 없는 것이다.

과연 나는 얼마나 주의 사람들을 위해 많은 희생과 협조를 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루소는 희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 나 자신도 물론 희생하고 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부득이한 의무이다. 때문에 놓고먹는 사람들

모두 다 사기꾼이다. 사기꾼 부류에 속하지 않으려면 일해야 한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한다.

다소 과격하긴 하지만 맞는 말이다.

협조에 대해서도 좋은 말이 있다. <역경>에서 언급한 말이다.

성실한 마음으로 남과 서로 친하고 협조하면 아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마음속에 가득 차서 넘칠 만큼 순수한 성의가 있으면 마침내 생각지 않은 뜻밖의 길한 일이 있을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한때 잘 나가는 수녀원 원장이었다. 인도의 귀족 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장이기도 했다. 그건 에그의 삶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경험하게 된 기차여행에서 수없이 많은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 삶의 패러다임을 희생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안락한 수녀원을 뛰쳐나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처럼 스스로 가난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비로소 가난한 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 인간답게 존경받으며 죽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는 와중에 수없이 많은 오해와 질시와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햄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 두려울 것이 없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두려울 리도 없었다. 테레사 수녀는 심지어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에게서 비난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 그들이 공격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도와줘야 한다고……. 만일 그녀가 에그의 길을 택했다면 아마 오늘날과 같은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부유한 수녀원의 원장 수녀로 이름 없이 사라졌으리라.

나 역시 그렇게 학교를 다닐 때 모든 열정을 바쳤다. 졸업하는 날 우등상을 받았다. 그 우등상이 나만의 노력에 의해서였을까. 결코 아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단내 나는 거친 숨결이 일군 결과였다.

물론 내게는 또 수많은 에그들이 있었다. 나의 가방을 일년 내내 들어다 준 친구들은 부지기수다. 자전거로 학교까지 날 태워다 준 친구도 있었고, 잡다한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은 나의 동생들도 있었다.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 내가 한 일은 별로 없다. 그저 수없이 많은 햄과 에그를 먹은 것 밖에.

이제 나는 내가 받은 햄과 에그를 남에게 돌려주려 애쓰고 있다. 나에게도 아내가 생겼고,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생겼다. 작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햄과 에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햄과 에그를 먹고 여기까지 왔고 또한 누군가의 햄과 에그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고, 더불어 사는 삶 그 자체이다.

5. 세계를 훑쳐 바퀴 삼아

해외에 나가면 누구는 명품 가게를 들르고, 누구는 야시장엘 꼭 가본다고 한다. 대개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에 따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꼭 서점엘 들른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료수집의 의미도 있다. 마음에 드는 책이 눈에 띄면 구매하기도 하고 여의치 않으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도 한다. 한 마디로 직업정신의 구현인 셈이다.

내가 작가가 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첫 저서인 <글힘돋움>이 1990년에 발간되었으니 그렇다. 20년 넘는 세월에 나는 벌써 200권 이상의 책을 발간했다. 프로의 세계는 그런 것이다. 죽기 살기로 자기의 분야에서 정진하는 것.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면 지금의 나는 제법 많은 것을 이루었다. 베스트 셀러도 여러 권 내보냈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도 썼으며, 그를 위해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무엇보다도 전업작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행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꿈은 항상 진화하게 마련. 작은 것을 이루면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 삶의 속성이다. 큰 세상을 살피고 생각의 폭을 넓히다 보면 그렇게 된다.

세계 각국을 여행 다니면 장애를 다룬 동화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임을 알게 됐다. 그 어느 나라도 장애인이 주인공이거나 사건에 등장하는 작품을 우리처럼 많이 발간하지 않았다. 서점에 나가 장애를 다룬 동화나 책을 찾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내가 쓴 작품도 제법 많다.

선진국에 가서 그런 책을 찾으면 몇 권 되지 않는다. 나 같은 장애인 작가가 별로 없을뿐더러 그런 영역을 전문적으로 쓸 필요성이 크지 않단다. 장애인 인권이 그만큼 신장되어서일까? 아니면 이미 사회보장이 잘 되어 더 이상 장애인의 투쟁이나 몸부림이

필요 없어서일까? 그들은 내가 장애를 가졌음에도 치열하게 작품을 써낸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중국이나 몽골, 캄보디아나 아랍권의 나라에 가보니 그곳은 또 다른 양상이다. 장애의 문제는 정말 절박하여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여전히 장애인은 천벌 받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여긴다. 인권 향상과 인간대접은 요원하기 짝이 없다. 아니,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애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도 그걸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문제 제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 작가가 나오기는 더욱 난망이다. 장애인은 아예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면서 장애인 인권 향상이 진행중인 중간 지점에 우리나라가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의 역할과 사명은 명확해진다. 내 삶의 문제가 응축되고 고민이 녹아 있는 내 작품들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단초가 되어야 한다.

휠체어에 몸을 실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세상 곳곳에 장애인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을 널리 알려야 한다. 세상은 어린이의 권리도 보장하고, 여성의 평등도 인정하며, 피부색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바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이며 인격존중이고 차별 금지뿐이기 때문이다. 1급 장애인인 내 어깨가 무겁다.

6. 문학의 여정

아무튼 나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를 다녔고,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1992년에는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어 오늘날까지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소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동화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으며 mbc TV 프로그램 느낌표에서 5월의 선정도서 가 되는 기쁨도 맛보았다. 작가로서 남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동화를 쓸 때 거의 모든 작품에 장애인을 등장시킨다. 주제도 장애인을 위한 것들로 국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에 관련된 동화를 쓰게 된 이유는 내가 장애인인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은 뇌성마비 종식이의 이야기다. 〈안내견 탄실이〉는 시각장애

를 다루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각종 다양한 장애가 그대로 나의 소재가 되었다.

글쟁이로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읽을 만한 글을 선물하겠다고 작정을 한 뒤 나는 장애에 관한 글을 주로 쓰겠노라 마음먹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도전해왔던 내 삶의 작은 결론이기도 하다.

지금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어른들이 살아온 지난 시절은 장애인들을 놀리고, 비하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때였다. 그러한 이들이 커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역시 그렇기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나의 성장기는 그야말로 장애의 투쟁 역사였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나는 의대 입학에 꿈꾸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내 대학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대나 공대 자연계 학과의 입학이 거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국문학.

완전히 다른 세계인 문학전공의 길로 들어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적응하기 위해 애썼고, 배수진을 튼 기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겠다는 생각이었다. 이과적 사고방식을 가지도 문과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곧 적응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어려서 책을 많이 읽은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나의 운명일 수 있다는 확신이 서서히 들었다. 작가로서 성공해 보이고 모든 것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하고 싶다는 일념에 불탔다. 나는 장애만 있을 뿐 다른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7. 불가능한 취업

그 후 나는 취직을 위해 대학에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장애는 이때도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았다. 서류심사에서 1순위여도 마지막 이사장 면접에서 떨어지길 여러 번. 그 덕에 나는 아직도 대학의 시간강사 신세다. 저런 장애인은 사회의 지도층 인사인 자신이 떨어뜨리지 않게 밑에서 알아서 서류심사를 통해 떨어뜨렸어야 한다는 말이 들려온 건 나중의 일이었다.

그러한 어른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는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해 왔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아직도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고 마음껏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없고,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힘들다. 취직, 결혼, 교육…….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될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아침 일찍 일터로 출근해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는 가족과 함께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는 것이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다. 그리고 꼭 지켜내야 할 삶의 기본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이는 그림의 떡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세배 가까이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990년 설립되었을 때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은 0.43%였다. 물론 지금은 2.28%까지 올라왔고 다양하게 직업에 대한 각종 제도를 마련했지만 나와 같은 정신노동의 고학력 장애인에게 열린 직장은 없었다.

특히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가장 보수적인 곳이며, 가장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한 곳이기도 했다. 응모회수가 늘면 늘수록 나와 가족이 받는 상처는 커가기만 했다.

8. 고마운 깨달음

이 무렵 나는 동화를 쓰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전까지 나는 늘 이러한 생각을 가슴 깊은 곳에 갈아 두고 살았다. 왜 하필 내가 장애인이 되어서 이런 천대와 차별을 받아야 하나하고 말이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에서 나는 항상 장애로 인해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교육, 진학, 결혼, 취직 등.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을 후벼파는 것은 장애로 인한 자괴감뿐이었다. 물론 그런 자괴감을 딛고 앞에 놓인 장애물을 돌아가 다른 길을 또 열심히 가곤 했지만,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비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것은 바로 이런 문학을 통해 장애의 고통을 널리 알리라는 뜻임을. 내가 아니면 누가 장애를 글로 써서 남에게 알릴 것이며 어린이들에게 장애인도 우리의 친구임을 깨닫게 할 것인가. 기독교의 시각으로 말하자면 하느님이 나에게 장애를 전더내고 널리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할 만하기에 장애의 굴레를 씌워 이 땅에 내려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 그야말로 소명의식을 갖고 글을 써야 하는 것이다. 불교로 말하자면 이번 생에서는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들의 고통을 직접 느끼면서 그들을 위한 삶을 살면서 업을 풀라는 의미 정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열심히 작품을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할 일이 바로 장애로 인해 의미있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가끔 강연을 가면 어린이 친구들을 만난다. 그때 장애인용 주차장에 차를 댈 것인가, 장애인 친구들 따돌리고 차별한 것인가 등등을 물어보면 큰소리로 ‘아니오’라고 대답해 준다. 그렇게 큰소리로 외치며 대답하는 어린이들의 그 착한 마음이 오래오래 뇌리에 남아 잊혀지지 않는다면 참 좋겠다. 그 어린이들이 훗날 이 세상을 넘겨받고 이끌게 되면 분명 장애인들을 차별하거나 따돌리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두려움도 있다. 아무리 어린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 해도 그 어린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부모들은 여전히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백지 상태의 아이들 마음에 편견이나 냉대의 어두운 색을 칠해버리면 어쩔까 싶다. 그런 때 내 동화가 어린이들의 마음을 다시 하얗게 만들어주고 곱고 영롱한 사랑의 색으로 채색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결국 이 사회를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보다 개선시키는 일은 한 두 가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된다.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변화,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의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가당치 않은 노력이며 당돌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안도 있다. 동료 작가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써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점에 나가봐도 장애인의 날 정도 되면 아예 한 매대가 장애인 관련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다. 물론 거기엔 내 작품도 많지만 다른 동화작가들이 쓴 작품도 많다. 이제 그야말로 장애가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나도 그러니 힘이 나고 외롭지 않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작가들이 부지런히 싸워 줄 테니 말이다. 어린이들도 내 작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장애인 친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희생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잘 몰라서이겠지만 장애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정반대의 시각을 지니거나 결론을 내리는 일은 삼가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통합교육을 부르짖고 있는데 작품 말미에서 엉뚱하게 친구들과 잘 지내던 아이가 특수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다. 그건 장애인들을 안 보이는 곳에 멀리 떼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조장하고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널리 유포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그러한 작품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아찔함을 느낀다.

문학이 장애를 다루는 일, 그것은 상처받고 소외 받은 사람들을 다독겨려 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읽고 가슴 아프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읽고 감동하고 그들이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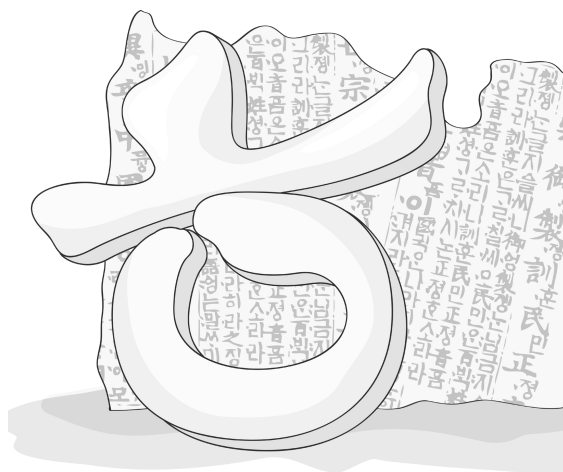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를 다룬 작품을 쓰는 일은 조심스럽고 늘 두렵다. 그리고 과연 내가 쓰는 작품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한 것인가를 항상 반성하게 된다. 더욱 긴장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대목이다.

모든 장애인 더 나아가 비장애인의 롤모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곳으로 만들도록 초석을 놓는 일.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사는 나날. 행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미를 찾는 읽기와 쓰기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가 령 | 경희대 사회교육원



의미를 찾는 읽기와 쓰기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가 령 | 경희대 사회교육원

세상의 이치를 아는 길에는 미루어 아는 것, 그대로 아는 것, 가르침에 의지하여 아는 것이 있다 한다. 여기서 가장 높은 단계의 길은 가르침에 의지해서 아는 것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책 속에 가르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치를 깨달아 간다는 뜻이다. 어떻게 책과 친해지고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는 백인백색의 이론이 있고 경험이 있다. 그 가운데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I. 책과 친해지기

1. 하루 30분을 투자하라

책읽기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바쁜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책을 읽는 비결은 하루 30분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30분은 쪼갤 수 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책을 읽었다는 안철수 교수의 일화는 시간을 쪼개는 비결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책의 종류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루 30분을 투자한다면 하루에 2,30페이지 정도는 읽을 수 있다. 한 주에 200쪽 정도는 읽을 수 있다. 두께가 얇은 책 한 권 분량이다. 없는 시간 속에서 잠시라도 짬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입니다.

① ‘멍’ 하고 있는 시간을 잡아라.

아무리 바빠도 가끔 ‘멍’하니 있는 시간이 있다. 하루에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많은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다. 생각 없이 있는 시간 중 30분만 책 읽기 투자해 본다. ‘멍’하는 시간이 한순간도 없는 사람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② 손에서 휴대전화를 없애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의 액정화면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다. 특별히 중요한 정보를 읽는 경우보다는 무심히 화면을 들여다 보면서 시간을 죽인다. 휴대전화를 없애면 패닉상태가 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독서의 적은 스마트폰이다. 독서를 하려면 휴대전화를 손에서 없애라.

③ 아이의 독서습관이 걱정된다면.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넣어주거나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인간의 배움의 처음은 대부분 모방으로 시작한다. 아이들은 독서습관도 모방으로 배우게 된다. 책 읽는 부모 아래 책 읽는 아이들이 자라난다. 아이들 독서습관을 걱정한다면 당장 책을 들어라.

2. 틈나는 대로 읽어라.(틈새 독서)

30분도 어렵다면 틈틈이 꾸준히 읽는 방법을 쓴다. 언제, 어디서나 5분, 10분간의 책읽기 시간을 확보하라 별도로 독서 시간을 정해 놓기 보다는 시간이 생길 때 마다 책을 펼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항상 책을 갖고 다녀라. 하루 5분을 읽으면 1년이면 30시간이다.

틈새 독서 비결

① 늘 책을 갖고 다닌다 ② 약속시간을 기다리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차를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작은 틈새라도 생기면 그냥 읽는다. ③ 티끌모아 태산이다. 조금씩 읽어도 괜찮다.

II. 어떻게 읽을까

1. 누가 뭐라 해도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

책 읽기에 대한 고민은 ‘어떤 책을 볼까’에서 시작한다. 하고 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읽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일단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다. 재미있어야 그 일을 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다. 뭔가 근사해 보이는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명작·고전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업무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리 내면의 비판자들을 물리치고 우선 내게 재미있는 책을 골라 읽는 것이 평생 독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아무리 고전이나 명작으로 권하는 책이라 하더라도 내게 맞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 내게 너무 어렵다면 그 책은 아직 내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책의 제1조건은 내게 맞는 책, 재미있는 책이다. 재미있게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책이 진정한 좋은 책이다.

재미도 경험치에 따라 변화한다. 재미도 자꾸 느끼다 보면 그 영역도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 재미있어서 그냥 읽었는데 그러다가 다가오는 지혜로도 충분히 뿌듯하다.

재미있는 책을 고르는 요령

1. 그냥 읽어라 (단순한 요령이지만 효율적이다.)
2. 시작하고 20쪽을 읽었는데도 재미가 없다면 끝까지 재미없을 확률 80%

2. 쉬운 책부터 읽어라.

어려운 말만 늘어놓거나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 책은 일단 멀리 해도 좋다. 자신의 실천내용은 없이 이론만 말하고 있는 책들은 허공에 떠 있는 배 같아서 읽기도 어렵고 읽고 난 뒤 남는 것도 없다. 특히 어려운 말로 배배꼬인 문장이 가득한 책, 주눅 들지 말고 던져버리면 된다. 가장 훌륭한 필자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다.

3. 실무에 도움을 받으려면 실전을 다룬 책들을 먼저 읽어라.

예를 들어 당신이 주민복지에 관심이 많다고 치자. 그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 복지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지학의 개념, 복지의 역사, 복지의 의의 등등 별걸 다 배우게 된다. 그런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실용성이

약한 이론은 오히려 걸림돌만 된다. 학자가 될 생각이 없다면 실전을 다룬 책들을 먼저 읽어라.

4. 이해하는 데만 신경을 써라.

시험 보려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면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암기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 실전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찾아 읽으면 된다. 나이 들면 암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아예 안 읽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돌아서면 잊어버릴지언정 지금 이 자리에서 즐겁게 읽으면 된다. 정보화시대에 나보다 암기를 잘해주는 기기들은 너무 많다. 당신이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5. 중요한 내용은 외워라.

4번과 상충될 수 있지만 4번에서 이해를 중심으로 읽었다면 여기서는 마음에 와 닿는 어떤 일부분만이라도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함을 말한다. 책을 읽고 나서도 누군가에게 그 책을 소개할 때 자신이 받은 감동만큼 전하기는 아주 어렵다. 그때 내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외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다. 감동적인 구절을 메모해서 외워보면 책이 내게로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

6. 책을 더럽히며 읽어라.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고, 네모나 동그라미 등 강조할 만한 곳을 표시하라. 읽어나가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메모도 해 놓아라.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포스트잇으로 구분해도 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책을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책을 깨끗이 다루라는 교육을 너무 강하게 받아왔다. 그것은 책이 귀하던 시절의 덕목. 특별한 소장용 장서가 아니라면 오늘날 책은 소모품이다. 독서 흔적을 많이 내면서 읽어라. 밑줄 치면서 읽으면 능동의 독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간혹 밑줄 그은 부분만 읽어도 책 읽을 때의 감동이 살아나는 경우도 많다.

7. 서평이나 리뷰를 다 믿지 마라.

서평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전문가도 있지만 아르바이트 대학생, 일반인, 기자, 주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다. 기자들의 서평은 주로 인문계 서적들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그러나 경영이나 사업에 관한 책의 전문가는 따로 있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너무 바빠서 서평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전문가가 쓴 서평이 난무하는 시절이다. 또 수많은 출판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많이 팔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말만 적어 놓는 아르바이트 서평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수없이 많은 서평이나 리뷰를 참고만 할 일이지 다 믿어서는 안 된다.

8. 어렵고 좋은 책을 붙잡고 씨름해도 좋다

재미있는 책이 책 고르기 1번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렵고 좋은 책을 힘들여가면서 읽을 필요도 분명히 있다. 애들러는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에서 이렇게 말한다.

"좋은 책은 열심히 읽으면 그 대가가 있다. 가장 좋은 책이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책으로부터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어렵고 좋은 책을 붙잡고 씨름한 대가로 책을 읽는 기술을 향상시켜준다. 둘째, 좋은 책은 이 세상과 독자 자신에 대해 가르쳐준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대가일 것이다. 인생을 배우는 것, 즉, 더 지혜로워진 것이다. 지식이나 정보만 제공해주는 책을 읽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인생의 영원하고 위대한 진리를 보다 깊이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몇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문제들은-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세상 사이- 뭐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정답도 없는 관계다. 위대한 책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깊고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썼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책이 어려운 책이라면 그 어려운 책에도 도전해 보자. 그냥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으로는 삶의 충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재미도 있지만 의미 있는 책이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다.

9. 책과 내 삶을 견주어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 기억을 떠올리고, 책이 무엇을 주장한다면 거기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세워보기도 한다. 저자의 관점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과 견주어 비교하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책과 삶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책과 나의 삶을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시각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책이 더 재미있을 수 있다.

Ⅲ. 천천히 깊이 있게 읽기

책을 읽는 궁극의 목적은 ‘변화’다. 어떤 책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받은 감동은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변화 발전시키는 힘을 준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천천히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세상과 사물을 ‘보는 눈’을 갖게 되고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사고와 태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책은 분명 좋은 책인데 깊이 있게 읽을 때만이 그 책에 ‘좋은 책’으로 성큼 다가온다.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만 정리해본다.

1. 빨리 읽지 않는다.

책에 따라서 빨리 읽어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 책도 있지만 깊이 읽기 위해서는 천천히 읽어야 한다. ‘천천히 읽어야 분석이 되고, 게으르게 읽어야 상상이 되고, 느긋하게 읽어야 비판할 거리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급하게 읽고 난 뒤에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분석과 상상, 그리고 비판이 있어야만 책의 내용이 온전히 마음속에 와 닿는다. 그러려면 우선 천천히 읽어야 한다.

2. 책 읽고 떠들어라 (책 읽고 토론하기)

책을 매개로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독서토론의 아주 큰 강점이다. 책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생각이 다른 점을 알게 되고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 같은 책을 읽고도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때로는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미세한 정도일지라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나간다. 어떤 주장의 찬반을 묻는 토론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독서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니 큰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뜻밖의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평생 책읽기 마라톤 완주하려면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 독서모임을 열어보자.

3. 읽은 책을 내 것으로

읽는 것에서만 그치는 수동형 독서에서 내가 무엇인가 가치를 재창조해 나가는 능동형

독서로 바꾸어야 읽은 책을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읽은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 가운데 책의 내용 요약하기가 있다. 최소한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만 그 책을 소화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조금 길게 썼다가 그것을 몇 줄로 요약하고 다시 한 줄로 요약하고 한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권하는 독서학자들도 있지만 그것까지 너무 어렵다면 자신의 능력만큼 요약해 본다.

IV. 시도 읽자

사람이 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시가 밥먹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에 한줄기 맑은 바람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시 몇편 놓아두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한다.

어느 날/김상옥

구두를 새로 지어
딸에게 신겨주고

저만치 가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 생애 사무치던 일도
저리 쉽게 가겠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영영 울겠다.

담배/박재용(밀양 상동초등 5년)

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아버지 담배 그만 피세요."
"알았다 니나 커서 술이랑 담배 피지 마라."
"나는 안 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피지 마라."
"니는 공부나 잘 해라."

아버지는
말을 잘 돌려서 치사하다.

(읽기 자료 1)

빈칸의 비밀

· 작 가 : 파멜라 헤넬
〈국어시간에 소설읽기〉 중에서

내가 살던 작은 마을에는 마을 주간지가 하나 있었다. 텍스 윌리엄슨 씨가 발행하는 그 신문은 마을의 이모저모를 알려주곤 했다. 그런데 그 주간지의 칼럼이 수년 동안에 걸쳐 가끔씩 빈칸으로 실리곤 했는데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구구한 억측이 떠돌았고 윌리엄슨 씨를 괴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 -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들 - 은 윌리엄슨 씨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윌리엄슨 씨를 좋아했다. 그는 키가 작고 귀가 유난히 컸다. 좀 수다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인기가 있었다. 항상 장난스러운 웃음이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일에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큰 신문사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65세가 될 무렵에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꿈꾸어 오던 작은 마을의 주간 신문을 사서 운영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게 되었다. 텍스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월트 네살에게 타자와 인쇄를 맡기고, 나머지 일은 자신이 모두 도맡아서 신문을 운영하였다. 편집자 겸 기자 겸 신문 발행인으로서.

텍스가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부터 종종 그 주간지의 제2면에 있는 칼럼난이 인쇄가 되지 않은 빈칸으로 실리기 시작했다. 그 빈칸은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나타났는데, 그 중 한 번은 제1면에 실린 적도 있었다.

이를 궁금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그를 붙잡고 이유를 캐물었지만, 누구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는 못하였다. 텍스는 그 때마다 짤막하게 대답하곤 했다.

"아니, 신문 편집할 때 모든 난을 반드시 꼭꼭 채워야 한다는 법이라도 어디 있소?"

다섯 번째로 칼럼이 빈 칸으로 실린 다음 날, 월트 네살은 이 이상스러운 칼럼을 신게 된 배경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잡아냈다. 그날도 월트 네살은 텍스와 함께 잔뜩 어질러져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에 열중해 있었는데 있는데 갑자기 곤잘레스라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건장하게 생긴 젊은 노동자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가족을 거느린 가장이었다.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품이 방금 전에 싸움을 한판 벌이고 온 것 같았다.

"맥주 한 잔 하려고 바니네 술집에 들렀습죠."

곤잘레스가 말했다.

"그런데 거기서 몇 사람이 어울려서 어제 신문에 실린 빈 칼럼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 흉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는 텍스의 책상 위로 몸을 구부리면서 말했다. 그 모습이 마치 간청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윌리엄슨 사장님, 아무래도 왜 빈칸으로 실렸는지 말해야할까 봐요. 사람들이 사장님 미쳤다는니 하면서 수군덕거리는 걸 이젠 더 이상 못 듣겠어요. 그건 정말 부당일이잖아요!"

텍스는 그 말에 싱글싱글 웃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네. 나만 미치지 않았으면 그만이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그는 곧 정색을 했다.

"자네하고 나,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어. 우린 비밀을 지켜야 해. 자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게."

몇 달 후, 이번에는 마을의 젊은 의사 마쉬 박사가 텍스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게 되었다.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믿고 있던 한 환자가 마쉬 박사에게 빈 칼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마쉬 박사는 환자의 마음도 잘 읽어주고 비밀을 잘 지켜주는 의사로 신뢰가 높은 사람이었다. 빈 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마쉬 박사는 누가 텍스가 미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라치면 "만일 텍스가 미친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미쳤으면 좋겠소." 하면서 텍스 편을 들어 말을 하곤 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빈칸의 수수께끼는 한 수다스런 여인의 입놀림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 여인은 '텍스가 사람들에게 대한 불리한 기사를 구실로 돈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텍스가 사람들의 수치스런 기사나 뒤가 구린 기사를 신문 제작 최후의 순간까지 빈칸으로 남겨 놓음으로써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건너 우리 할아버지한테까지 전해졌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텍스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그 소문? 그래요. 나도 그 소문을 들었대요." 텍스는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중에는 그 말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요. 사실 나는 빈 칼럼 때문에 이렇게 큰 소란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소. 난 그저 조그만 나의 계획을 실천한 것뿐이요."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허리를 쭉 폈다. 그는 더욱 완고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나는 해명하지 않겠소. 내 입장 살리자고 착한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소."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갔고, 텍스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 갔다. 항상 입가에 머물러 있던 사람 좋은 미소도 사라졌고, 그의 인생에서 '우정'이라는 밝은 단어는 사라져 버린 듯이 보였다.

그때 마을의 피트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트 노인은 얼마 전 자기 아내 물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상심에 빠져 살고 있었다.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끊고 지냈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소문을 혼자서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식료품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다가 한 이웃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텍스 그 사람 또 빈 칼럼을 냈어. 이번엔 얼마나 받았을까?"

빵과 버터 값을 치르고 있던 피트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따져 물었다.

"텍스가 돈을 받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이웃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 신문에 빈 칸 말입니다. 그 빈 칼럼으로 누군가를 협박하는 거지 뭐니까. 여태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러자 가게 안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가 노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자네 미쳤나? 텍스가 누굴 협박해? 그 사람은 자기 신문에서 기사를 빼주는 조건으로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노인은 몹시 화를 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순수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들이나 있어. 나는 안다구. 왜냐? 내가 바로 그 빈 칼럼 주인공이니까."

피트 노인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으리라. 그러나 노인은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의 명예보다 텍스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4년 전, 피트 노인이 일흔 살 되던 해였다. 그는 곧 자신의 일을 젊은 사람에게 넘겨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아내 물리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시집 간 딸이 하나 있었지만 그녀 역시 가난하고 식구도 많았기 때문에 딸네 집에 얹혀 살수도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어렵게 사는 딸을 수년 동안 도와주다 보니, 피트 노인은 저축 한 푼 할 수 없었다.

그는 규모가 큰 연장 제조 회사의 자재과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처량하고 막막한 미래를 한탄한 나머지, 생애 처음으로 부정한 일에 손을 대고 말았다.

그 후 여러 주일에 걸쳐서 그는 수많은 연장을 몰래 내다 팔았다.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자 물건이 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그 회사 사장 톰 바드는 합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 거기에 피트 노인이 걸려들었다.

바드 사장이 보안관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신고하는 중에 마침 텍스는 뉴스거리가 없나 하고 보안관 사무실에 들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안관과 함께 연장 회사로 간 텍스는 피트 노인이 장래에 먹고 살 일이 불안해서 연장을 훔쳤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는 동안 보안관 뒤에 말없이 앉아서 노인의 말을 받아쓰고 있었다. 노인이 더듬거리며 말을 끝내자, 텍스는 수첩을 밀어 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트……, 당신 부인 몰리는 이 마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소." 텍스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몰리는 훌륭한 사람ियो, 이 일로 그녀가 손가락질을 받아선 안 되겠지요."

텍스는 바드 사장과 보안관을 떠밀다시피 하여 옆방으로 갔다. 20분쯤 지난 후에 텍스가 혼자서 돌아왔다. 그리고 피트 노인에게 말하기를, 만일 노인이 연장을 팔아 번 돈을 회사에 반납한다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텍스의 엄격한 눈동자가 피트 노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보통 때라면 나는 당신의 절도 행위를 신문에 실었을 거요. 하지만 이번엔 빈 칸으로 내보내겠소.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한번이라도 몰리에게 치욕이 되는 짓을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신문에 실을 거라는 경고로써 말ियो."

피트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사람들은 내가 비어 있는 칼럼을 내보낸다고 미쳤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피트, 당신에게는 그 칼럼이 '사람들은 보통 단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낙인이 찍히지만 나에게는 고맙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기억을 일깨워줄 것이요. 그 칼럼은 또한 당신이 원래 매우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나의 신념의 상징이기도 하오."

일 년 후 피트 노인이 회사를 퇴직했을 때 텍스는 피트와 몰리를 격려하여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몰리의 과일잼을 상품화하도록 했다. 과일잼은 날개 돋친 듯 팔려 그들은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몰리가 죽었을 때 피트는 텍스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평생을 불명예라는 말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행복한 여인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이다.

피트로부터 빈 칼럼에 얹힌 진짜 이유를 들은 뒤로 마을 사람들은 텍스에게 새로운 존경심을 품게 되었고,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무수한 추측 속에 텍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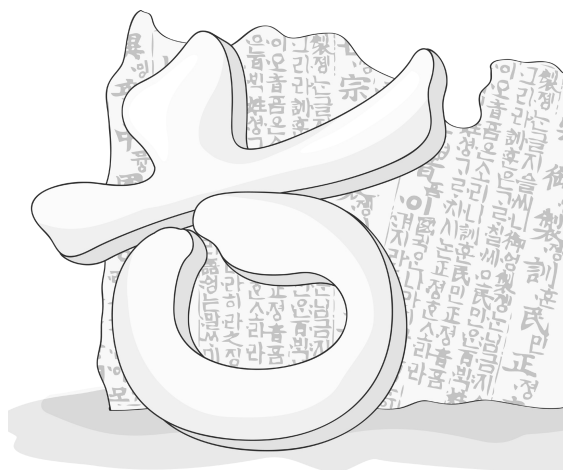
그가 죽기까지 열한 번의 빈 칼럼을 더 실었다. 그 빈칸은 물론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게 되었다. 나는 그 칼럼의 주인공들이 언제까지나 그 작은 편집장의 믿음과 친절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빈다. 그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해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었다.

"나는 내 자신의 가정을 꾸며본 적이 없었소. 직업기자로서 전국을 떠돌아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내게도 가족이 생겼소. 바로 빈칸의 주인공들이 나의 가족이자 유산인 셈이오."



독서 토론의 방법

김 주 환 | 안동대 국어교육과



독서 토론의 방법

김 주 환 | 안동대 국어교육과

1. 독서의 개념과 독서 지도 방법

독서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필자가 있어야 한다.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글이 생산된다. 따라서 독서가 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요인은 필자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자신의 생각을 문자라고 하는 기호의 체계로 표현한다. 독자 또한 이러한 기호 체계를 통해서 필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요인은 글, 즉 기호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물론 독자 요인이다. 아무리 훌륭한 필자가 대단한 사상을 기록해 놓았다 하더라도 독자가 그 뜻을 풀어내지 않는다면 독서 행위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독서라는 것은 결국 글을 매개로 해서 필자와 독자가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요인 중에서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독서 활동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첫 번째 요인인 필자를 강조했다. 글이라는 것은 필자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이며 독서 활동은 곧 독자가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본 것이다. 글을 읽을 때, 작가 정보를 활용하고 작가의 의도를 찾고자 하는 것도 글이란 곧 작가의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글 자체를 강조하는 관점이 있다. 글이란 작가의 손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구성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글은 하나의 구조물이며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글의 구조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독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비평이 이러한 관점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작가의 배경을 탐색하거나 필자의 의도를 찾는 일은 작품 외적인 요인에 집착하는 것에 불과하다. 작품의 의미는 작품 내적 구조에 있다.

최근에는 독자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곧 독자가 의미를 구성

하는 능동적인 행위이다. 독자 반응 중심의 태도가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자나 글 자체보다 독자의 배경지식이다. 같은 글이라도 독자의 관점이나 경험, 태도 등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자 중심의 관점은 학생 중심 교육의 흐름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교육활동의 지배적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독서 활동을 보는 관점에 따라 독서 지도의 내용 또한 달라지게 마련이다. 필자 요인을 강조하게 되면 독서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에 대한 정보이다. 작품은 곧 작가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정보는 작품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작가의 관점이나 태도, 작품 경향 같은 작가 정보야말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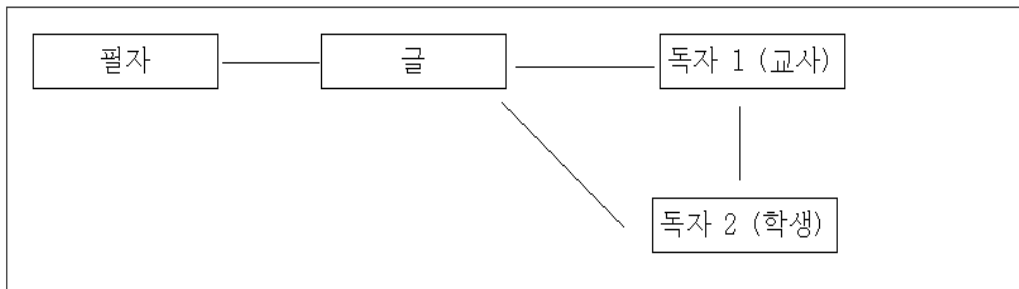
그러나 글 자체를 중시하게 되면 독서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 정보가 아니라 글 자체에 대한 정보이다. 여기서는 글의 갈래나 구조, 표현법 등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 한때 국어교과서에서 이러한 글의 구조와 표현법을 열심히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다. 이때에는 정말 가르칠 것이 있었다. 그러나 독자를 중시하는 관점이 도입되면서 교실에서는 가르칠만한 지식이 없어져 버렸다. 독자의 의미 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사가 독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오히려 독자 스스로의 의미구성을 방해하거나 왜곡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은 다양한 독서 전략이다.

독서 활동은 필자나 글, 독자 중의 어느 한 요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독자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독자가 마치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독에 빠지기 쉽다. 마찬가지로 글의 구조나 표현에만 집착하게 되면 글쓴이의 의도나 독자의 감상 행위, 즉 필자와 독자의 소통 과정은 도외시되기 쉽다. 또한 독서를 그저 글쓴이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행위로만 이해하는 것도 독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를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한 행위로 보기 보다는 글을 매개로 한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자는 글을 통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필자의 생각이 타당한지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독서는 대화와 달리 상대방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다. 글을 쓸 때 필자는 보이지 않는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고, 독자 또한 글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필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게 된다.

따라서 독자와 필자의 대화는 글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우선 글 자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글을 통해서 필자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필자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말을 걸어 오지만 독서 활동에서는 글이 말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활동을 오직 독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상상력만으로 진행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저절로 습득을 하지만 글은 인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서 활동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과 지도가 필요하다. 독서 지도에는 독서 활동에 작용하는 세 가지 요인 이외에 교사와 학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추가된다. 교사와 학생은 독서 활동의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보면 독자 요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같은 독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사와 학생을 같은 독자라고 할 수는 없다. 비슷한 독자라면 독서 지도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은 독서 활동에서 보면 같은 독자의 위치에 서 있지만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교사는 아무래도 학생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서 지도는 수준 높은 독자인 교사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지도해서 높은 수준의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독서 활동을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하게 되면 독서 지도 활동은 여기에서 독자 1과 독자 2의 상호 작용이 더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모두 세 가지 종류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① 교사와 필자의 상호작용 ② 학생과 필자의 상호작용 ③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그것이다. 그런데 교사나 학생과 필자와의 상호작용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둘 다 온전한 독자로서 필자와의 대화를 나누며 이 과정에 다른 누군가가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는 수준 높은 독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기 쉽고, 학생들은 교사의 해석을 자신의 해석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렇게 교사가 자신의 해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독자 2는 온전한 독자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독자 1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독자 1이 해야 할 일은 독자 2가 스스로 필자와의 대화를 능숙하고 수준 높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위치에서 벗어나 독자 1, 독자 2, 독자 3과 같이 같은 독자의 위치에서 감상을 나누는 태도가 필요하다.

독서 지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선은 학생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독서의 흥미를 자극하고 학생들의 독서 행위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따라서 필자에 대한 정보나 글 자체에 대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낮은 수준의 독서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교사는 학생 스스로 독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나아가 인상적 독서 수준에서 나아가 분석적 독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학생 각자의 인상적인 독서 수준을 분석적 독서 수준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독서 토론이다. 독서 토론은 강의처럼 교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읽은 감상을 나누는 일이다. 학생들의 감상은 서로 다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상을 나누는 일만으로도 서로 배우는 바가 많다. 교사는 학생들이 감상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보지 못한 점을 질문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처럼 독서 토론은 학생 각자의 감상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작품 보는 안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2. 독서 토론의 방법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독서 토론을 토론이 아닌 독서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토론에 무슨 형식이 있느냐고 말하기 쉽다. 하지만 독서 토론도 토론인 이상 토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다. 토론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독서 토론이 가능하려면 한 권의 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속에서 서로 대립되는 쟁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쟁점이 도출되어 논쟁이 가능해야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나서 감상을 발표하고 나누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독서 토론이라기보다는 감상 발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토론이라는 말을 넓은 뜻으로 사용하면 토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토론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저 감상을 나누는 독서 토론으로는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없다.

토론은 정반합을 통해 진리를 추구해 가는 변증법적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을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독서 토론 또한 대립적 사고 과정을 통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독서 토론은 일반적으로 비형식적 토론으로 분류되지만 대회토론이나 교신토론처럼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할 수도 있다. 논쟁적 성격을 가미한 독서 토론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작품을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 토론의 방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독서 토론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것을 전제로 한다. 책을 읽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독서 토론을 진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서 토론은 책을 읽고 감상을 정리하는 등의 혼자 하는 활동과, 논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등의 함께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책 선정하여 읽기(혼자 하는 활동)
② 개인적 감상 발표하기(함께하는 활동)
③ 쟁점에 대해 토론하기(함께하는 활동)
④ 비평글 쓰기(혼자 하는 활동)

① 책 선정하여 읽기

책을 선정하여 읽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한다거나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독서 토론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과연 그 책이 토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이다. 쟁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책일 때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쟁점을 교사가 제시할 때는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학생들이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토론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읽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독서 토론을 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다.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의 감상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놀라운 것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주인공인 이인국 박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인국은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인데, 돈 많은 일본인들은 치료해 주고 돈 없는 조선인들은 그냥 돌려보내는 인물이었다. 또한 해방 뒤 나라가 다시 소련군에게 점령당했을 때는 포로가 되지만 소련군 장교를 치료해 주고 나서 후한 대접을 받으며, 미군이 진주했을 때도 그들에게 협조하면서 출세 가도를 걷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배자들에게 영합해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면서 오직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이인국 박사를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가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문학사적 평가와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론의 여지가 있다. 이 작품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는 까닭은 작가가 이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고 인물 그 자체를 보여 주는 객관적 서술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작가가 일방적으로 인물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했다면 학생들의 반응이 이처럼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인국이라는 한 지식인의 행동을 보게 되고, 아울러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쟁점이 뚜렷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개인적 감상 발표하기

감상과 비평은 다르다. 감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비평은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려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이야기할 때는 감상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 책을 읽은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데, 이 단계에서는 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독자의 느낌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자의 해석이 타당한가의 문제는 그 다음 일이기 때문이다.

감상 발표 단계에서는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가 발표하게 한다. 길고 장황하지 않게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발표하게 한다면 모두가 발표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모두 자신의

감상을 발표해야만 독서 토론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된다. 교사는 가능하면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칠판에 간략히 기록하여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 수업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발표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그러나 학생들이 발표한 감상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작품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개인적인 감상 발표 단계에서도 학생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게 된다. 비록 잘못된 해석을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오독이 바로잡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가 굳이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감상 발표만으로도 학생들은 작품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 교사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좋다.

③ 쟁점에 대해 토론허기

학생들이 발표한 여러 가지 감상 의견 중에서 공통점은 간단히 짚고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은 모두가 대부분 공유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작품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쟁점은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을 수도 있다. 서로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쟁점이라면 토론으로 넘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인물에 대한 평가, 작품을 보는 관점의 차이 등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집중 토론이 필요하다. 쟁점이 도출되면 그 쟁점을 다시 칠판에 적어 놓고 이것을 논제로 삼아 토론을 진행할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 「꺼삐딴 리」의 이인국은 유능한 인물인가, 기회주의적인 인물인가라는 쟁점이 도출된다면 이것을 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보통 분명하게 드러나는 쟁점은 작가가 해당 작품의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 문제의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면 작품을 한층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작가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일, 또는 쟁점의 역사적 배경 등을 조사하는 것은 토론이 더욱 의미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독서 토론과 다른 토론의 차이점은 토론의 논거를 작품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작품 속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품을 꼼꼼히 읽는 분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④ 비평글 쓰기

‘쟁점 토론’이라는 집단적 사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쟁점을 통해서 작품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학생들은 감상의 차원에서 비평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특정한 관점에 따라 작품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비평이다. 쟁점 토론을 통해서 작품의 안팎을 헤집고 돌아다녔다면, 비평을 통해서 다시 작품 안으로 들어가 작품을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평글을 쓰게 되면 학생들은 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책을 읽게 되고 글을 보는 안목을 넓히게 된다. 또한 독서 토론의 성과를 다시 개인적인 활동인 글쓰기에 반영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평글이 아니라 논술글로 쓸 수도 있다. 「꺼삐딴 리」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이것은 논술문의 형태가 된다. 비평글이 다시 작품 안으로 돌아가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논술글은 주제를 중심으로 확산된 글쓰기이다. 최근에 논술이 강조되면서 독서 토론의 결과를 논술로 정리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독서로 출발해서 논술로 마무리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지만, 독서 토론을 했다면 다시 책으로 돌아오는 회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평글 쓰기는 독서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주제 중심의 논술문보다 훨씬 값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 토론의 결과는 비평글 쓰기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읽기 자료 2)

개미와 베짖이

서머셋 모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라퐁텐의 우화 몇 개를 암기하도록 강요받았는데, 그 하나하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훈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렇게 배운 우화 가운데 「개미와 베짖이」라는 게 있었다. 그 이야기는,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부지런하면 그 보답이 있지만 들떠 놀아나면 벌을 받는다는 유익한 교훈을 젊은이들에게 심어 주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누구나 다, 비록 정확하지는 못하나마,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이 경탄할 만한 우화란 이러한 내용이다.

개미가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하여 겨울 먹이를 저장하고 있는 데 반하여, 베짖이란 놈은 풀잎에 도사리고 앉아서 태양을 향하여 노래만 부르고 있었다. 겨울이 오자, 개미는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건만 베짖이의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베짖이는 개미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간청했다. 그때 개미는 베짖이에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답을 한다.

“자넨 여름 동안 무얼 하고 있었나”

“자네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만 하고 있었다네.”

“맞아, 노래를 불렀었지. 그럼, 춤이나 추러 가는 게 어떨까”

조그만 아이였던 나에게는 이 교훈이 감명을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괴팍한 내 성질 때문이 아니라 선악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흔히 있는 모순 때문이었으리라. 나는 게으름뱅이 베짖이에게 동정을 느껴, 얼마 동안은 개미를 보기만 하면 짓밟아 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직성이 풀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어 느낀 것이지만 — 사리 분별이나 상식 따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언젠가 어느 레스토랑에서 조지 램제이 씨가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 우화를 생각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사람 만큼 정말 우울한 표정을

지닌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는 물끄러미 허공만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온 세상의 짐을 자기 혼자 도맡아 걸머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가 가없어졌다. 저 불운한 사람의 아우가 또 말썽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고 대뜸 생각했다. 나는 조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전 기분이 유쾌하지 않아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또 톰이 무얼 저질렀나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네, 또 그 녀석 때문입니다.”

“왜 내쫓지 않으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해 오셨잖아요. 그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걸 이젠 당신도 깨달으셔야죠.”

어느 가정이란 간에 하나쯤은 골칫거리가 있는 법이다. 톰은 이십 년 동안 이 가족에게 큰 골칫거리였지만 처음에는 그도 제법 남부럽지 않게 출발했었다. 직장에도 들어가고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두었었다. 람제이 가는 매우 훌륭한 가문이었으므로, 톰 람제이가 장차 쓸모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리라고 세상에서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톰이 갑자기 일이 싫어졌으며 자기는 결혼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언해 버렸다. 자기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떠한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버리고 직장도 뛰쳐나왔다. 돈이 조금 있어서 이 년쯤은 유럽의 몇몇 수도에서 즐거운 세월을 보냈다. 때때로 그의 행적에 관한 소문이 일가친척의 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는 정말 호화판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친척들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돈을 탕진하였을 때에는 도대체 어찌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곤 했다.

이윽고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톰이 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몰염치했지만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람만큼 돈을 꾸어 달라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을 결코 만난 적이 없다. 그는 끊임없이 친구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그런 친구들이 쉽게 생겨났던 것이다. 하지만 생활의 필요에 쫓기어 쓰는 돈 따위는 재미가 없다고 그는 항상 말하는 것이었다. 써서 신바람이 나는 것은 사치스런 것에 쓴 돈이라고 하였다. 이것 때문에 그는 형인 조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자기 형에게는

타고난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조지는 진지한 사람이어서 그런 유혹에는 무감각했던 것이다. 조지는 근엄한 인간이었다.

한두 번 톰이 생활 태도를 고친다는 약속에 따라,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면 하고 상당한 금액을 건네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톰은 자동차라든가 멋들어진 보석을 사 버리곤 했다. 아우가 정신을 차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위의 사정으로 알아채고, 조지 램제이 씨는 동생인 톰과 손을 딱 끊고 말았다. 그랬더니 뻔뻔스럽게도 톰은 형을 공갈 협박하기 시작했다.

존경을 받을 만한 법률가인 조지로서는 자기 단골 레스토랑 카운터 뒤에서 자기 아우가 칵테일을 만들고 있거나, 자기가 다니는 클럽 밖에서 택시 운전대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거나 하는 꼴을 본다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톰은 술집에서 일하는 것이라든지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조금도 몹쓸 직업은 아니지만 만약 형이 2백 파운드의 돈만 준다면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그따위 직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지는 2백 파운드의 돈을 선선히 내주었다.

한번은 톰이 하마터면 감옥에 들어갈 뻔했다. 조지는 몹시 당황했다. 그는 이 수치스런 사건을 살살이 조사해 보았다. 정말로 톰은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그는 지금껏 방종하고 지각없이 제멋대로 살아오기는 했지만 결코 부정한 일은 저지른 적이 없었다.

조지가 말하는 부정한 일이란, 법에 걸릴 만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고소되기만 하면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우가 감옥에 처박히게 되는 것을 형으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톰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은 크론쇼란 자였는데 양심이 깊은 사내였다. 그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호통을 쳤다. 톰은 불한당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지는 많은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5백 파운드의 돈까지 쓰게 되었다.

그러나 톰과 크론쇼는 그 5백 파운드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가 무섭게 둘이서 몬테카를로로 날라 버렸다. 이 말을 들었을 때만큼 조지가 노발대발한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톰과 크론쇼는 그곳에서 호화판으로 한 달을 지냈다.

이십 년 동안 톰은 경마며 도박에 열중하고, 제일 멋들어진 계집들의 꿈무늬를 쫓아다니고, 춤을 추거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옷치장만 하면서 지냈다.

언제 보아도 옷상자에서 갓 나온 듯한 말쑥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마흔여섯 살의 나이였지만 서른다섯 이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정말 재미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건달이라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만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즐거워지는 것이었다. 그는 의기양양하여 언제나 명랑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이 넘쳐 흘렀다. 그래서 그가 생활필수품을 산다고 꼬박꼬박 내게 돈을 빌려 와도 나는 선뜻 돈을 건네주었다. 내가 50파운드의 돈을 빌려 주었을 때도, 오히려 내가 그에게 빚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톰 램제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한 톰 램제이를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가 하는 짓은 마음에 거슬렸지만, 인간으로서의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가엾게도 조지는 이 말쑥꾸러기 아우와 단 한 살 차이밖에 없었지만 예수 살이나 되어 보였다. 이십오 년 동안, 그는 일 년에 두 주일 이상 휴가를 얻은 예가 없었다. 매일 아침 아홉 시 반에는 사무실에 나가 있었고, 저녁에는 여섯 시를 넘지 않으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훌륭한 인간이었다. 암전한 아내가 있었고, 다른 여인들과 바람을 피운다거나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으며, 벤틀이나 되는 딸에게는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아버지였다. 그는 수입의 3분의 1은 세상없어도 꼬박꼬박 저금을 하기로 하였고, 쉰다섯 살이 되면 은퇴하여 시골에 아늑한 집을 구하여 정원을 가꾸기도 하고 골프를 즐기기도 하리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생활은 나무랄 데라곤 한 군데도 없었다. 조지는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하고 바랐다. 왜냐하면 톰도 따라서 나이를 먹기 때문이었다. 그는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말했다.

“톰이 젊고 얼굴이 반반한 동안은 뭐 이러쿵저러쿵할 건 없지만, 그는 나보다 꼭 한 살 아래란 말입니다. 이제 사 년만 있으면 그 녀석도 오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만사가 식은 죽 먹기로 되진 않는다는 걸 알 테지요. 나로서는 오십이 될 때까지 3천 파운드의 돈이 모일 테고, 지난 이십오 년 동안, 톰은 끝장에 가서는 거덜이 나는 수밖에 없겠지 하고 나는 말하여 왔습니다. 그때 가서 녀석에게 어떤 심정이 드나 두고 봅시다.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과 빈둥빈둥 노는 것 중 어느 편이 정말 이득을 볼 것인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가엾은 조지! 나는 그를 동정하고 있었다. 나는 조지 옆에 앉아서 대관절 그 톰 녀석이 어떤 패가망신할 짓을 저질렀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조지가 몹시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고 그는 내게 물었다.

나는 물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었다. 톰이 경찰의 손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조지는 쉽게 이야기할 기분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당신은 내가 부지런하고, 점잖고, 남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삶을 살아왔다는 걸 부정하지 않으시겠지요. 뼈 빠지게 일하여 절약해 온 나는, 노후에는 수익성이 높은 노른자위 증권에서 들어오는 적은 수입을 목표로 은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느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리는, 내 신분에 있어서 내게 부과된 의무를 꾸준히 다해 왔단 말입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톰이 게으름뱅이이고 아무 쓸모없는 바람둥이이며,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 건달이란 것도 당신은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고 하면 녀석이야말로 구빈원 행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조지는 점점 얼굴을 붉혀 가면서 말을 이었다.

“몇 주일 전 톰은 어머니뻘 되는 부인과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여인이 죽어서 그녀가 갖고 있던 재산이 몽땅 그 녀석의 손에 굴러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돈이 50만 파운드, 요트 한 척, 런던에 있는 저택, 게다가 시골의 별장까지…….”

조지 램제이는 불끈 쥐 주먹으로 테이블을 힘껏 내려쳤다.

“이건 공평치 못해, 공평치 못하단 말이야. 제기랄, 이건 정말 공평치 못하다니깐.”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조지의 화가 치민 시뻘건 얼굴을 보고 큰 소리로 웃어댔다. 의자에서 배꼽을 잡고 웃다가 하마터면 마룻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 조지는 이런 나의 결례를 언제까지나 용서해 주지 않았다.

한편 톰은 산해진미의 만찬을 차려 놓고, 메이페이에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때때로 나를 초대하곤 했다. 그가 설사 내게서 돈을 얼마 꾸다고 하면, 그것은 그저 지금까지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며, 그 금액도 1파운드를 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서머셋 모옴 단편선』(서머셋 모옴, 이호성 옮김, 범우사, 1993)

논제 : 재미같은 삶이 옳은가, 배짱같은 삶이 옳은가?

어렸을 적에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짚이」에 대해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 우화를 토대로 하여, 람제이 가(家)의 두 형제, 조지 람제이와 톰 람제이에 대해서 ‘나’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형 조지는 변호사로 도덕을 중시하며 개미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동생 톰은 베짚이처럼 일은 하지 않고 쾌락을 즐기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화 「개미와 베짚이」가 주는 교훈과 달리, 행운의 여신은 동생의 편을 들어줍니다. 톰은 갓 결혼한, 돈 많은 부인이 남긴 유산 덕분에 조지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조지는 이 사실을 매우 억울해 하지요.

‘나’는, 불성실하고 책임감은 없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풍부한 톰에게 더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가 서머셋 모옴은 ‘나’의 시선을 통해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 것일까요? ‘나’는 왜 ‘개미와 베짚이’의 교훈에 대해 그리 거부감을 지녔던 것일까요?

또, 작가의 의도를 떠나서, 우리는 조지의 삶과 톰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형이 추구한 삶의 지향을 도덕성과 성실함으로 보고, 톰이 추구한 것을 쾌락 혹은 욕망으로 본다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후회 없이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 형제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나의 의견 :

기획·편집: 황두연(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박미영(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사)

집필: 〈차례 순〉

21세기 독서의 의미(노명완,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방안(옥현진,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미래 세대를 위한 독서 교육(이순영,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독서와 표현 능력(김성수,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국어 정보 활용법(권미영,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전문위원)
문학으로 여는 세상 -정보 사회와 문학- (문홍술,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3회)나를 찾는 독서 -당신은 삶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철환, 작가)
(제4회)나를 찾는 독서 -나의 삶, 나의 독서, 그리고 나의 문학- (고정욱, 작가)
의미를 찾는 읽기와 쓰기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가령, 경희대 사회교육원 교수)
독서 토론의 방법(김주환, 안동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국립국어원 2013-03-10

독서와 국어 능력 향상

2013년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교재

2013년 8월 21일 인쇄

2013년 8월 26일 발행

발행인: 민 현 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3
